

4

주제104(2015)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4호

(루계 제810호)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경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 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우리 수령님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스승이었고 자신은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시였다.》

## 김 정 은

### 차 례

~~~~~| 위대한 수령님의 그 업적 천세만세 영원불멸하리 |~~~~~

만민의 태양(시)..... 오 영 재( 4 )

수령님께 드리는 4월의 노래(시)..... 최 득 필( 5 )

만경대고향집(시) ..... 정 두 국( 6 )

수령님과 연필(시) ..... 류 명 호( 7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 5 )

**단편** 이 땅 이 하늘아래 ..... 사 영 철( 8 )

**소설** 해군대기 ..... 리 주(23)

**주체문학의 대강** ..... (19)

도마도에 깃든 사랑의 전설(답시) ..... 문 동 식(20)

**수필** 영원한 봄빛 ..... 리 준 호(21)

두자루의 왼총과 오늘..... 백 성 근(45)

외물이 끓는중입니다(시) ..... 심 재 훈(22)

위대한 동지(가사)..... 문 기 창(28)

위대한 계승(시)..... 리 경 체(54)

불어다오 백두의 칼바람이여(시)..... 박 명 철(46)

### ◇ 평 론 ◇

인류전설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한

혁명전설의 혁신적면모 ..... 박 춘 택(41)

불을 뿜는 땅은 무엇을 전하는가..... 김 학(5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장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 공동구호에서 —

단 편  
소 설

풍산휴양단 ..... 허 문 길(29)

하나의 생명 ..... 주 설 웅(47)

사는 멋 ..... 송 재 환(59)

우리는 얼마나 자랐는가(실화문학)..... 리 룡 운(67)

위대한 승리의 비결에 대한 소박하고

감명깊은 형상(단평) ..... 송 원 길(64)

## ◎ 시 ◎

총창우에 이슬이 흐를 때 ..... 김 광 호(57)

탄부의 긍지 외 1편 ..... 박 상 민(57)

체육열풍 ..... 리 명 학(63)

우리 군대 장한 모습 여기에 있네(가사) ..... 송 명 근(63)

봄빛넘친 포전에서 ..... 김 충 기(66)

그리움의 눈물이여 ..... 김 정 삼(66)

선군시대 인생찬가가 주는 언어형상의 매력(단평) ..... 음 혜 성(79)

상식 ..... (65)

# 만민의 태양

오 영 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세월이 기다렸던분  
기다림에 기다림에 가슴이 타던  
그 속망의 언덕에  
솟아오르신분

그이는  
홀려간 유구한 력사  
홀려갈 영원한 세기과  
서로 손을 맞잡고  
20세기 하늘높이 받들어올린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세월이 머리희도록 찾아헤맨  
진리의 아름다운 구슬을  
짓밟힌 인민들속에서 찾아내시고  
억만가닥 빛발에 담아  
누리에 뿌려주신분

그이는 그 빛발로  
온 지구에 환희를 주시며  
꽃망울을 터치시여  
다투어 봄이 웃는 대지에  
넘치는 삶의 향기로  
력사의 새 아침을 가득 채우신분

**김일성**동지—그이는  
철쇄와 멍에밑에 짓눌려 울던  
인간을 뜨겁게 안으시여  
행복의 푸른 언덕이 끝없이 굽이쳐간  
봄의 들판에 세워주신분

그이는  
존엄높은 인간의 머리우에  
구만리창공을 비껴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인류가 그토록 피를 흘렸던  
해방과 자유의 나래를 달아주신분

그이의 사색앞에  
력사는 세기를 내맡기고  
그이의 사랑앞에  
만민의 가슴은 젖어라

그이의 손길은  
인간의 힘이 창조할  
새 세계의 모양을  
찬란한 주체의 해발로  
지구우에 뚜렷이 그려주시었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수천년을 혼잡속에 헤매이던  
세계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정연한 대오를 무어주신분

그이는  
이 대오우에 첫 구령을 내리신  
세기의 령술자  
《앞으로!》  
새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력사의 대진군우에  
불멸의 기치를 주신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새 세계  
그이는 우주의 중심  
조선의 만경대  
가난한 인민속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의 수령님  
그이는 주체의 태양!

주체66(1977)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가 몇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감히 대항해나선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의병도 독립군도 장학량의 30만대군도 모두 일본군대의 위력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을 타승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국권이 있는가, 령토가 있는가, 재부가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 수령님께 드리는 4월의 노래

### 최 득 필

해빛 눈부신  
태양절의 이 아침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은  
끝없이 끊임없이 달려와  
만수대언덕으로 물결치여라

정성담아 사랑담아 피운 꽃  
다발로 정히 엮어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삼가 드리며  
뜨거웁게 목메이는 태양절이여

오, 4월도 화창한 봄날은  
우리 수령님  
세기를 밝히시며  
태양으로 솟아오른 날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시어  
항일의 총포성을 울려 20성상  
해방의 새봄을 안아왔거니

준엄하고도 간고하였어라  
내 조국을 요람기에 없애려고  
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를 쳐부신 나날은  
전후의 폐허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려  
수령님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였던가

이 땅에 내리는 세월의 눈비 다 맞으시며  
로고를 바치신 그 길에  
로동자 농민들이 나라의 주인된  
인민의 새세상 꽃피어나고

세기를 두고 갈망하던  
그 모든 념원과 숙원이  
자주의 삶으로 만발했나니

한평생 인민위해  
험난한 가시덤불길도  
눈비 내리는 초소길 들길과 구내길도 걸으시며  
행복도 기쁨도 다 안겨주시고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어버이수령님

장군님의 선군령도 총정으로 받들어  
혁명의 붉은기 높이 휘날리며  
강성국가건설로 힘차게 달려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주신  
수령님의 유훈 심장에 새기나니

만경대의 4월이 있어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축복받은 삶의 터전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나니

경사론 명절의 이 아침  
가슴속에 불타는 총정을 안고  
삼가 뜨거운 인사를 드리여라

아, 하늘끝까지 닿아있는 그 업적속에  
선군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오늘이 있고  
룡성번영할 부흥강국의 래일이 있어  
4월의 태양절은 영원하여라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여라

민족재생의 은인,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

— 공동구호에서 —

## 만경대고향집

정 두 국

층높은 아파트들  
솟아 하늘에 눈부시고  
행복의 기념비들  
솟아 숲을 이룬 이 땅에  
오늘도 초가집으로만 남아있는  
만경대고향집

나라없던 그 세월  
조선의 슬픔을 품어안았던 집  
모진 가난앞에서도  
일가분들의 그 마음  
애국으로 곱힘을 몰랐던 집

여기서  
그이 탄생하시였어라  
봄마저 빼앗긴 이 땅에  
재생의 봄을 주시려  
4월의 봄을 안고  
우리 수령님 탄생하시였어라

왜놈들의 발굽밑에서 고통받는  
겨레의 신음소리 들으시며  
초가이영 처마아래서  
조선의 아들로 성장하신 그이

키낮은 토방을 내려  
그이 첫 자욱 찍으신 곳은  
혈전의 천만리를 앞에 둔  
항일전장의 첫 기슭이었고

그이 바라보신

찌그러진 장독이며 연장들은  
그이의 가슴에 새겨진  
조국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우리 수령님  
혁명의 길 떠나시던 그날  
조부모님들 눈물속에 바래우시며  
차마 단지 못하시던  
뜨락의 작은 사립문이어

물어선 무엇하리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혁명이 얼마나 값비싼가를  
만경대고향집  
이 작은 초가집이 다 말해주는데야

행복이어라 영광이어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하늘가에  
행복의 처마를 굳건히 떠이고  
인민을 품어안은  
이 나라의 제일 큰 집  
조선의 태양을 떠올린 집이어

영원히 솟아 빛나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들어서는 사람들  
천만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퍼장을 꾸려주며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로 떠밀어주는  
혁명의 고향집이어!

# 수령님과 연필

류 명 호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을 할수 있으랴  
허나 나는 말하고싶다  
저 멀리 수십년전의  
그 연필 하나

갓 해방된 조선이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온 세상이 눈길 모으고 지켜보던 그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의정으로  
우리 수령님 연필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너무도 상상밖이어서

아, 연필!  
그것은 등불이었다  
이 땅에 무겁게 드리운  
무지와 몽매의 어둠을  
불태우는 광명의 등불이었다  
우리 조선을 력사의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 문명국으로 빛내이는 교육이었다

이렇게 연필문제로부터  
건국의 닳을 올리신 수령님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인재육성에 달려있다 하시며  
해방후 하나의 대학도 없던 이 땅에  
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우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학교들과 대학들을 일떠세우시였거니

생각도 깊다  
추억도 많다  
해방후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당의 교육중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체의 과학기술인재들을 가질수 없었으리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와

세인을 놀래우는 강력한 국방력도 가질수 없었  
우리

지난 세월  
남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을 때  
하늘소를 타고다니던 조선  
그러다 외세에 나라를 빼앗긴 그 조선이  
오늘은  
이 세상 령강들을 발밑에 굽어보는  
사회주의군사강국 백두산대국이 되었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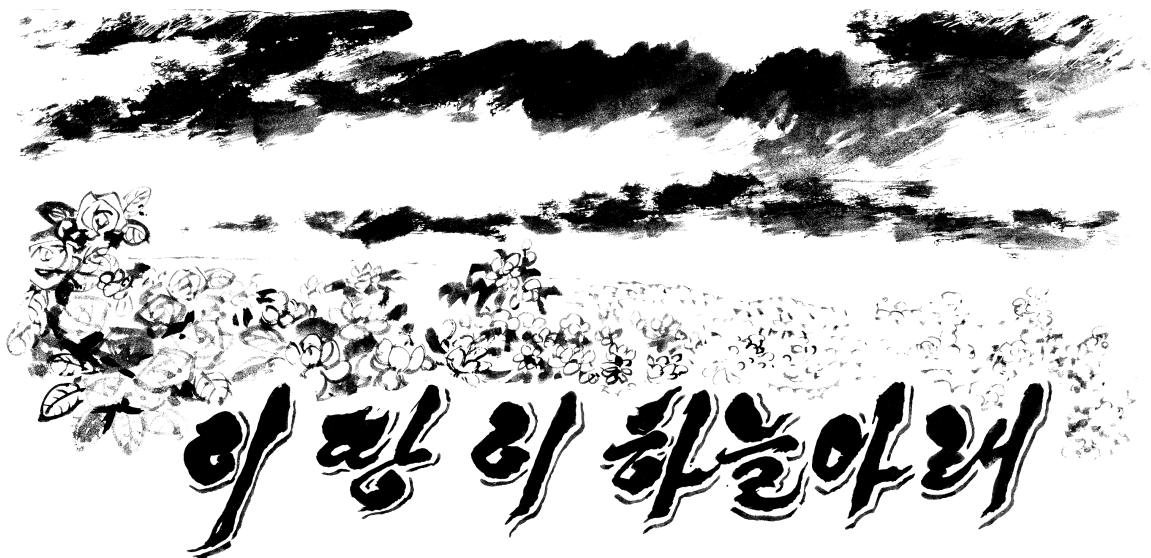
보아라  
건국의 첫 기슭에서  
우리 수령님  
나라의 의정으로 내세웠던 그 연필이다  
우주에 날아오르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들이!  
우리의 미싸일과 로켓트들이!

그렇다 그 연필이다  
그 무슨 시기상조를 떠드는  
종파들의 궤변을 쳐갈기시며  
우리 수령님 높이 드셨던 그날의 그 연필이다  
서해의 날바다를 막는 갑문이  
드넓은 간척지가  
CNC의 흥겨운 노래가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누구도 오늘을 내다볼수 없었던 그때  
오직 한분 우리 수령님만이  
위대한 선견지명으로 오늘을 내다보시고  
건국의 의정으로 연필을  
교육을 내세우셨거니

저 멀리 흘러간 수십년전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우리 수령님 높이 드셨던 그 연필  
그 력사의 연필은  
우리 조국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들어선 오늘도  
거목의 뿌리가 되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떠받들고있어라!





## 사영철

### 1

청아한 새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녘의 고요를 흔들며 지저귀는 산새소리는 전쟁이라는 준엄한 현실속에서도 순간이나마 류다른 정취를 불러오는듯 싶다.

최고사령부의 작전탁에서 새날을 맞으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벽산책길을 걸으시다 무춤 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시었다.

어디선가 하늘을 찌는 적들의 썩썩기소리가 아츠럽게 들려왔다.

평화로운 그 모든것을 찢어발기는듯 한 적비행기의 소리...

온 강도가 불에 타고있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지른 미체의 귀축같은 만행이 되새겨지시여 장군님께서서는 주먹을 불끈 틀어쥐시었다.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벌려놓은 적들의 이른바 하기공세의 마지막발광이다.

트루먼은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를 내세워 정전담판을 벌려놓게 하고는 시간을 얻어 저들이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고있었다. 그놈들은 아직도 제놈들의 군사기술적우세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는것 같다.

지금 적들은 품들여 준비한 《하기공세》가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자 어떻게 하나 땅바닥에 구겨박힌 체면을 세워보려고 전전선에서의 새로운 공세—《추기공세》를 준비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의 《추기공세》를 단호히 짓부셔버릴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지금 산책길을 걸으시는것이였다.

문득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파헤쳐진 폭탄구멍이가까이에 있는 한포기의 들꽃이 눈길을 끌었다.

폭격에 상처를 입고 시들여가는 꽃이였다.

무릇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한다. 하여 인간의 삶도 꽃에 비유하고있다, 생활의 꽃, 혁명의 꽃이라고...

저 꽃은 영영 자기의 아름다움을 잃고말았다. 다시 소생하여 어제날처럼 자기의 향기를 풍길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전쟁으로 하여 꽃들마저 스러져가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욱 쓰려나시었다. 어찌 이 산존뿐이라. 전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아픈 재난과 아픔을 가져다주고있는가.

불현듯 그이의 눈앞에는 조국수호의 가렬한 전투들에서 전사한 유명무명의 영웅들과 부상당한 전사들의 모습이 그려지시었다. 그리고 얼마전 적후에 들어가 적들의 포진지를 까고 치명상을 입은채 전선을 넘어왔다는 최현군단의 한 전사의 모습이 겹쳐들었다. 그들 한사람, 한사람이 다 조국수호의 성전에 돌도 없는 생명을 기꺼이 내댄 자랑스럽고 미더운 전사들이었다.

그이께서는 이 전쟁으로 하여 피를 흘린 전상자들의 아픔이 헤아려지시여 가슴이 묵직해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들꽃을 손에 드시고 더욱더 들여다보시다가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었다.

《최현군단장이 왔겠는데?!...》

벌써 나무그루터기를 뛰어넘으며 최현의 모습이 나타났다.

수면부족으로 눈이 부석부석해보였으나 차렷자세를 취하는 그의 폐기있는 거동에는 힘과 정열이 느껴졌다.

최현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가슴에 뭉쳐들며 털어버릴수 없었던 하나의 예감이 되살아나 눈길을 떨구었다.

며칠전 그는 중계선에 진입한 적포진지에 대한 습격전투를 조직했었다. 그런데 한 전사가 포습격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전우들의 등에 업혀 전선을 넘어왔다. 그는 생사기रो에 놓여있었다.

최현으로부터 습격전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그 전사를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꼭 살려내야 하오. 이젠 최고사령관의 부탁이라고 군의들에게 전해주시오.》

기적이 일어났다. 장군님의 사랑이 소생의 불사약이 되고 군단의 군의들과 전사들의 피와 살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낼수 있었다.

그런데...

전사에게 내린 현대의학의 결론은... 그에게는 지금 한다리가 없다. 그리고 허리와 여러 군데의 부상자리로 해서 일생을 보호자의 관심속에 절대안정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최현은 지금 장군님의 사색깊은 표정과 무겁게 느껴지는 걸음에서 자신이 또다시 그이의 심중에 괴로움을 얹혀드리게 되리라는 죄스러운 생각이 들며 숨이 껍 막히는것만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몇걸음 앞서 걸으시던 걸음을 늦추시며 최현이 가까이 오자 손에 드신 꽃이 아니라 저앞의 꽃밭을 가리키시였다.

《저 꽃들을 보오. 전쟁이라는 이 불속에서도 피여났구만. 우리 꼬마들이 여기저기서 옮겨심은 꽃들이요. 미제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곳에도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보며 즐겼을텐데... 이 전쟁에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을 잃었소. 김책, 강건, 최춘국...》

장군님께서는 비통한 심정이 되살아나 더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속을 함께 헤쳐온 귀중한 전우들이였다.

최현은 무슨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몰라 입술을 피터지게 깨물기만 했다. 함께 싸우다 먼저 간 전우들 생각을 하실 때면 너무도 통분해하시며 눈물도 많이 흘리시는 장군님이시였다.

멀리서 아군의 포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께서는 포소리에 잠시 귀기울이시다가 최현에게 물으시였다.

《그때 직후에 들어갔다가 부상당한 전사의 병상대는 어떻게?》

최현은 그가 의식을 차리고 두차례의 수술을 진행한데 대해서와 회복기일이 빨라 퍼그나 완치되었다는데 대해 말씀드렸다.

《불덩이같은 그런 전사는 쉽게 죽지 않아.》

장군님께서는 혼자소리로 뇌이시며 물으시였다.

《그 전사의 고향은 어디요? 가족들은?...》

《그 동문 서울서 입대한 동무입니다. 가족들은 다 학살되고 그 동무도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있다가 구원되었습니다. 꿈이 컸던 전사인데...》

최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대문형무소?!...》

장군님께서는 놀랍게 반문하시였다. 한 전사의 얼굴이 짙어졌던것이다.

《혹시 건축가가 되겠다던 동무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전연에 나오시면 나누신 그 전사입니다.》

《...》

장군님께서는 잠시 그 전사를 그려보시듯 전선이 위치한 하늘쪽에 눈길을 주신채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무거운 걸음을 떼시였다.

...그날 전선동부에 위치한 무명고지 전사들을 만나주신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전투담을 재미있게 들려주시였다.

나어린 꼬마전사가 적지휘부에 돌입하여 키가 구척인 양키놈을 전률케 한 이야기며 적들의 포탄창고를 불의에 습격하여 하늘로 날려보낸 통쾌한 습격전투, 적군수물자수송차들을 외통길에 몰아넣고 속후련히 불벼락을 퍼붓던 일...

전사들의 위훈담은 끝이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눈앞에 방불히 그려지는 전투장면들마다에서 전사들이 발휘하는 기지들을 긍정도 해주시고 나어린 전사의 대담무쌍한 행동을 무척 대견해하시며 치하도 해주시였다.

《장군님, 이 동무의 머리속엔 온통 엉뚱한 생각뿐입니다.》

분대장이 자기 전사를 더 자랑하고싶었던지 이렇게 말꼭지를 떼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흥미있게 그의 말을 받아주시였다.

《그래?! 어디 그 엉뚱한 생각을 들어볼까?...》

그런데 나어린 전사가 얼굴을 붉히고 자기 분대장의 웃기를 잡아당기며 바빠했다.

장군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분대장을 부추기시였다.

《우리 꼬마가 뭐라고 했기에?!》

나어린 전사는 빨갛게 두볼을 익히며 어쩔줄 몰라했다. 그 바람에 둘러섰던 전사들이 웃음집이 흔들거려 키득거렸다.

《허, 재미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바빠도 그 애길 듣고가야겠군.》

장군님께서 이야기의 꼭지가 풀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자 분대장이 벌췌 웃고나서 나어린 전사를 결눈질하며 한발 나섰다.

《이 친구 키는 작는데 속은 땅땅 여물었습니다.

꿈은 또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나면 서울로 나가서 괴뢰중양청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열병식을 할 광장을 멋들어지게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건축가가 다된듯이 말입니다.》

《그래, 정말 멋진 꿈인데... 좋아, 좋은 꿈이야! 대학에 가 공부를 해서 건축가가 될수 있구말구. 안 그런가?》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전사는 뒤더수기를 썩썩 곱었다. 그의 애티나는 얼굴에 으쓱해하는 표정이 어렸다.

장군님께서는 전사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교향은 어딘가고 물으시었다.

웬일인지 전사는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최현이 나서서 그 전사가 서울을 해방했을 때 나이를 속여가며 입대한것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인민군대에 의해 구원된데 대해서 말씀드렸다.

《고생을 많이 했구만. 그래 부모님들은?...》

전사는 머뭇거렸다. 어쩔수없이 최현이 또 나서서 그의 가정래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다.

전사의 부모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인민군대를 도와나섰다는것으로 하여 《빨갱이》가족이라고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고 그만인 인민군대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었던것이다.

최현은 그가 나이 한살이 모자라 집으로 돌려보냈었는데 기어코 부대를 따라온 사실도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빨강계 홍조가 피는 전사의 두볼을 사랑스레 어루만져주시며 못내 대견해하시었다.

《어쩐지 애티를 벗지 못했다 했지. 그래 하루밤 새 한살을 꿀꺽했으니 그러다간 몇년새에 할아버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장군님께서서는 즐겁게 웃으시었다.

전사는 숨털이 보르르한 코밑에 손을 가져가며 벌썩 웃었다.

그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녀애들처럼 수줍음을 타면서도 금시라도 어른이 다된듯 한 으시대는 기색도 없지 않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어찌보면 천진스러워보이는 그가 볼수록 대견스럽고 기특하게 생각되시었다.

《할일이 많아. 전쟁을 이기구 이 땅에 인민의 세상을 보란듯이 세워야지. 안 그런가? 꼬마 친구.》

전사는 발뒤꿈치를 소리나게 모아붙이며 포랑포랑 여무진 소리로 대답을 했다.

《장군님, 꼭 건축가가 되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짓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 꿈을 꼭 성취하라구.》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고지를 떠나시었다. ...

지금도 장군님께서서는 꼬마전사의 애티나는 얼굴이 선하게 어려와 뒤돌아보시며 최현에게 《그가 열일곱살이겠구만.》라고 하시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최현은 한 전사의 운명을 두고 그이의 걸음걸음에서 느껴지는 빠아픈 피로움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스러웠다.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 전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가족들을 원쑤놈들에게 잃은 험혈단신이 아니요. 꿈은 또 얼마나 컸겠소. 건축가가 되어 전쟁을 이긴 이 땅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짓겠다던 그의 얼굴이 눈에 선하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 군단장동무, 전사들을 아끼시오. 그리고 무한히 사랑하시오. 정말 귀중한 전사들이요!》

최현은 장군님께서 전투임무를 주시기에 앞서 신

신당부하시는 말씀을 그 어느때보다도 무겁게 받아안았다. 전사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 수천수만의 전사 한사람,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한품에 안아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아버이의 그 보살핌, 친부모인들 이렇게까지 마음쓰고 세심할수 있으랴.

장군님께서서는 최현에게 적들이 기도하는 새로운 《추기공세》에 대처하여 군단앞에 나서는 전투임무를 밝혀주시고나서 다시금 간곡히 이르시었다.

《군단장동무, 돌아가서 그 전사의 병문안을 해주시오, 신심을 잃지 말고 병파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이건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고... 이런 때 곁에서 돌봐줄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장군님, 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최현은 그길로 장군님곁을 떠났다.

## 2

《속도를 내라구. 이건 달구지 한가지군... 젠장.》

최고사령부를 떠나자부터 최현이 벌써 세번째로 운전사를 다אות는 말이었다.

최현은 한시라도 빨리 부대에 가닿아야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하여 초조감을 누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있었다.

도착하는 길로 그 전사가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군용차는 그의 조급한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꿈무니를 달꺾거리며 파헤쳐진 웅덩이를 에도느라 속도를 늦추군 했다.

새벽에 적기들의 폭탄세례를 받았는지 길이 말이 아니었다. 도로복구를 하느라 삼질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지나간다.

이렇게도 굼뜨다구야...

손목시계에 또 눈이 갔다. 조급한 그의 마음은 찰칵거리는 초침보다도 더 빠르게 요글거렸다.

그가 어찌구나 있는지, 병상태가 악화되지나 않았는지. ...

그를 습격조에 따라보내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때 최현은 습격전투의 중요성으로 해서 적후경험이 있는 군인들로 엄선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렇게 올려온 명단을 보니 전투경험이 있는 구대원들로 그곤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현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군단지휘부를 나섰다. 선발된 습격조원들이 정렬해있는 곳으로 가던 그는 숲속의 나무사이로 얼핏 한 전사를 보았다.

그 전사는 습격조를 보고있었는데 어딘가 낮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봤더라... 저런, 기색이 말이 아니군. 가만, 그렇지. 서울을 해방했을 때 통성한 꼬마친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그를 안아내왔었지.

최현은 반가움이 앞서 성큼성큼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못할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당황해서 어

쩔 바를 몰라했다.

《허, 꼬마친구, 오래간만이군.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는가? 발싸개 감는 법을 제대로 익혔나?》

전사는 얼굴을 빨갛게 태우며 벌썌거렸다. 입대하여 발싸개를 제대로 감지 못해 발이 부르터 최현이 발싸개를 잡아준 일이 있었던것이다.

《군단장동지, 저도 이제 구대원입니다. 그거야 신대원일 때...》

《아, 그렇지. 이제 당당한 구대원이지. 이거 쟁쟁한 병사를 아이취급할번 했는걸...》

최현은 웃었다. 그사이 그도 여러 전투들에 참가했었다. 부모들의 원썌를 갚는다고 전투가 시작되면 무섭게 전호박으로 뛰쳐나가는걸 제지시켰다는 말을 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잘 이끌어주면 훌륭한 병사가 되리라는 믿음이 가기도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인상이 그 모양이야? 허, 섭섭한걸...》

최현은 언뜻 얼굴을 드는 그의 눈빛이 그 어떤 기대감으로 생기가 도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바재이는가?!... 나한테 말 못할 일 인게지?

최현은 그가 마음을 다잡고 속을 터놓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전사는 차렷자세를 취했다. 당돌하달가, 대견하달가 할가...

속으로 미소를 머금었다.

《군단장동지, 전사 리혁철...》

이것 바라, 꽤 머물렀는걸... 구대원취급을 해달라는건가?!

《중소. 그런데 무슨 일이요?》

왜서인지 주춤거린다. 그러나 인차 자세를 바로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 혹시 내가 할수 없는 일은 아닌가?》

최현은 속마음과는 달리 능청스레 고개를 흔들었다. 전사는 울상이 되었다. 한두마디안팎에 눈물이라도 툴랑 툴골것만 같았다.

그는 어른들에게 매달리는 어린애마냥 최현의 팔소매를 붙잡고 졸라댔다.

《군단장동지, 저의 부탁은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가... 그런데 대체 무얼 해달라는건가?!》

《절 습격조에 넣어주시시오. 저도 이번 전투가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군단장동지!》

최현은 가슴이 뭉클해져 그를 껴안아주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얼마나 미더운 전사인가! 속에는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를 안고있는 그였다.

방금전 자기도 구대원이라고 했던 그의 말이 생각나 최현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는 전사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꼬마친구,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진행하는 이번 습격전투를 본때있게 해제

끼자구.》

습격조원들을 향해 걸어가는 최현의 온몸에 우썌 우썌 새힘이 용솟음치고있었다.

그날 꼬마전사도 습격조에 망라되어 적후로 들어갔다....

최현은 그에게 내린 의학적감정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장군님의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귀전에 되살아나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운전사가 와뜰 놀라 차속도를 늦추려는것을 황급히 손을 내흔들었다. 지금 최현의 생각은 그 꼬마전사에게만 가있었다.

하루빨리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되지. 그를 돌볼 보호자가 있어야 할것이다. 아마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일생을 그의 다리가 되어주고 간호원이 되고 어머니가 되어줄 그런 녀성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어느덧 군용차는 후방병원으로 꺾어드는 길어구를 가까이하고있었다.

여기서 반시간가량 달리면 산골짜기에 은폐된 후방병원에 도착하게 된다.

최현은 운전사에게 나지막하게 일렀다.

《곧장 후방병원으로!...》

### 3

전화종이 올랐다.

총참모장이 걸어오는 전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에 젖어있었다.

《장군님, 어제 스계선으로 달려들던 적기계화부대들이 우리 습격조가 매설한 지뢰에 걸려 녹아났습니다. 그리고 12사단에서 야간기습전으로 적지휘부와 통신소, 연유창을 날려보냈습니다.》

《잘했소. 적들이 머리를 들자마자 얻어맞았구만. 총참모장동무,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계속 답새기시오. 우린 차지한 계선에서 방어만 할것이 아니라 습격전투를 적극 벌려 적들을 혼비백산케 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전전선에서 습격전투를 적극 벌려 놈들의 후방을 취쳐어놓겠습니다.》

《그래 이번 전투들에서 부상당한 전사들은 없소?》

《어제 12사에서 진행한 습격전투에서 한 동무가 폭풍에 타박상을 입었을뿐입니다... 장군님, 그도 이제 의식을 차렸다고 합니다.》

《어떤 동무요? 혹시 남반부에서 의용군으로 들어온 동무는 아니요?》

《아닙니다. 황해도에서 입대한 동무인데 고향에 부모님들과 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 상처가 도치지 않게 치료를 잘해주시오.》

장군님께서는 다소 마음이 놓이시여 화제를 돌리셨다.

《직사포들을 고지우에 끌어올렸다는 보고를 받았소. 이게 바로 우리가 빨찌산시절에 창조한 우리



식이지.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직사포들을 고지에 올려놓으면야 곡사화력맞잡이로 은을 낼게요. ... 하, 이제 놈들은 난데없는 마른 하늘의 불벼락이라고 혼쫓이 날게요. 총참모장동무, 군단장동무에게도 말을 했지만 요즘 선기가 나는 것 같은데 전사들을 잘 돌봐주시오. 더운 밥과 더운 국을 먹을수 있게 늘 관심해주오. 전사들을 위해 지휘관이 있는것이지요! 난 믿겠소.》

《장군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총참모장의 대답은 흥분을 건잡지 못해하듯 진동판을 찌렁찌렁 울렸다.

《그 부상당한 전사 말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이 순간 최현군단의 꼬마전사의 얼굴이 떠오르시여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를 학교에 보내면 배워낼수 있을까?》

《영예군인학교 말입니까?! 저,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어지지 못했다. 채 하지 못한 말의 의미가 짙어지시였다.

《왜, 부상이 심하다는거겠소?》

장군님께서서는 나직이 되물으시였다.

《...》

그는 대답을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답답해나시였다.

《총참모장동무.》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이르시였다.

《그 전사를 잘 돌봐주어야겠소. 얼마나 귀중한 전사들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를 마치시자 더욱더욱 밤빛군용전화기에 눈길을 주신채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지금 미제는 궁지에 몰린 저들의 참패를 어떻게 하나 만회해보려고 또다시 정전담판을 제기해왔지만 그 음흉한 본심이야 어디 가겠는가.

오늘 아침 회담결과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시며 정전담판의 성과여부도 1211고지를 비롯한 전선지역들에서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는데 있다는 확신이 더 강렬해지시였었다. 방어전만이 아니라 야간전, 습격전으로 적들의 기도를 분쇄하여야 한다. 하여 많은 습격조들이 적후로 들어가 맹활동을 벌리고있다. 우리의 전사들은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전투마다에서 미제와 그 고용병들을 전몰케 하고있다.

그러나 전사들의 무비의 희생정신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때면 장군님께서서는 그들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물론 전쟁은 회생을 동반하는것이다. 하물며 세계《최강》이라 자처하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의 사상류례없는 대전임에야...

전상자들도 나온다.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하여 생겨난 수많은 전상자들이 있다. 자본주의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에 예측된 식민지나라들의 거리를 휩쓸고있는 전상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하다. 불구자로 된 까닭에 감수해야만 하는 멸시, 조소, 학대, 류랑질식...

이것은 전쟁이 가져온 필연적인 재난으로, 그 세계에서 요란스레 떠받드는 《하느님》도 어쩔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색이 여기에 이르자 흠칫 몸을 떠시였다.

방금전 사색속에 떠올리시였던 전상자들의 비참상이 되살아나 그이께서는 세판게 그것을 부정하시였다.

아니, 이 땅, 이 하늘아래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지.

우리의 전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둘도 없는 청춘도 생명도 바쳐싸운 혁명동지, 귀중한 전우들이것이다.

그들이 전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니, 그들은 한생을 금방석에 앉혀두고 온 나라가 보살피며 돌봐주어야 할 영예로운 군인들이다. 그래서 조국과 인민은 그들을 영예군인이라고 부르고있다. 그태 조국을 위하여 값높은 청춘을 빚내인 그들의 삶은 계속 영예롭게 이어져야 한다.

오늘에 그러했던것처럼 래일에도...

그이의 깊어만 가는 사색은 다시금 전사들에게로 가닿는다.

우리의 전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당과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내던 사람들, 꿈도 컸던 청춘들이다.

문득 적후에 들어가 포진지를 까고 부상당한 최현군단의 꼬마전사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시였다. 그와 같은 이 나라의 유명무명의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이 땅을 지켜내고있는것이다. 하기에 미제가 무릎꿇을 전승의 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이의 사색은 다시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린 영예군인들에게로 이어지고있었다. 무엇을 그들에게 해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밝고 명랑하고 보람있는 삶을 즐기겠는가.

당과 조국의 귀중함을 알고 둘도 없는 생명까지도 웃으며 내대던 오늘의 삶처럼 승리한 이 땅에서 궁지롭게 그 삶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가벼운 문기척에 장군님께서서는 사색에서 깨어나시며 차렷자세를 취하는 부관에게 시선을 보내시였다.

《교육상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였는가. ...》

깊은 사색의 심연속에 시간의 흐름을 잊고계신 그이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몸이 갈라하고 키가 큰 교육상이 문가에 나타나자 무척 반기시며 자리를 권하시였다.

잠시 그의 얼굴을 살펴보시였다. 얼굴이 꺼칠해진게 퍼그나 축갔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너무 무리하는게 아니요? 일이 바빠도 건강을 돌보시오.》

《장군님, 저희들은 일없습니다. 그저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것이 죄스럽습니다.》

그는 장군님의 사려깊으신 말씀에 몸둘바를 몰라

했다. 그러다가 황황히 서류가방에서 가지고온 문건을 꺼내들었다.

《장군님, 저희들이 구실을 바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에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성의 일꾼들이 다같은 심정입니다. 그래 나라도 어려운 전시환경이라는것도 잊고 럽치없이 안을 크게 잡느라고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순간 자신께서 그를 무척 기다리고계셨음을 새삼스레 느끼시었다.

그이께서는 문건의 글줄을 한자한자 따져가며 주의깊게 보아주시었다.

그이를 우러르며 교육상은 크나큰 걱정으로 눈굽이 젖어들어 눈을 습벅거렸다. 장군님을 뵈올 때마다 그는 전쟁이라는 준엄한 포화속에서 온 나라 인민의 운명을 한사람,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맡아안으시는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세계에 탄복해오군 한다.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철과 불이 튀는 땅에서 배움의 종소리가 변함없이 높이 울리리라는것을...

전시환경에서도 수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교과서보장대책도 세워주시고 심심산골의 몇명 안되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받을수 있게 학습반별운영방법도 가르쳐주신 장군님.

오늘에는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킨 대학들의 교재편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다 풀어주시려 이렇듯 세심한 사랑을 기울이시는 장군님이시었다.

그는 전시환경에서 너무도 큰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한발자국 나서며 자기가 우려했던바를 말씀드렸다.

《장군님, 우리가 전시환경에서의 재정형편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시키시었다.

《아니, 아무리 전쟁시기이고 자금사정이 긴장하다고 해도 교육사업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습니다. 그건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일이요. 제기한 문제를 다 풀어주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사색깊은 걸음으로 책상주위를 거니시었다.

뚜벅뚜벅... 걸음걸음에서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이의 발자국소리...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시었다.

《그래 교육상동무의 아들은 어쩔소?》

어느 한 고지탈환전투에서 부상당한 그의 아들을 두고 물으시는 말씀이였다.

《장군님, 그 앤 다 나았습니다.》

《군의국에서 올려온 보고에서 퇴원시켰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지내오?》

《하는 일 없이 나라의 혜택만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불만인지...》

《...》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러시며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내가 묻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

을 아끼겠습니까! 그들모두를 금방석에 앉혀놓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책상우의 한곳을 이윽도록 내려다보시었다.

그이의 심중에는 지금 아들을 두고 채 하지 못한 교육상의 말이 가슴저리게 훑어내리고있었다.

왜 교육상이 그런 말을 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시었다. 젊은 나이에 조룡안의 새처럼 감히워있어야 하니 부상으로 오는 아픔보다도 심리적으로움이 더 클것이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그래도 그들에게 병치료를 해주고 먹고 입고 살 보조금이나 준다고 마음을 놓을수 있겠는가. 아니, 인간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아들에 대해 물으신것이 이 전쟁으로 하여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에 대하여 마음쓰실 때마다 무겁게 갈마들군 하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바라시였음을 다시금 절감하시었다. 그래서 인지 영예군인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조차 자신에게 가슴이 확 열리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것이 야속스럽기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가벼운 숨을 몰아내쉬며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교육상동무, 솔직히 말해보시오. 영예군인이 된 아들이 먹고 입고 살 걱정이 없다고 마음 편해질것 같습니까?》

교육상은 얼굴에 그들을 지으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실은 그 애때문에 속을 태웁니다. 부상당한 피로움이 크다고 리해는 가면서도... 나라에서 가만히 앉혀놓고 병치료를 해주고 걱정이 있을세라 돌봐주니 그럴수록 더 엇드레질을 하는것만 같아 고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히, 교육상동무가 아들단련에 되게 혼이 난 모양입니다?! 그러다 아들의 원망을 사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웬일인지 근간에 와서 그런 느낌이 들군 합니다, 장군님!》

그는 어쭙게 웃었다. 솔직하고 대바른 성미가 드러나보이는 웃음이어서 장군님께서서는 크게 웃으시었다.

《그렇게까지 심각해졌습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무슨 마련을 봐야지 안되겠소.》

그이께서는 룡조의 말씀끝에 절절히 덧붙이시었다.

《우리 영예군인들의 마음속 고통을 풀어줍시다. 이 전쟁으로 하여 부상당한 그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소. 그들 한사람, 한사람들은 다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우리 당의 귀중한 혁명전우들이요!》

영예군인들을 두고 하시던 사색의 실머리가 이어지시자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누구보다도 당과 조국, 혁명에 충직한 영예군인들, 그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며

강의한가. 그들은 결코 불구가 된 자기 몸이나 상처의 아픔으로 괴로와하는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겠는가, 무엇을...

그 정신, 그 의지로 삶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보람있고 떳떳하게.

우리의 영예군인들은 오늘날 조국을 지키는 이 전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자기의 삶을 빛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래일도 역시 그 삶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하는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물으시었다.

《아들이 전쟁전에 무엇을 했소?》

《철도공장에서 로동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기사가 되어 전기기관차를 만들겠다던 녀석이었는데...》

《그것 참 대단하오! 우리의 전기기관차를 만들겠다?! 그렇소, 전쟁이 끝나면 우리 손으로 모든것을 만들어야 하오. 교육상동문 똑똑한 아들을 두었소.》

《그러나 이제는...》

그는 얼결에 한숨과 함께 나간 말을 후회했다. 전상자들의 일로 가슴아파하시며 괴로와하시는 그이께서 또 걱정을 하시게 해드렸다는 송구스러움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꿈을 이룰수 없다는거지요?》

장군님께서는 서운한 생각이 드시었다. 아들이 육체적불구가 되었다고 그렇듯 소중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너무도 쉽게 속단하는 그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었다.

그들이 지녔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그 정신, 그 의지로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장군님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조국과 인민은 그들, 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자기의 아들딸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영예군인으로 내세울것이라고...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다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들의 높은 정신력과 강의한 의지면 무엇이든 다 해낼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

그는 숨엄한 감정에 휩싸여 속으로 몇번이고 곱씹고있었다.

(내 아들도 희망을 이룰수 있단 말이지... 그 꿈과 희망을.)

#### 4

최현은 뜻밖에 나타난 녀인으로 하여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그 녀인은 꼬마전사를 자기 집에 데려다 어머니가 되어 친자식처럼 돌보겠다는것이였다. 이런 고마운 녀인이 나타날줄이야.

그는 녀인이 어떻게 알고 이곳에 오게 되였는지 물을 경황이 없이 그저 고맙다는 말만 곱씹고

있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저야 그저...》

녀인은 수집어하며 몸돌바를 몰라했다. 해변에 탄 얼굴에서 웃음이 어리는 그의 눈이 인상적이다. 녀인의 소박하고 진실한 성품이 드러나보이는 눈이였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눈에 비친다고 하지 않는가.

첫눈에 정이 가고 믿음이 가는 녀인이어서 최현은 눈물이 나도록 녀인이 고맙기만 했다.

그는 녀인의 작은 손을 잡아흔들며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 마침내는 눈물이 글썽해져 웃었다.

《아주머니, 어떻게 그 동물 알고 오셨습니까?》

《저의 아들도 이 부대에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니까?...》

최현은 둘러선 전사들을 휘둘러보았다.

《저, 이전 그 애가 보낸...》

녀인은 저고리안에서 네모지게 접은 종이를 꺼냈다.

최현은 그것을 받아 펼쳤다.

《...어머니, 그 동문 나와 함께 습격조에 망라되어 적후에 들어갔다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서울에 고향을 둔 전사인데 부모님들이 학살되었고 이곳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없습니다. 그의 부상을 두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걱정하신다는 말을 군단장동지로부터 전해들었을 때 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안에 어머니가 고생이 크실줄 알면서도 그를 어머니가 돌보아주시면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저도 전쟁이 끝나면 그를 친동생으로, 혁명전우로 여기고 돌보려고 합니다. 아들 정국 올림.》

(음, 정국이?!... 습격조장이지...)

최현은 흥분해서 큰소리로 웨쳤다.

《정국이, 어디 있어?》

전사들속에서 몸이 다부진 정국이 한발 나섰다. 최현은 거수경례를 붙이는 그의 손을 잡아내리며 걱정애 젖어드는 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용쿠만, 용해!》

정국의 어깨를 잡고 한동안 대견스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군단장동지, 장군님께서 그 동무때문에 걱정하시지 않도록 말씀드려주시시오.》

최현은 그의 말이 가슴을 쿵 찢려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이였다.

그래,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마음을 놓으실게야.

...최고사령부를 향해 질주하는 군용차안에서 눈앞으로 떠오른 회상에 최현은 빙글썽 웃음을 지었다. 얼핏얼핏 결눈질로 살피던 운전사도 그의 기분에 끌려들어 여느때없이 빙글거렸다.

《군단장동지, 제 노래를 한곡 부르랍니까?》

《노래? 좋구만, 어서...》

운전사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리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세우고 치치...  
 여기가 어대인가 물었더니  
 《예, 여기는 전선원호사업에서  
 소문난 순천이웨다.》  
 《예, 고맙습니다.》  
 량식을 장만하고 모조리 잡아내자 열빠진 양캐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구슬땀 흘리면서 정성껏 지은 쌀을 전선으로  
 ...

최현은 노래에 심취되어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자동차운전사의 노래》다. 이 노래가 나오자 자기도 남들처럼 포탄차를 끌겠다면 때질을 했던 운전사였다.

휘파람이 그쳤다.

항공감시구역이었던것이다. 운전사는 하늘을 살피며 긴장해서 차를 몰았다.

어느덧 차는 개활지대를 벗어나고있었다. 이제부터는 산자락을 끼고 달리는 길이다.

《아직도 포탄차를 끌지 못해 몸살하지 않는가?》

최현이 넋지시 물었다.

운전사는 벌쭉 웃었다.

《군단장동지, 제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운수중에 가야 그 무슨 위훈을 세울것처럼 들떠있었던요. 그런데...》

이녀석이 철이 들었는걸, 보통때질군이 아니던데...

최현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다.

《장군님께서 우리 고지에 오셨을 때 저에게 군단장동지의 신변을 걱정하시면서 항공에 주의해서 차를 몰라고 당부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며 자신께서는 전쟁으로 하여 빨찌산시절의 귀중한 전우들을 잃었는데 이제 최현동지의 신상에 자그마한 일이 생긴다면 더 건달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었습니다.》

《진작 그 말을 할게지...》

최현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어 눈을 습벅거리기만 했다.

전우들에 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그이를 받드는 자신의 충정이 그에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와 속으로 감격의 눈물만 흘려온 그였다. 언제봐야 자기는 장군님께 걱정만을 끼쳐드린다는 죄스러움을 털어버릴수 없는 자신이 민망스럽기만 했다.

이번 꼬마전사의 일도 자기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장군님께서 고향이 남반부인 그를 두고 걱정하지시 않았을것이라는 후회를 하며 최현은 운전사를 재촉했다.

《빨리 최고사령부로...》

최현은 장군님께서 평양시를 함께 돌아보자고 하시는 말씀에 의아해지고말았다. 혹시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장군님께서 최현의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나서 여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우리 꼬마에게 어머니가 생겼다니 한결 마음이 놓이오. 자, 우리 평양거리를 돌아봅시다.》 하시었던것이다.

그는 이미 와서 대기하고있던 교육상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물었다.

《동문 알고있겠지? 장군님께서 부르신 까닭을 말이에요?...》

그러나 그도 머리를 흔들었다.

《뭔가 짚이는데가 없소?》

술때는 그의 장미가 일어섰다. 그를 향해 눈을 부라리었다.

《한심하구만!》

자신에게 하는 소리이기도 했다. 언제봐야 장군님의 일깨움을 받고서야 자신을 따라세우는 자기같은 전사들때문에 그이께서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헤쳐가신다는 생각을 하며 억이 막힌 긴숨을 불어내었다.

《군단장이 오늘 웬일인가?!...》

그가 얼떠름해있는것을 띄여보시고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최현은 싱긋 웃고나서 종종걸음으로 그이를 따라섰다.

《장군님, 잘 이해되지 않아 그러합니다. 평양거리야...》

《왜, 평양의 거리를 보자는데... 물론 재더미밖에 남은것이 없지. 그렇지만 인민이 있지 않소, 전쟁을 이기고있는 사람들이...》

《...》

최현은 여전히 어정쩡해 군용차에 올랐다.

...군용차는 파헤쳐진 웅덩이를 에도느라 차체를 들썩이며 달리고있었다. 그럴 때면 최현이 운전사에게 눈총을 쏘았다. 하면서도 장군님께서 이 길에 나서신것이 꼭 자기의 불찰로 여겨져 소리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장군님께서 줄곧 시창에 눈길을 주신채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최현을 돌아보시며 물으시었다.

《그 꼬마전사가 살고있는 집이 평양종로구 근방이란 말이지... 그 동무가 요즈음 어떻게 산다오?》

최현은 잠시 망설이었다.

《...》

장군님께서 그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었다.

최현은 긴장해지는 마음을 누잡히느라 크게 심호흡을 하고나서야 자신없는 대답을 올렸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아본데 의하면 요새 별로 우울해져 식사도 번지군 한답니다. 부상자리때문인가 하니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허, 이것도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대답이군...》

그이께서는 잠시 최현의 얼굴을 돌아보시었다. 최현은 최고사령관이 걱정한다고 후방병원으로 오르내리며 그 전사를 돌봐주느라 속도 썩이고 남모르는 수고가 컸었다. 그 전사를 말아안꼈다고 녀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너무 기뻐 체통이 커다란 사람이 몸매 작은 녀인앞에서 눈물이 글썽해했다고 한다. 그런 최현이도 그 전사의 마음속 아픔, 이제는 불구가 된것때문에 무지개꿈으로 피워 그려보곤 했던 희망마저 포기해버려야 하는 그의 심리적고충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것 같다. 아니, 그것만은 이루어줄수 없는 불가능한것으로 여기는것은 아닌지... 왜? 불구가 되었다는 그 때문일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격해지는 마음을 누르시며 말씀하시었다.

《이 전쟁으로 하여 우리의 귀중한 전사들이 피를 흘렸지. 그들도 그 꼬마전사와 다를바 없을게요. 부상자리의 아픔보다 자기의 육체적불구로 하여 느끼게 되는 정신적아픔이 더 클게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최현은 불몽치같은 뜨거운것이 가슴을 지저대는 것만 같았다. 영예군인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가 한없이 크고 심원한 깊이를 가지고 가슴에 새겨지며 심장의 박동이 쿵쿵 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길이 그 사랑의 세계와 잇닿아 있다는 가슴벅찬 생각에 눈곱이 젖어들었다.

장군님을 모신 차는 어느덧 평양시가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나지막한 등성이에서 차를 세우게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옛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더미로 안겨드는 가슴아픈 평양의 광경을 오래도록 눈여겨보시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폐허로 된 평양만을 보신것이 아니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승리한 이 땅, 이 하늘아래 인민이 주인된 세상, 웃음소리 강산에 넘치고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한 나라가 펼쳐지고있었다.

대동강반을 끼고 넓은 길이 뻗어가고 가로세로 다층살림집들과 특색있는 봉사망들, 모란봉, 대성산, 창광산 등 이름난 명소들에 꾸러질 공원과 유원지들...

그것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는 벌써 승리한 패일을 내다보시고 설계부문의 일군들에게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승리한 이 땅, 승리한 위대한 인민...

장군님께서는 이 말을 조용히 뇌여보시었다.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벅차고 뿌듯한 소용돌이가 세차게 일고있었다.

《그 영예군인이 살고있는 집으로 갑시다.》

장군님께서는 차에 오르시며 최현을 재촉하시었다.

《?!》

최현은 어지간히 놀라 눈을 슴벅거렸다.

장군님께서 그 혁철이때문에 것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곳에 오셨단 말인가, 무엇때문에?!...

《군단장동무, 왜 그러구 셧소?》

장군님께서 또 재촉을 하시었다.

최현은 의아한 기색을 풀지 못한채 서둘러 차에 올랐다.

무엇인가 그이의 심중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예감이 새롭게 뇌리를 친다.

그것이 무엇일가?!... 가닥이 잡히지 않아 기억의 갈피를 헤쳐보아도 여전히 아리송하다.

최현의 눈앞에 그의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나타난 녀인과 함께 집으로 가는 그 꼬마전사 혁철이를 바라우던 일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군단장동지, 정말 고지를 내리지 못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고지를... 차라리 피값이라도 하는편이...》

그는 이 말을 불을 토하듯 했다.

최현은 무섭게 성을 냈었다.

《무슨 소릴 하는가? 동문 가야 해! 건강을 회복해야지? 장군님께서 동무때문에 걱정하신다는걸 잊었소?》

그는 최현의 손을 그러잡고 울먹거렸다.

《장군님께서 전선에 오시면... 뵙고싶었는데... 흐읍.》

《...》

그 심정이 헤아려져 위로할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얼마나 장군님을 그리워했던가. 장군님께서 건축가가 되라고 자기의 앞날을 축복해주셨다며 꿈속에 살고 꿈속에 웃으며 전쟁이 승리한 패일을 그려보던 전사였다.

최현은 그의 손을 덧감싸쥐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때, 장군님을 뵙자! 뵈을수 있구말구...》

《그렇지요? 군단장동지!》

그의 두눈에 핑그르르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는 곧 설레설레 도리질을 했다.

《전 안됩니다, 안돼요. 어떻게 이 몸으로 장군님앞에...》

불구의 몸이 된 자기를 깨달은것이다.

《이 몸으로야 무슨 일을 치겠습니까? 장군님앞에서 한 약속을 꼭 지키자고 했었는데... 이젠...》

최현은 그에게 다른 말을 해줄수 없는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지금 그에게 바라는것이 있다면 그가 병치료를 잘하고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는것뿐이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를 친자식처럼 돌봐줄 어머니가 나타난것이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국가에서는 그가 병치료를 하면서도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혜택을 줄것이다. 그는 그 혜택을 받을만 한 자격이 있다.

최현은 혁철이를 떠나보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꼬마, 행복하랴구. 난 믿어, 동무가 행복해질 거랴구....)

길로 들어섰다. 폭탄구멍이를 에돌아 얼마쯤 달리는 데 최현이 갑자기 저 앞쪽을 가리켰다.

《장군님, 바로 저 아주머니입니다. 저 아주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군님께서 최현이 가리키는 앞쪽을 보시니 검정 치마에 흰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그리 크지 않은 보짐을 들고 마주오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반색을 하시며 최현을 돌아보시었다.

《저 아주머니가 그 꼬마전사의 어머니가 되어주었다는 여인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제 그럼…》

최현이 덤벼치는데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팔소매를 붙잡아 제지시키시었다.

《가만있소, 덤비지 마오.… 아주머니가 놀라겠소.》

그러는 사이 벌써 그 여인과의 거리가 가까와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며 여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시었다.

《어딜 갔다오십니까, 아주머니?》

여인은 푹 굳어졌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보짐이 길바닥에 떨어졌다.

한순간 그는 자기가 꿈을 꾸지 않는가 생각했다. 너무도 귀에 익은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 마음이 확 끌려드는 환하신 그 미소…

여인은 자기앞에 서계시는분이 다름아닌 오매에도 뵈고싶던 **김일성** 장군님이심을 알아보았던것이다.

《장군님!》

여인은 허리를 깊숙이 꺾으며 큰절을 올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급히 여인의 어깨를 잡아 일귀세우시었다.

《인사는 우리가 하려던 참입니다. 아주머니가 우리 영예군인의 어머니가 되어주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장군님뒤에 서있는 최현을 보고서야 짐작이 가는듯 얼굴을 붉히며 황송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장군님, 저는 응당 해야 할 일을…》

장군님께서서는 여인의 작은 두손을 꼭 감싸쥐시며 말씀올 이으시었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날이 멀지 않았습나다.》

그이께서는 문득 여인의 발치에 놓여있는 보짐을 보시며 물으시었다.

《무우시태기가 아닙니까?!… 혹시 집에 식량이 떨어진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군님! 이건 약재로 써볼가 해서…》

《그러니 우리 꼬마친구의 허리치료에 쓰려는것이군요. 그래 요즘 우리 혁철의 기분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머니의 속을 태운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뭘 별로… 이따금…》

여인은 장군님앞이라 입밖으로 나가는 말을 가깝스로 억제하고있는듯싶었다.

《그러니 그 말이 사실이군. 안되겠소. 그 친구를 되게 다들려놓고 가야겠소.》

그이께서는 최현을 향해 눈을 깜벅이고나서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바빠난것은 여인이었다. 이미 자기 입밖으로 나간 말을 주어담지 못하는것이 후회되듯 저고리고름을 잘근잘근 깨물고있었다.

여인의 소박하고 꾸밈새없는 행동에 마음이 끌리시여 장군님께서서는 즐겁게 말을 건네시었다.

《그와 지내보니 어떻습니까? 괜히 우뚝령거리지나 않는지 모르겠거던.》

《장군님, 일없습니다. 하두 속이 타니 그래보는 건데… 남자들이야…》

《그러니 뱄을 쓰군 한다는게 사실이구만. 아니, 안되겠소.… 여기에 군단장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장군님께서서는 넋지시 최현의 마음에 든장질을 하시었다.

최현은 장군님의 즐거운 기분에 끌려들어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당장 그의 집으로 달려갈 자세로 울러댔다.

《덜돼먹은 그녀석을 그저…》

체통 큰 사람의 우습강스러운 연기에 여인도 그만 참지 못하고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소리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정이 가는 여인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제는 여인의 긴장이 풀어졌다고 느껴지시여 정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아주머니에게 그 동물 말기니 한결 시름이 덜리는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되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짓겠다던 동무인데… 사실말이지 영예군인을 돌본다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습니까?》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말아주십시오. 제 친차식처럼 여기고 돌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었다.

《아주머니, 우리 그의 부모가 된 심정에서 이야기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속 고충을 덜어주겠는지.…》

여인은 젖어드는 눈곱에 웃고름을 찍으며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이야기를 시종일관 웃음속에 들어주시었다. 궁정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깊은 사색의 심연속에 하눌 저 멀리를 더듬기도 하시며…

최현은 그 여인이 야속했다. 불원천리 그를 위해 먼길을 오신 장군님께 또 걱정거리를 안겨드린다는 조바심에 땀이 빠질빠질 샘솟듯 했다.

마침내 최현은 참다못해 한발 나서며 《아주머니, 그가 지금 집에 있는가요?》 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최현의 엉큼한 속을 꿰뚫어 보시고 소리내여 웃으시었다.

《아주머니, 이 군단장이 꽤 불안해하는군요.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까?》

여인은 또 손등으로 입을 가리웠다.

최현은 그만 웃고말았다. 장군님께서는 먼저 발걸음을 떼시었다.

《자, 이제는 집구경을 좀 합시다.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봐도 우리 꼬마친구가 요새 마음고생이 큰것 같구만. 만나서 정확한 병진단을 해야 할것 같소.》

녀인은 송구해하며 장군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해드렸다.

…그는 울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자기 집을 찾아주신것이 꿈만 같아 울었고 그렇게도 뵈고싶던 그이를 전선의 고지에서가 아닌, 그것도 부상당한 몸이 되어 이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자기의 처지에서 뵈게 되는것이 한스러워 오열에 몸을 떨었다.

《장군님,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장군님품에 얼굴을 묻었다.

《보고싶었어, 우리 건축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 부상자리는 어때? 아직 뜨끔거리지?》

《이젠 다 나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올리고 부상당한 다리의 상처부위를 눌러도 보시고 허리며 여러곳의 상처자리도 세심히 살펴보시었다.

녀인이 정성스럽게 간병을 하여 부상자리들은 거의 아물었는데 손으로 누를 때 아픔이 느껴지는지 영예군인전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면서도 웃으려 했다.

그러는 그의 아픔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심정이어서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아릿해지시었다.

《더 치료를 받아야겠소. 상처가 도지지 않게…》

《장군님, 전 일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없이 국가의 혜택만을 받는것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밥두 잘 안 먹구 투정질한다면서?… 타락했어. 적후에 들어가 적들의 포진지를 날려보낸 용감한 전사가 병앞에선 나약하거든, 웅?》

그이께서는 녀인을 향해 의미있는 웃음을 지어 보이시었다.

《장군님…》

영예군인전사는 눈물이 글썽해서 장군님을 우러렸다.

《전선에선 전쟁을 이기려고 피를 흘리고있는데 전… 이렇게… 그것이 피로워서…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것만 같아서…》

《그래서 전선에 나가 피값이라도 하고 죽자고 했다면서? 대단한 영웅성인걸… 그것이 최고사령관을 위한다는거지. 아니, 틀렸어. 이 전쟁을 이기구 미국놈들 보란듯이 활개치며 잘살 생각을 해야지, 어때? 조선사람들의 본패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이께서는 뒤돌아보시며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물으시었다.

《동무들 생각은 어땡소? 우리가 영예군인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할것 같소?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사는 사회적우대를 해주는것으로 그들

의 친부모구실을 다 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영예군인들속에는 남반부에서 의용군으로 들어온 동무들도 있소. 그들은 이곳에 가까운 친척들이 없소. 그들은 누가 돌봐주겠는가?》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바재이기만 했다.

최현도 그이의 뜻에 자신을 따라세우지 못하는 죄책감이 들어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는 부상당하여 영예군인이 된 전사를 위해 할수 있는것 다 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에게 친자식처럼 돌봐줄수 있는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그 이상 바랄것이 없으리라 마음을 놓았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영예군인이 된 전사를 위해 여직껏 마음을 쓰고계신것이 아닌가. 아니, 그만이 아닌 모든 영예군인들을 품안고 그들의 마음속 고충을 헤아리시는것이다.

최현은 뚫어오르는 걱정으로 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가면 장군님의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 알수 있겠는지…

흐느낌소리가 났다. 영예군인전사도 울고 녀인도 자기를 다잡지 못하여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장군님께서는 최현을 돌아보시며 말쑤를 이으시었다.

《영예군인들은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우리 당이 아끼고 돌봐주어야 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당은 영예군인들이 병치료를 하면서도 근심걱정없이 생활할수 있게 많은 사회적혜택이 차배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영예군인이 된 혁철이를 이윽도록 내려다보시었다.

그이의 눈앞에는 문득 언젠가 보셨던 상처입고 시들어가던 들꽃이 그려지시었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시듯 가볍게 고개를 흔드시었다.

《지금 영예군인들은 상처의 아픔보다 마음속 상처의 아픔을 털어버릴수 없어 피로워하고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이께서는 잠시 말쑤를 끊었다가 절절하신 어조로 계속하시었다.

《동무들도 이 영예군인동무의 말을 통해 그것을 느꼈을것입니다. 이 동무는 꿈이 많았습니다. 건축가가 되어 세상에서 제일 멋들어진 집을 짓겠다는 희망을 안고 미국놈들과의 전쟁에서 용감했던 동무입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고 영예군인이 되고보니 이제는 자기가 품었던 그 희망을 이룰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피로워하고있습니다. 부상으로 하여 생긴 상처는 세월이 가면 아물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민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할수 없다면 그로부터 오는 정신적고통은 상처의 아픔보다도 더 클것입니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이 느끼게 되는 이 정신적아픔까지도 깨끗이 가셔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예군인전사는 헉- 흐느낌소리를 터쳤다. 아직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식 평론은 작가와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립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평론가는 작가가 작품을 잘 썼으면 좋고 잘못 썼으면 때린다는 식으로 램답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작가와의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주견없이 평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평론은 당의 의도에 맞게 예방이 위주로 되어야 한다. 평론에서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은 곧 평론의 선도성을 높이는것으로 된다.》

《평론에서 주관주의는 금물이다. 평론에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작품을 기존공식과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론단하고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순수 사회학적견지에서 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었던 자기의 마음속 고통을 아버지의 다심한 사랑과 정으로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끝없이, 끝없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등을 따뜻이 어루만져주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린 이 동무를 대학에 보내여 공부를 시키자고 합니다. 이 동무뿐아니라 모든 영예군인들의 희망을 쫓겨워주자고 합니다. 이미 영예군인학교를 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학에도 특설반을 내올수 있을것입니다. 영예군인보양소도 내와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영예군인들이 보양을 하면서 밥맛이 날 정도로 일할수 있게 가내작업반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영예군인들을 위한 공장을 따로 조직해주어 그들이 일도 하면서 사회와 인민을 위한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오늘날 당과 조국을 위하여 혁명의 꽃을 피운것처럼 래일에도 꽃을 계속 피워나가게 해야 합니다.》

최현은 최고사령부에서 장군님을 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그이의 손에 들려있던 상처입은 들꽃이...

그날의 사색깊으신 표정, 전신의 힘이 발밑으로 가닿듯 무겁게 느껴지던 걸음걸음...

장군님께서는 상처입은 그 들꽃 한송이의 모습에서 이 전쟁으로 하여 상처를 입은 이 나라의 모든 전상자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셨으리라.

그들이 오늘날 총을 쥐고 조국수호의 성전에서 삶을 빛내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영예로운 그 삶을 이어가도록 마음쓰시고계신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최현은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복받치는 걱정속에 절감하며 곁에선 교육상을 보았다.

그도 눈물이 글썽해서 최현을 마주 보았다. 그는 이 순간 영예군인의 아버지로서의 남다른 감격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하는듯 했다.

최현의 눈과 마주치자 여기로 떠나올 때 영문

을 알수 없어했던 그의 물음이 떠올라 교육상은 장군님앞이라는것도 잊고 손을 덥석 잡아 흔들며 걱정을 터놓았다.

《최현동지, 들으셨소?!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입니다. 내 아들녀석이... 아니, 우리 영예군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그는 오열이 쿵 치밀어 말을 잊지 못한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그리고나서 보는 사람이 후련하도록 웃었다.

최현은 그의 손에 짙 힘을 주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한두마디의 말로 이야기할수 있단 말인가. 가슴속에서는 지금 분출구를 찾아 쇠물과도 같은 걱정의 용암이 타끓어번지고있었다.

이 지구상에 전쟁으로 하여 얼마나 많은 전상자들이 생겨났던가. 그들의 운명은 그 얼마나 비참했던가. 자기의 육체적불구를 통탄하며 정신적으로도 타락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은 또 얼마...

아, 그러나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만은 그 누가 전상자들을 불구자라 하랴.

그들은 조국과 인민의 더없는 사랑과 보살핌속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삶을 래일로 빛나게 이어가는 영예군인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리니.

태양이 있어 꽃들이 피듯이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이 땅, 이 하늘아래서는 단 한사람의 불구자도 없으리라....

최현은 고개를 한껏 젖혀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고 창창하다.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가 저 하늘과 땅처럼 크고 넓고 그 깊이가 무한대한 뜨겁고도 강렬한것이라는 환희로운 느낌으로 하여 가슴이 확확 달아오른다.

그는 형언하기 어려운 걱정에도 넘쳐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긴 전쟁이야. 암, 이겼구말구... 사랑으로 이기는 이 전쟁이야말로 누가 당해낼라구. 어렵없는 일이지....

그의 눈앞에는 벌써 전승의 축포가 보여왔다.

전승의 날은 밝아오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주체의 태양이시며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다.

— 공동구호에서 —

담 시

## 도마도에 갇든 사랑의 권설

문 동 식

어느해  
화창한 봄날  
온실에서 새 품종의 도마도를 주령지운  
생물학분야의 우리 연구사들

도마도 정성껏 따서  
상자에 정히 담아 올리였다네  
나라일에 분망하신 우리 수령님  
휴식참에 드시며 피로를 푸시라고

그런데 그때  
아버이수령님  
먼 나라 방문중에 계시었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귀중한 그 도마도  
비행기로 수령님께 보내드리셨네

먼 나라 땅에 가계시어도  
조국의 향취를 느끼시며  
순간이나마 기쁘게 지내시라고

×

대양과 대륙넘어  
조국에서 날아온 신선한 도마도  
받아드신 아버지수령님

몸소 도마도를 맛보시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네  
—정말 맛이 류다롭니다  
어쩐지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고는 아버지수령님  
수행일군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네

—조국의 온실에서  
이런 도마도가 얼마나 있는지  
만약 적지 않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모두 따서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내주어야겠소

×

멀고먼 나라에서  
조국으로 날아온 전보를 받으시고  
말없이 눈굽을 훔치시던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그이께선 그날  
빙 둘러선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정다우신 음성으로 말씀하셨네  
—아버이수령님의 분부대로  
온실에 남아있는 도마도를 모두 따서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어서 안겨줍시다  
그리고 그 소식을  
수령님께 전보로 알려드립니다

×

그날  
조국에서 날아온 전보  
반갑게 받으신 아버지수령님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며  
흐뭇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네

—동무들  
오늘에야  
내 건강과 휴식에 아주 좋은  
진짜 도마도가 나를 찾아왔구만!

## 영원한 봄빛

리 준 호

어느날 저녁이었다.

저녁식사후에 온 가족이 텔레비존앞에 모여앉아 있는데 전국의 학생소년들에게 차례지게 될 교복견본을 소개하는 화면이 펼쳐졌다.

대학생인 팔애와 초급중학교 2학년생인 아들에게 동시에 환성을 올렸다.

《야, 교복이 정말 곱네!》

《아버지, 우린 벌써 몸치수를 다 잤어요.》

한 일군이 화면에 나타나서 견본품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천의 재질이며 교복의 형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화면으로 보기에 모양이나 색깔이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훌륭히 만들어진것이지 않았다.

화면은 교복생산으로 들끓는 어느 한 피복공장으로 바뀌었다. 공장의 작업반장이 열심히 기대를 돌리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가 불이 붙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업반 로동자들속에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이들의 옷을 짓는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은정이 고마워 네 교대, 내 교대가 따로없이 생산전투를 벌리고있답니다.…”

짧은 화면이 지나갔으나 나는 가슴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더불어 기다렸던듯 추억의 대문이 스르시 열리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생 잊혀지지 않을 추억이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보니 38년이라는 수자가 나왔다. 나는 스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기껏해야 20여년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날에 있었던 일로 생동하게 기억되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던 말인가.

그렇다, 38년전이다. 1977년 4월 15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5돐이 되는 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의 탄생일에 온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사랑의 교복과 학용품을 일식으로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온 나라 인민은 그것을 사랑의 선물이라 말하였다.

그것은 온 나라 가정의 경사였다. 탄광마을의 우리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그때 고등중학교(당시) 2학년생이었다.

5남매가 자라고있는 우리 가정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 있었다. 넓다란 살림방이 좁다하게 5남매모두의 교복과 학용품을 펼쳐놓고 기쁨에 넘

쳐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때의 사랑의 교복을 입고 찍은 가족사진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가보처럼 간수되어있다. 이따금 그 사진을 들여다보느라면 사진기앞에 서서 자꾸 눈굽을 훔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우리가 선물옷을 입고 웃고 떠들 때에도 조용히 돌아앉아 웃고름으로 눈물을 훔치곤 했었다.

내가 지금 부모들의 그 나이가 되고 자식들을 키워보니 어머니가 왜 그 기쁜 날에 울기만 했는지 리해가 된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5만자루 품이 드는 그런 자식이 자그만치 다섯이었다.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을 떼어놓으면 어머니가 들어야 할 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자식을 낳은 부모들이 웅당 걸머져야 할 그 수고를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두 맡아안고 풀어주셨으니 어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눈물이 솟구치지 않았으랴.

그해부터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거의 해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주시였다. 겨울에는 솜옷까지 보내주시였다.

언제인가 웬남의 호지명주석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신 어버이수령님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무료교육을 실시하는데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의 교복과 학용품까지 무상으로 줄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호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런 예산안을 세울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정치가의 이 감탄의 말속에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이 다 담겨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당시도 우리 나라는 수억의 자금을 똑 떼내어 해마다 아이들의 교복과 학용품을 마련할만큼 넉넉하지도 부유하지도 못했었다. 수지타산을 앞세우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는 그 누구도 헤아릴수 없는 계산법이 있었다. 그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977년 4월 15일 바로 그날 온 나라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도 마다하시고

# 쇠물이 끓는 중입니다

심재훈

—차렷! 수령님!  
1211고지로는  
현재 쇠물이 끓는 중입니다  
반장 임승혁

군대식으로 보고하는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소?  
수령님의 다정한 물으심에  
내 ×××사단이라 대답을 했네

—아, 1211고지에서 싸웠단 말이지  
그러나 지금은  
여기가 사회주의 1211고지요

장하오 장해  
전쟁편 포화가 울부짖는 1211고지에서  
오늘은 사회주의 건설의 1211고지로서  
미국놈의 뒤통수에 쇠물벼락을 들쳐우고있으니  
정말 훌륭한 동무들이요

보란 말이요  
이런 동무들을 그냥 두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소  
수행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이 수령님

마지막 전기로

마지막 용해공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도  
수령님께서는 손수 보안경을 드시고  
펄펄 끓는 쇠물을 가늠해보시더니  
물으시었네

—반장동무, 출강할 때가 되지 않았소?  
10분이면 쇠물이 쏟아진단 말이지?...  
다시 수행원들에게 방해를 구하시네  
—우리 아무리 바빠도  
쇠물폭포를 보고갑시다

붕—전기로의 동음도 목메여 울려가는데  
쇠물빛 노을은 하늘땅을 붉게 물들이며  
용해장에 황홀경을 펼쳐라  
용해공들의 가슴에 감격과 기쁨이 물결친다

아, 그날에  
천금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용해공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아버이의 그 사랑 그 은정  
대를 이어 전설처럼 전하며 사는  
강선의 1211고지 전기로 용해공들

조국수호의 불타는 마음 안고  
언제나 《강선의 노을》노래를 부르며  
평양하늘 우러러 충정의 보고만을 올리리  
—경애하는 원수님 1211고지로는 출강 중입니다

새옷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마을의 어느 한 학교를 찾으시었다. 넓은 운동장의 키낮은 의자에 앉으시여 몸소 사진기를 드시고 교복을 입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한장한장 찍어주시느라 생신날의 하루를 보내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그런분이시었다. 봄날의 태양처럼 따뜻한 그 품에서 우리 세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자랐다.

오늘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한 점 구김살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세계에 없는 아동병원과 야영소, 궁전처럼 꾸려진 육아원과 애육원, 가는 곳마다 펼쳐진 놀이터와 공원, 유원지...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길을 가고있다.

그러나 강산에 넘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

소리로 하여 가는 길이 험잡지 않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봄빛이 흘러드는 4월, 불밝은 어느 창가에선가 노래소리가 흘러나온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뼉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예나제나 우리의 강산엔 해마다 4월이 온다.

예나제나 우리의 하늘엔 태양이 빛난다.

예나제나 우리의 봄빛은 하냥 따사롭다.



## 리 주

(전호에서 이음)

4

썩—쳐절썩—

바다는 끝없이 설레인다. 백사장을 어루쓸며 어리광치는 모양은 마치 천진한 어린애가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깨꾸막질하는 모습같다고 할가. ...

나지막한 모래둔덕아래에는 발가숭이가 된 꼬마들이 따가운 모래불을 깔고 엎드려있다. 찌는듯 한 해별은 그러지 않아도 까맣까맣하게 불독이 오른 여원 잔등들을 사정없이 내리치고있다.

휘—호이—휘—

조무래기들은 저마끔 자기가 늘어놓은 옹노쪽으로 새를 몰아가느라 입술을 오무리고 새된소리로 휘파람을 불고있다. 금방 하늘을 덮으며 날아와 내린 《더비》란 놈들은 건방지기 짝이 없어 거드름스럽게 머리를 조아리며 두세자욱씩 다가들었다간 한자욱 뒤로 물러서며 애타도록 옹노를 살금살금 피해가고있다. 모래를 쫓기도 하고 두릿두릿 사위를 살피기도 하는 새들은 귀엽기 그지없어 아이들마다 마른침을 꿀꺽 삼키게 한다.

그중에서도 아래도리에 훌잡뱅이마저도 걸치지 않고있는 자그마한 녀석이 누구보다 극성이다. 동네에서 말썽가마리로 소문내고있는 김수철이다. 그가 백사장에 늘어놓은 말총옹노가 대여섯발 잘되고있다. 문득 《더비》무리에서 푸드득 나래접는 소리가 나더니 한놈이 급기야 하늘을 바라고 날아오

른다. 뒤미처 수십마리의 《더비》들이 나래를 퍼덕인다. 얼마나 새가 많은지 서로 나래 부딪치는 소리마저 들리는듯싶다.

《내거다. 내 옹노에 걸렸다.》

흠타기에 몸들을 숨기고있던 조무래기들이 와—모래를 걸어차며 저마끔 옹노를 향해 내닫기 시작한다. 그런데 김수철은 웬일인지 발이 나가지 않는다. 다른 녀석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려 모대기는 《더비》를 손에 찰듯 다가가고있는데 그는 옹노쪽으로 몇자욱밖에 옮겨놓지 못하고있다. 불현듯 누군가 뒤에서 다리를 걸어챈다. 김수철은 따가운 모래판에 얼굴을 박으며 넘어졌다. 확 뜨거운 열기가 이마를 지저주는 동시에 잔등을 내리밟는 모진 아픔이 다시한번 그의 온몸을 휘감는듯싶다.

《〈더비〉는 내거야.》

갈갈대는 웃음... 선주의 아들녀석이다. 여느 아이들보다 키가 한뼘이나 더 크다고 노상 으시대며 남을 업신여기는 고약한 버릇은 여전하다.

김수철은 짚신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발바닥이 불침이라도 맞는듯 뜨거워났으나 불끈 치솟는 분노를 누를길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두세절음에 풀썩 꼬꾸라지고만다. 불판마냥 달아오른 모래판이어서 온몸이 그대로 불더미속에 갇혀버린듯만싶다.

《아...》

《더비》는 옹노에서 벗어나려 필사적으로 나래를 퍼덕인다. 말총이 건디지 못한다면...

아니, 놓쳐선 안돼...

불현듯 새의 나래가 유연하게 접힌다. 옹노에서



벗어난것이다. 하늘높이 날아올랐던 《더비》는 실망에 잠긴 아이들을 굽어보며 백사장을 유유히 두세바퀴 돌고있다.

아름다운 새는 드디어 하늘가 멀리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김수철은 이발을 사려물고 선주의 아들녀석에게 달려들었다. 먹을 움켜쥐고 힘껏 흔들 어댔다.

《너때문에 새를 놓쳤다. 날 끌려주려 우정 다릴 걸었지?》

《아, 수철이놈이 날 때린다.…”》

…김수철은 참기 어려운 분노와 아픔, 갈증을 느끼며 힘겹게 눈을 떴다. 아스라하게 멀어져버린 어린시절의 환영을 되살려주는 자그마한 벼는 발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반짝이는 모래알들이 붙어있는 가느다란 종아리들…

모래판이 파가와선지 양증스런 발가락들이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있다. 움지락거리는 그 자그마한 발모양이 마음을 안정시켜주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마을이 있을것이다. 마을에 가면…

《야, 눈을 떴다.》

《정말…》

애녀석들이 주고받는 호기심어린 말이다.

《나쁜 사람이 아닐까?》

사내애의 목소리다. 나이가 든 모양 말마디가 제법 여무지다.

《착한 아저씨야. 다리에서 피가 나왔지 않니?》

처녀애의 목소리가 나직이 변호했다. 김수철은 자기가 아이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음을 알았다. 림병초가 일러주던 말이 먼 꿈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처럼 울려왔다.

《해병모자를 잘 간수해야 해. 주문진해전이 있는 날 우린 이 모자덕에 살아날수 있었어.》

《조선인민군 해군…》

금박으로 새긴 글자들은 바다물에 거뭇이 색이 꺼져있었으나 사람들은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을 벌리고있는 인민군용사들을 인츰 알아보았었다.

그러니…

김수철은 괴롭게 몸을 뒤척였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다.

림병초가 헤어지면서 머리에 씌워준 모자가 목에 매달려있었다.

《야, 인민군대… 해병아저씨다!》

사내녀석의 입에서 대뜸 탄성이 튀어나왔다. 김수철은 긴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이 《해병아저씨》를 알아보는것으로 미루어 자기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음을 알았던것이다.

캄캄한 밤…

적함에서 번뜩이던 포격의 차거운 빛줄기, 전마

선이 부서져 자그마한 널쭌박에 의지하여 해염을 쳐야 했던 때의 피라는 절망…

모든것이 괴로운 꿈마냥 아득히 멀어져갔다. 모래볼도 더는 파잡지 않았다. 다리의 아픔도, 가슴을 조여주던 긴박감도 사라져버렸다. 이제 태일이면 부대에 돌아가 림병초를 얼싸안고 내가 어떻게 해염을 쳐 한적한 이 도래굴이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하리라. 꼬마들의 속삭임이 얼마나 반갑고 다정하였는가 하는것도…

김수철은 입술을 이그러뜨리며 소리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아픔을 잊고 머리를 모래판에 뿔구었다.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제가 인민들의 지성어린 간호로 건강을 회복하고 부대로 돌아갔을 때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2달이 더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수철은 당중앙위원회 최상민부부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뜻밖에도 최고사령부에서 한 젊은 장령이 내려와 담화를 하였다. 장령은 수철이네가 진행한 전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더니 미소를 지었다.

《동문 갓 입대승인을 받고 아직 군복도 입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전투장에 따라나갔겠소?》

김수철은 머리를 뿔구었다.

《미국놈들의 합포사격에 저는 집과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원쑤를 갇고싶어서… 때를 쓰다가 무작정 전마선에…》

《음… 생각했던것보다 어린 동무구만. 몇살이요?》

《열여섯살입니다.》

《기특하오, 잘 싸웠소. 림병초동무의 행처에 대해선 지금껏 모르고있었다지. 이게 무엇인지 알수있소?》

김수철은 장령이 내보이는 자그마한 쇠쭌박에 씌여진 수자를 읽었다.

《ㄱ053243… 이건 림병초동지의 군표입니다.》

《알겠소. 그를 잊지 마시오. 그는 참된 해병이였소.》

장령은 꼬마해병의 어린 두어깨를 짊 잡고 흔들 어주었다.

며칠후 김수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이 단행한 적함선에 대한 기뢰공격과정과 전투결과를 보고받으시고 몸소 높은 치하와 감사를 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았다.

김수철은 부대지휘관들과 함께 어느 해변가마을을 찾았다.

높지 않은 야산언덕에 흙밥이 생생한 봉분이 솟아있었다. 묘지에는 정성들여 다듬은 자그마한 소나무말뚝이 세워져있었다. 이곳 인민들의 성의가

깃든 표비였다. 10월의 해별에 송진이 흐르고있는 표비에는 먹으로 이런 글자가 정히 찍여져있었다.

《림병초, 조선인민군 해병.》

태어난 날은 물론 전사한 날자도, 묘주의 이름도 없었다. 김수철은 봉분앞에 무릎을 꿇었다.

《림병초동지, 부대에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홀로 여기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내하던 군당위원장이 봉분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수산협동조합을 찾아주시었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말씀하시던 원수님께서는 문득 정전을 며칠 앞두고 여기 앞바다에서 미제침략군 함선 3척이 단번에 침몰되는 큰 전투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전투에 참가한 우리 해병들속에 전사자가 있는데 바다날씨가 나빠 찾을수 없다고 가슴아프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전되기 얼마전 우리 지역 앞바다에서 함포사격을 해대던 미국놈들의 군함이 침몰되는 전투가 있는 사실과 그후 한 해병의 시신을 찾아 안장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보고를 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에게서 다른 물건이 나진것은 없었는가고 다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표가 나졌다고 말씀올리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빨리 전사한 해병의 신원을 알아보라고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아…》

김수철은 그제야 자기에게 인민군장령이 찾아오게 된 사연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신 감사표창에 헤아릴길없이 크나큰 은정과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상민부부장은 김수철장령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있었다.

《림병초영웅의 해병모를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던 때가 기억되니까?》

《물론이지요. 건강을 회복하고 부대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림병초영웅의 고향에 들렀습니다. 그때에야 나는 전쟁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영웅의 안해마저 미국놈들의 폭격에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아가 되어 리당위원장네 집에 얹혀살고있는 대복이에게 아버지의 유물인 해병모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영웅칭호를 받지 못했던 때라 그저 아버지의 위훈담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후 군관이 된 나는 대복이를 데려다 함께 살려고 그의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그해 가을 리당위원장은 밤중에 반동놈들의 수류탄습격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잘못되고 대복이는 피투성이가 된채 군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후엔 소식을 모른다는것이였습니다. 어느 마음 고운 사람이 자기가 대복이를 키우겠다면서 병원에서 데려갔다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년간은 그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후엔…》

김수철소장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림병초영웅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때 미군놈들의 포격에 전마선이 부서지지 않아 그대로 부대에 돌아올수만 있었다면…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래도록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마음이 무거우셨다. 영웅의 유물을 찾으려던것이 이제는 영웅의 아들을 찾는 일로 되었다.

림대복이, 그는 어디에 있는가.

《김수철장령에게 영웅의 유물을 찾을때 대한 과업을 줄 때 이런 일도 예견했어야 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정전을 며칠 앞두고 있는 해병들의 적함에 대한 기뢰공격전투와 그후의 일들에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를 마음속에 새겨두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강원도의 바다가마울에 있는 림병초영웅의 묘소를 친히 돌아보시였습니다. 그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림병초영웅이 남긴 해병모자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였습니다.…”

그 해병모자에는 이렇게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원수님, 제가 대원수님들의 높이신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그러구… 원수님께서 그 문제로 얼마나 마음을 쓰고계시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동무 잘못이 아닙니다. 영웅의 모자를 함께 찾자고 할 때 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깊은 고통이 패워져있으리라는것도 예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이 쉽게는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상민부부장은 눈곱이 젖어들었다. 위인들의 한없이 뜨거운 인정의 세계가 헤아릴길 없는 중량감을 가지고 가슴에 안겨오는것을 느꼈다. 그이의 심원한 사랑의 세계에 살고있는 자기가 더없이 행복함을 감격속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확신넘친 어조로 말씀드렸다.

《원수님, 영웅의 아들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누군가가 포탄깽지로 된 종을 조심조심 두드리기 시작했다. 휴식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미처 다듬지 못한 크고작은 석재들이 여기저기에 웅크리고있는 넓은 채석장에 다시금 착암기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쿵쿵 땅을 차는 압축기의 박력있는 동음은 먼곳의 북소리마냥 부드러우면서도 가락이 잘 맞는다.

《나는 림병초영웅의 아들이 아닙니다.》

60나이가 지난 석공반장의 목소리는 지나치다고 할만큼 무뚝뚝하게 울렸다. 캐너지 얼마되지 않는 화강석덩어리에 엮고있던 왼손이 경련이라도 인듯 보이지 않게 푸들거렸다. 그는 허리가 구부정한 장령의 긴장한 눈길을 잠깐 일별하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업대에서 함마와 정대를 집어들었다.

《오래전에 전사한 사람의 아들을 왜 갑자기 찾는건가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때문이지.》

김수철소장의 목소리는 알릴듯말듯 떨리고있었다. 그는 피로가 몰린 사람이 그러듯 힘겹게 숨을 들이그었다.

《동무 아버지의 이름은 림병초였소.》

이 편진... 동무에게 쓴 아버지의 마지막편지이고... 이 편지를 쓸 때 난 등잔불을 밝혀주며 곁에 함께 있었소.》

김수철소장은 두툼한 편지를 석공반장앞에 내보였다. 그러자 상대방의 낫색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었다. 두려운듯 한 눈길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김수철소장은 먼 하늘가에 눈길을 준채 마치 자기 마음속의 그 누구와 이야기하듯 목소리를 낮추어 편지의 구절들을 읽었다.

《...》

〈대복아, 보리장마가 지났으니 올감자를 켈 때가 되었구나. 농사가 잘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이제 미국놈들이 항복할 날도 멀지 않았다.》

요즘은 전쟁이 끝나 고향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구 함께 있는 꼬마해병 김수철이와 계속 논쟁을 하고있다. 너의 형님벌이나 될 이 꼬마는 고향이 통천의 바다가마을이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이 소원이다. 그는 나도 해병이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고집하고있다.

그러나 난 그에게 농사를 잘 짓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고있다. 사람이 물고기도 먹어야 하지만 밥을 먹지 않고서야 살아갈수 없지 않니. 그러자면 농사를 잘 지어야지....

대복아, 이것은 다 우리들의 자그마한 소원일뿐

이다.

전쟁이 끝나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 미국놈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평화로울수 없다. 또다시 미국놈의 노예로, 천대받는 머슴으로 너와 내가 비참하게 살수야 없지 않느냐.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시었다....

이제 몇분후면 나와 김수철은 자그마한 배를 타고 적들을 찾아 바다로 나간다.

출발준비를 마치고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고는 더욱 말할수 없다. 그러니 이런 부탁을 남기는 날 리해해다오.

넌 꼭 훌륭한 해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대손손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병으로 살기 바란다.》

동무 아버지는 편지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소. 난 이 편지를 반세기가 넘도록 가지고있으면서도 동무를 찾지 못했댔고...》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란 말입니까?》

《그렇소. 동문 전사한 림병초동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미안하지만... 나의 아버지 3년전에 사망하였소. 그리고 나의 이름은 대복이가 아니라...》

석공반장의 목소리는 고집스러웠다. 장령은 습관처럼 군모를 바로잡았다.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난 동무의 고향에 찾아갔댔소. 거기서 우리가 만났었지. 그땐 아마 동무의 나이가 8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을거요.》

《장령동지, 저를 다른 누구와 혼돈하지 않았습니까?》

김수철소장의 수북한 장미가 창끝처럼 곤두섰다. 안존하게 자리잡힌 두눈이 금시 서리칠듯 날카롭게 번뜩인다.

《대복이, 아직두 사실을 말하지 않을텐가!》

《?!...》

《동문 자기 아들이 군대에 나갈 때 보물처럼 간직하고있던 할아버지의 해병모자에서 이 땀기를 뜯어 가져간데 대해 몹시 노여워했다지.》

《...》

《동문 폭격에 어머니가 희생될 때 다친데다가 리당위원장네 집이 반동놈들의 습격을 받을 때 크게 다치여 늘 앓곤 했소. 그때 상한 손때문에 군대에도 갈수 없었소. 그래서 철순이를 해병으로 키우려 마음쓴게 아닌가. 할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려고...》

철순이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찍은 가족사진에 얼굴색이 밝지 못한 사연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밝혀내시었소. 그때 동무는 철순이가 해군에 가지 못하게 된 문제로 초모사업을 맡은 부장동무와 한바탕 다투까지 벌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철순이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얼굴색이 밝지 못했고…》

《…》

《물론 동문 군대에 가는 자식에게 한생토록 가슴에 맺혀있던 사연을 다 말해주진 않았소. 그러나 철순이는 일기에 자기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꼭 영웅해병이 되겠노라 맹세했소. 책임성이 높은 부장동무가 세해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입대자의 소원을 풀어준 사실을 벌써 잊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장령동지…》

석공의 돌가루에 매닥질된 손에서 빠져나온 함마가 털썩 바위우에 무겁게 떨어져내렸다. 이어 자그마한 정대가 쩡그렁—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딪혔다. 커다란 화강석덩어리가 그 크지 않은 충격에 부르르 떠는듯싶었다.

김수철소장은 푸들푸들 불편을 떨었다.

석공은 두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의 오른손에 난 상처자리가 수철소장의 눈을 아프게 자극했다. 석공은 어깨를 떨며 흐흑— 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음섞인 소리로 속을 터놓기 시작했다.…

대북이를 병원에서 데려간 집은 자식이 없었다. 3대독자 외아들이 전쟁때 학교 갔다오다가 미제놈 비행기를 만나 기총탄에 잘못되었다고 했다. 새 아버지, 어머니는 친자식이상으로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었다. 그들은 대북이를 미국놈들에게 잘못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대북이도 그에 습관되어 학교에 갈 때 이름을 바꾸었다. 새 아버지는 석공이었는데 사람들이 대북이를 친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 여러번 이사를 했다.

《사회에 나와 전송기념관에 갔던 나는 놀랍게도 친아버지가 공화국영웅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질것처럼 놀랍고 기뻐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영웅의 아들이라는것을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지어 새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제구실을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새 아버지, 어머니가 것처럼 극진히 돌봐주는 데도 골골 앓기만 하면서 남의 집이 되곤 하였으니까요. 내가 일하는 날보다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았구…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제구실을 해서 영웅의 아들답다는 말을 들을수 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바로 립병초영웅의 아들입니다.〉 하며 나서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글타글 하기는 했지만 아직두 난…》

김수철소장은 가슴이 뻘근해움을 느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도 동무는 아들을 잘 키우지 않았는가. 이 댕기를 보오. 이것이 그때 내가 동무에게 준 그 해병모뎡기가 맞지?》

김수철은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해병모뎡기를 꺼내보이며 갈린 어조로 말을 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립병초영웅의 해군뎡기가 전사한 철순의 몸에서, 동무 아들에게서 나왔단 말이요.

구잡함 722호의 수뢰수 립철순은 할아버지가 남긴 해군뎡기를 품에 고이 간직하고 조국의 바다를 지켜 훌륭한 해병으로 군사복무를 하던중 장렬하게 전사했소.…》

김수철소장의 손에서 색깔은 해군뎡기가 바람에 불려 기발처럼 날린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 하늘끝에서 들려오듯 커다란 진폭을 가지고 마주선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에 따라 동무의 아버지—립병초영웅의 유해가 새로 건립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안치되었소. 묘비에는 립대북이라는 이름이 묘주로 새겨져있소.》

돌을 깎으며 한생을 살아온 늙은 석공은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그런줄 모르고… 전… 전…》

김수철소장은 영웅의 아들을 찾으려 애쓰던 이야기를 구태여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60나이가 썩 지난 석공의 돌가루발린 손에서 잃어진 손가락들을 찾아보는 그 눈빛을 통하여 파묵한 그의 마음속에 웅여져있는 아픔을 력력히 읽을수 있었다.

몸이 허약하고 손까지 상한탓에 군인선서를 할수 없었던 립대북은 무거운 마치를 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돌과 함께 한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걸던 길을 손자가 굳세게 이어가도록 마음을 썼다.…

《철순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널 아신다. 너의 할아버지도 다 알고계신다. 못난 이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이 전사한 소식을 듣고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는 드디어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가슴에 한생토록 배겨있던 무거운 돌을 삭여내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면서 품에 깊이 간직하고 떠나간 해병모자의 뎡기, 아버지의 유산인 해군뎡기를 정중히 받아들였다.

뎡기에는 반세기전과 다름없이 《조선인민군 해군》이라는 일곱글자가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1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아침 손수 하얀 꽃



한송이를 용사묘의 화환진정대에 놓아주시었다.

함장 박명호로부터 마지막전사 림철순에 이르기까지 희생된 용사들의 몰사진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었다.

금시라도 뛰쳐일어나 자신의 품에 안겨들것만 같은 해군용사들의 림름한 모습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지난해 2월에 있었던 그들과의 뜻깊은 상봉의 날을 돌이켜보시었다. 파도가 휩쓰는 갑판에 성벽마냥 어깨를 걸고섰던 모습들...

그이께서는 해군용사들이 순간도 자신의 곁에서 떨어져있을적 없었던것처럼 생각되시었다. 그들은 살아있을뿐아니라 오늘도 래일도 함대의 선두에서 우리 당 기발을 펄펄 날리며 자신과 수백만 전우들과 함께 영웅적인 전투항행을 계속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시었다....

바다바람에 힘차게 나뭇기는 해병모의 땀기며 거기에 새겨진 《조선인민군 해군》이라는 글발...

마가울의 서늘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용사묘의 뜨락에는 봄날과도 같이 따스한 해별이 내려앉고있었다.

《김수철소장동무, 림대복동무... 이젠 마음들을 놓으시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석마냥 굳어진 림대복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었다.

《철순이는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을 바친 영웅의 후손답게 살았소.》

《최고사령관동지...》

《앞으로 세월이 백년, 천년이 흐른다 해도 우리는 여기에 고이 잠들어있는 새 세기의 해군용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가을종다리 한마리가 푸른빛이 어우러진 하늘 어데선가에서 잘 여문 목청으로 짧게, 길게 소리를

뿜아내고는 푸드득 깃을 쳐 날아오른다.

그이께서는 구름 한점 없이 개인 하늘을 향해 눈길을 드시었다. 맑고 아름다운 종달새의 지저귐소리에 잠간 마음을 주셨다가 곁에 선 총정치국 부국장을 향해 말씀을 이으시었다.

《용사묘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는 묘주가 있어야지...》

《예, 함장묘인데다 태반이...》

총정치국 부국장이 말끝을 흐렸다. 희생된 용사들중 대부분이 장가를 들지 않은 총각들이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고충이 리해되였다.

《희생된 용사들의 묘주는 웅당 우리 당이 되어야 합니다. 묘주에 나의 이름을 새겨놓으시오. 이 용사묘의 묘주는 **김정은**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상민부부장동무, 한생을 석공으로 살아온 림대복동무에게 파업을 줍시다. 그러면 아버지의 직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림철순이가 아마 기뻐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수철소장과 림대복의 손을 잡으시고 오래도록 군항을 바라보며 서계시었다.

묘소에서는 군항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이제는 여기에 잠든 용사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군항과 전우들의 모습을 보며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게 되리라....

군항의 부두에서 소금내 배인 바람이 불어왔다. 림병초영웅의 해병모자에서 두오리 땀기가 거대한 기폭마냥 나뭇긴다.

나뭇긴다....

## 가 사

# 위대한 동지

## 문 기 창

혁명의 먼길에 뜻으로 따르며  
혈육보다 귀중한 동지를 알았네  
전사를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열혈의 동지는 아 우리 원수님

사랑의 한품에 천만이 뭉치여  
생사운명 같이할 동지가 되였네  
전사를 자신처럼 믿어주시는

의리의 동지는 아 우리 원수님

신념의 동지로 의리의 동지로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맡겼네  
전사를 자신보다 아껴주시는  
위대한 동지는 아 우리 원수님

아 원수님의 그 품은 동지의 세계



# 풍산 휴양단

허문길

1

딸가닥— 딸가닥—

렬차바퀴가 레루이음짬들을 넘어가는 소리가 단조로운 가락으로 들려온다.

그 소리는 마치도 아이적에 머리맡에서 울리던 어머니의 자장가마냥 풋잡에 들어 비몽사몽간에 오락가락하는 최현의 귀전을 간지럽힌다.

최현은 슬그머니 눈을 떴다.

상급침대상단의 하얀 나무판자가 마주쳐온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풍산에 가는 길이지.)

최현은 허구픈 미소를 지었다.

체신성의 너털청한 주인방에 앉아 설새없이 나라의 체신문제를 놓고 전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회의에서 목청을 돋구던 자기가 지금 풍산으로 가는 렬차의 포근한 침대에 썬평 좋게 누워있는것이 꿈만 같았다.

《휴양이라— 참.》

최현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해떨어질무렵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

내각 제1부수상인 김일이 전화로 찾았다.

만사를 접어놓고 곧 자기 방으로 와달라는것이였다.

그래 정말 만사를 접어놓고 제1부수상 서기실에 들어서니 당중앙위원회 겸임위원회 책임일군인 한기훈이 앉아있었다.

한기훈은 백두산시절에 최현밑에서 전령병, 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싸웠고 전쟁시기에도 내내 그의 밑에서 정치일군으로 있었다.

《웬일이요?》

최현이 한기훈의 인사를 받으며 물었다.

《글쎄요. ...》

한기훈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서기가 김일의 방에서 나왔다.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김일이 들어서는 두사람의 인사를 받고는 앞상에 나와앉으라고 손짓하였다.

김일의 앞상에는 렫총 세자루가 놓여있었다.

《자, 받으시우.》

김일은 설명이 없이 그들에게 렫총 한자루와 휴양권 한장씩 내밀었다.

자기도 렫총 한자루를 들어 방구석에 세우고 손에 들고있던 휴양권을 옷주머니에 넣었다.

최현도 한기훈도 눈이 둥그래졌다.

휴양이라니?...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들 오죽 많은가?

김일은 깜짝 놀라 렫총을 걸메고 휴양권을 두손에 무겁게 받아든채 자기를 쳐다보는 최현에게 똑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며가며 한 열흘 평양을 떠야겠으니 빨리 성에 돌아가십시오.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혜산행 렫차시간에 맞추어 역에 나오시우다.》

《그럼 김일동지도 가지우?》

최현은 뜻밖에 닥쳐든 일에 어안이 병병해서 물었다.

《예.》

《휴양단은 우리 세명이구?》

《예, 세명뿐입니다. 가만, 명색이 휴양단이니 단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오랜 지휘관출

신인 최현동지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단장? 세명 휴양단에 무슨 단장이요?...》

《제가 전령병노릇을 다 하겠으니 말으십시오..》

한기훈이 웃으며 하는 소리다.

《하, 까짓거, 반대없수다. 생각지 않게 굉장한 벼슬자리를 따냈군.》

최현이 아직도 휴양이라는 소리가 귀에 설어 얼떠름해있다가 씩 웃으며 접수하였다.

《자, 그럼 가보시우다. 풍산산골로 가니 량권을 가지고가는것도 잊지 마시우.》

김일이 한마디 더 일깨워주고는 제자리에 가서 전화를 들었다.

《아, 그런데 1부수상동지, 이 휴양권이 어째서 내게 차례졌소? 최현의 속탈이야 대소한제절에 성한다는걸 김일동지도 잘 아시지 않소. 그리고 평양-원산 선로공사를 사흘지나 벌려야겠는데 난 휴양갈 형편이 못되우다.》

최현이 끝내 볼부는 소리를 하고는 량총을 도로 앞상우에 내려놓았다.

《에누리할 생각일랑 마시우. 수령님의 지시요. 참, 한동무가 가던 길에 역에 들러 타고갈 자리를 맡아놓소. 우린 놀러 가는 길이니 전용칸을 따로 내지 말고 한칸을 받아 모여서 갑시다. 승용차도 가져가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한기훈이 수령님의 지시라는 말에 공손히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일이 이렇게 군설명이 없이 매듭을 짓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자 최현은 더이상 캐묻지 않고 량총을 둘러메고 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두어시간전에 평양을 떠나온 길이었다.

...

《주무시오, 최현동지?》

옆침대에서 간간이 걸그랑거리는 잠소리를 내는 듯싶던 김일의 목소리였다.

그도 피로가 몰려 침대에 들자마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모양이다.

최현이 그 소리에 상념에서 헤여났다.

《아니...》

《수령님께서 휴양과 관련하여 무슨 전화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최현이 김일이 묻는 말에 상반신을 일으켰다.

자기도 물고싶었는데 오히려 김일이 물어오니 이상스러웠던것이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김일동무에게 물고져 했던거요. 이 불같은 세월에 휴양이라니. 풍산에 휴양소가 있다는 소리도 들은적 없구. 우리 세명이 가는것도 폐사롭지 않구...그래,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소?》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게 전부입니다. 한주일가량 이일저일 다 젖혀놓고 풍산에 가서 사냥이나 하다 오라, 삼복계절이니 두말말고 갔다오라고 말씀하신게 전부입니다.》

김일이 짹막하게 대답하였다.

최현은 김일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며 아직도 휴양이라는 의미가 석연치 않아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저, 풍산땅은 김형권동지의 자취가 어린 고장이 아닙니까? 그곳 사람들의 생활형편도 료해하고... 산골군을 추켜세울 대책도 현지에서 세워보라는게 아닐가요?》

상단침대를 차지한 한기훈이 지금까지 단잠에 든줄 알았더니 제나름으로 이야기에 발을 디밀었다.

기차가 북청역에 들어선것은 다음날 오후였다.

풍산에 가자면 북청에서 내려 빠르게 몇시간 더 달려야 한다.

북적거리는 역구내를 흔드는 기적소리에 김일이 걸음을 주섬주섬 입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제 일들을 하지 않고 왜 저 모양이야?》

최현도 옷을 입고 량총을 둘러메다가 밖을 내다보았다.

풍산군의 일군들 일어뒹명이 주런이 긴장한 모습으로 서있었다.

《내립시다.》

김일의 소리에 그들은 러행가방을 들고 승강구에 나섰다.

《최현동지가 앞서십시오.》

김일이 최현의 등을 떠밀자 펄쩍 뛰었다.

《아, 제발 나를 난처하게 하지 마시우다.》

《왜 이러십니까? 단장이라는걸 잊으신게 아니시오? 단장선거를 할 때는 군소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 김일동지, 선거는 언제 했다는거요? 그리고 세명짜리 휴양단단장도 정말 벼슬자리요?》

《허허, 최현동지, 어서 앞서시우다. 여기 풍산 사람들은 최현동지의 성함을 이 김일이나 한동무보다 더 잘 알겁니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한기훈까지 덩달아 최현을 앞자리로 내세웠다.

《하, 이 사람들이. 날더러 산골에 가니 아래웃마디 가려 못 보는 위인이더라는 후문을 남겨놓는게 아니요?》

《하하, 사람의 아래웃마디가 어찌 판직으로 정해지겠습니까.》

김일이 선웃음을 치며 최현의 등을 떠밀었다. 한기훈도 두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껄껄거리며 뒤따라 열차에서 내렸다.

열차의 승강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서있던 보통키에 다부지게 생긴 중년의 사나이가 휴양객들을 향하여 허리를 굽혔다.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희 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당위원장은 부재중입니다.》

최현이 통명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우린 휴양객들이요.》

《예, 제가 어제 밤 늦게야 도당위원장동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군일군들을 다 데리고 영접을 나가라고.》

《방금전에 1부수상동지가 당신들을 나무람했소. 무슨 임금행차라고 부지깽이도 뛰는 세월에 모두 마중들 나온단 말이요?》

최현은 근엄한 어조로 나무라며 그의 앞을 지나 다른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최현은 마지막자리에 서있는 일군앞에서 화들 놀라며 굳어졌다.

《상동지!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그 일군이 쪽 뻗어오른 허리를 깊이 꺾으며 인사를 했다. 말투와 낯빛에 여느 일군들과는 다른 류다른 반가움과 놀라움이 쌍곡선치는 듯싶었다.

최현의 우등통한 얼굴에도 반색이 흠뻑 비껴들었다. 그러나 이내 사라지고 부릅뜬 눈으로 상대의 아래우를 훑었다. 그러다가 손을 번쩍 들어 허공을 힘껏 내리찍었다.

부지불식간에 뿌지직 뿜어오르던 속을 누르며 고개를 돌렸다.

《김일동지, 여기 누가 서있는지 보시우!》

그러자 최현의 뒤를 따르던 김일에게서 우로 약간 들린 두툼한 입술이 병긋해지며 외마디 부름이 탄성처럼 튀겨나왔다.

《강태무!》

김일이 강태무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두손을 덩석 움켜잡았다.

《강태무사단장!》

한기훈도 뜨겁게 부르짖었다.

군일군들의 눈길에 일시에 온 나라에 명성이 뜨르르한 사람들에게 각각 한손씩 잡혀 뜻밖의 해후에 얼떨떨해진 듯싶은 강태무에게로 쏠렸다.

## 2

이윽고 여러대의 자동차행렬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제일 앞에는 휴양객들을 태운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차가 달렸다.

아까부터 느닷없이 입술을 무겁게 감쳐물고있던 최현이 산기슭에 울망줄망 서있는 단층집마을에 눈을 주고있다가 문득 부탁하였다.

《이보우, 군위원장, 차를 세워주겠소?》

그 소리를 여겨들은 운전사가 앞좌석에 앉아있는 군위원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차를 세웠다.

최현이 《1부수상동지, 제 잠깐...》하고 량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뒤따르던 차들도 일제히 단김을 뽑으며 벗어났다.

최현은 재게 걸음을 옮기며 꿈무늬에 선 차에로 다가갔다.

김일도 최현의 뒤모습을 보고있다가 차에서 내렸다.

최현은 뒤차앞에 이르자 뒤짐을 지더니 대뜸 호령조로 소리쳤다.

《야, 태무! 내려라!》

최현이 까닭없이 성이 독같이 올라 대바람에 호통을 치자 당사자인 강태무는 물론 한기훈도 군일군들도 어리둥절해져서 일제히 차에서 내렸다.

최현이 큰 키를 꺼져부정히 해가지고 영문모를 호령에 주점부터 들어 차에서 내린 강태무를 세워놓고 여전히 호통을 쳤다.

《야, 태무야! 니 인사법도가 왜 그 모양이야?》  
《?...》

강태무가 오래간만에 만난, 그것도 잊을수 없는 옛 상관앞에서 어리어리해진 두눈을 꺼벅거리기만 하였다. 옛정을 떠올린 《니》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최현의 불만이 짙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까 역홀에서부터 강태무앞에서 들린 자세를 허물고 대중할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던 최현이 무슨 트집거리를 찾아냈을까 하고 아니아니한 심정들이 되어 두사람의 기이한 상봉을 지켜보았다.

《니 내게 다시 인사해봐라!》

《상동지! 제가...》

《다시 인사하라는데...》

강태무는 최현의 지긋은 재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 《아, 체신상동지!》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얼굴이 벌개서 해—하고 멧적게 웃을수밖에 없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같이 싸울 때도 강태무는 이따금씩 최현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않은 일로 닥달을 당하곤 하였던 것이다.

순간 최현이 와락 강태무를 끌어안았다.

그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갖다붙이고 비비면서 물기가 그렁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야, 태무야, 니 이 최현에게 어째서 그렇게 인사하느냐. 우리야 사생동고가 아니야?! 섭섭쿠나.

아, 니야 〈군단장동지, 사단장 강태무—〉 그리곤 달려들어야 할게 아니야?!》

《군단장동지!》 강태무가 최현의 실한 허리를 마주 끌어안으며 부지중 소영각같은 소리로 불렀다.

《이놈아, 잘있었니?! 니가 1211고지에서 헤어진 후 설날이면 손바닥만 한 야전엽서에 잘있니, 잘있어라 몇자 보내주다가 그마저 끊어지더니 여기와 배겨있었구나.》

《군단장동지, 그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무의 두볼로 열랄같은 눈물이 쭈르르 미끄러져내렸다.

최현의 볼에도 눈물이 이랑을 지었다.

《그래그래, 강태무사단장. 내 이따금 니 생각하곤 한다. 그때면 가슴이 아파지는데 있다. 뭘고 하니 사지판에서 공로많은 너에게 군공메달 하나 내 손으로 달아주지 못한거다.》

《최현동지, 여적 그 일을 잊지 않으셨군요. 1211고지를 떠날 때에도 이렇게 나를 부둥켜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훈장생각이나 했습니까? 이기는가 지는가, 사는가 죽는가 하는 판에...》

《그래그래... 생논을 움켜먹으며 총알이 썩썩하는 판에 훈장생각이 다 뭐냐. 하지만 난 늘 그레 가슴에 걸린다.》

《최현동지, 그래도 저야 살아서 이렇게 락을 보



지 않습니다. 문경고개와 칠령, 태백산에서 얼마나 많은 동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웁다, 태무야. 술한 사람들이 우리걸을 떠나 갔지.

우리 그네들을 잊으면 안돼! 니가 참 옛 상판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최현이 더욱 으스스리게 팔에 힘을 주어 강태무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동안 한몸이 되어 굳어져있었다. 옛 전우들의 열렬한 포옹에 갑자기 사위도 굳어지고 조잘거리는 강변의 물소리마저 사라지는듯싶었다.

그들의 주위에 모여든 김일과 한기훈은 물론 군일군들도 눈지방이 벌겋해져가지고 심장파 심장의 박동을 이어놓고 떨어질줄 모르는 두사람을 보고 있었다.

이윽고 최현이 일군들에게로 고개를 돌리었다.

《미안하오, 동무들! 걸음을 지체시켜서. 우리를 방해하여주시오. 우리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넘은 전우요. 내 한마디만 하고싶소. 이 사람은 애국자요. 진짜배기영웅이요.》

《에, 뵈습니다. 최현동지.》

《자, 이제 가자구. 우리 차에 함께 타구 가자구.》

《저는 저 차에...》

강태무가 사양하자 그들의 뒤에 서있던 군위원장이 강태무에게 꼭진한 어조로 권하였다.

《부위원장동무, 어서 앞차로 가십시오.》

《아.》

강태무가 그냥 손을 내저었으나 최현이 팔을 놓아주지 않고 군위원장까지 등을 떠밀어주어 둘은 함께 앞차로 갔다.

자동차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시창으로 산촌의 수려한 풍경이 언뜻언뜻 비껴들었다. 여러시간이 지나 그들은 풍산지경에 들어섰다.

읍거리에 들어섰을 때 최현이 불쑥 물었다.

《태무, 너네 집이 어디메냐?》

《지나왔습니다. 아까 산기슭에 있던 단층마을입니다.》

《그래?... 읍에 출퇴근하기가 불편하겠구나.》

《괜찮습니다.》

《가만, 임자 색시한테 최현이 왔다는 인사를 하고 가야겠네. 소문만 들구 여적 한번 보지 못했는데. 우리 수령님께서 임자 색시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쓰셨다구... 신수가 편편히 지내겠지?》

《예.》

《뭘한다고?》

《수매소에 다닙니다. 개수매원입니다.》

《뭘, 수매소? 개수매원? 임자 색시아 대학물도 먹구 선생한다고 하지 않았나?》

《예, 여기에는 교원자리가 없어서...》

《무슨 소린지?... 하여튼 집에 들려봐야겠다. 김일동지, 내 좀 이 사람집에 들렀다가겠습니다. 차를 세우게.》

차가 서고 최현이 차에서 내렸다.

강태무도 어찌할새없이 차에서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사람의 이야기를 병시레 미소를 짓고 듣기만 하던 김일도 그들을 따라 차에서 내렸다.

《김일동지는 왜 내리시오?》

《원참, 강동무의 색시로 말하면 최현동지보다 이 김일이 더 막역한 사이지요.》

최현이 그 말에 손등으로 이마를 툭툭 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렇군. 그때 김일동지가 이 사람 처를 찾아내서 수령님께로 보냈지. 자, 우린 강변길을 걸어갑니다. 참, 한동무는 가보오. 먼저 가서 숙소를 잡아놓고... 뉘시간후에 차나 보내주오. 아무래도 옛 전우의 집을 거쳐 스쳐가면야 인사불성이 아니겠소.》

그런데 한기훈마저 히죽 웃으며 내린다.

《최현동지, 저도 저 사람의 집을 먼저 구경하여야 되겠습니다. 저로 말하면 강동무하고...》

그 소리에 최현은 또 한바탕 고개를 들고 청높이 웃었다.

《아, 한기훈이 또 저 사람과 가까운 사이였지. 저 사람밑에서 문화부련대장도 하고 문화부사단장도 하고...》

그때 수령님께서 강태무동무에게는 특별히 백두산바람을 쐬인 동무들을 붙여주자고 말씀하셨지. 그때 이 사람의 친구로 빨찌산로병들이 많았어. 결국 우리 세사람이 다 강동무하고는 피로써 얹혀진 사이였구만. 자, 한동무도 옛친구이니 당당히 강태무네 색시구경할 자격이 있소.

다 함께 가봅시다. 한기훈동무는 우선 군위원장에게 우리가 뒤따라가겠다고 방해부터 구하십시오.》

최현은 제깍에 흡족해서 턱을 들고 장쾌하게 웃었다.

이렇게 되어 휴양객들을 태운 승용차는 돌아서고 군일군들은 석비레로 다져진 읍거리의 도로를 따라 곧추 달려갔다.

### 3

휴양객들을 태운 승용차는 큰길에서 벗어나 단층마을에서 벗어났다.

산자락을 따라 산골집들이 웅기종기 모여있었다. 대체로 동기와를 인 한칸 혹은 두칸짜리 집들로서 집마다 낮게 싸리울바자들이 돌아갔다.

강태무를 따라 키낮은 삼작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선 최현은 토방에 걸터앉아 마당을 휘휘 둘러보았다.

터밭에는 아직 통이 들지 않은 배추가 한벌 깔려있다.

좁은 마당의 한쪽귀퉁이에 토끼우리가 있는데 재빛토끼 두마리가 앞발을 쳐들고 휴양객들을 내다본다.

눈길을 들어보니 나무굴뚝이 절반 꺾어져있고 동기와들이 오랜 세월 빛과 바람과 눈비에 고삭아내

린듯 지붕이 불품없이 꺼져있었다.

《제가 노상 밖에 나가 살다보니… 저 굴뚝은 언제 저렇게 됐나?》

최현의 눈길을 따라서던 강태무가 뒤목을 벽벽 긁으며 민망스러운 어조로 변명하였다.

그러자 최현이 다른 말 없이 잠시 당장 주저앉을 듯싶은 지붕에 비위살줄게 뿌리박고 삐죽 자라는 가라지풀에 눈길을 박은채 혀를 끝갈 찼다.

《이봐 강태무, 사다리를 구해오게.》

《사다리요? 예, 군단장동지도…》

강태무가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최현의 속궁리를 넘겨짚고 망신살이 뻗치는지 손을 저었다.

《가져오게. 그리고 저 운전사, 이리 오라구.》

대문가에서 서성거리며 온 나라에 이름이 자자한 휴양객들을 신비스럽게 살피고있던 운전사가 제 꺾 뛰어들었다.

《임자, 이제 군건물관리소에 가서 판자 몇개와 나무기와 열장정도하구 못, 망치, 톱을 가져오게. 보나마나 이 집에는 그러루한게 없을것 같아.》

《알았습니다.》

전쟁시기에 포차를 몰았다던 운전사는 최현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제가 해야 할 일거리를 이제야 받아안은게 다행스러운지 군인식으로 절도있게 인사하고 인차 승용차를 굴러갔다.

강태무가 어찌는 수가 없어 옆집들을 돌아다니다가 사다리를 메고왔다.

《거기 세워두구 집구경이나 시켜주게.》

《하, 이거 오늘 단단히 버릇떨어집니다. 제가 도로모수장에 나간지 한달만에 왔는데…》

강태무는 옛 상판들앞에서 더구나 기가 죽어 기여들어가는 어조로 말하며 면접스레 웃었다.

두어사람이 다리 뻗으면 짹 찰 옷방 하나에 부엌이 달린 정주방 하나였다.

아마 전쟁이 끝나서 부랴부랴 지은 모양이다.

가장집물이라고는 때국이 진한 껌짜 두개에 자그마한 책장이 없혀있는 앓은뱅이책상이 하나, 정주방에 있는 두리반상에 그릇들을 포개여놓은 찬장이 전부다.

김일이 부엌에 내려가 구석에 있는 쌀독을 열었다.

감자가 골쭉하니 들어있었다.

최현이 찬장을 열어보니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김치 한보시기와 반홉이 될가말가한 기름병 하나가 있었다.

어데 따로 간수한 식량이나 세간살이가 있지 않을가싶어 둘러보았으나 더는 보이지 않는다.

최현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혀를 털었다.

《밖에 감자음이 있습니다. 그거면 여름철을 넘깁니다.》

강태무가 김일과 최현의 속궁냥에 어줍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최현의 두툼한 입술이 단박에 크게 푸들쩍거렸다.

천정이 낮은 방안이 찌렁 울렸다.

《강태무부위원장, 이진 뭐요? 타락이요, 자포

자기요?》

어조는 레사스러웠으나 그 말투에는 준절한 여운이 실려있었다.

김일도 한심스러운듯 저력있게 최현의 말을 받았다.

《이렇게 사는 꼴이 부끄럽지 않은가? 전쟁이 끝난지 언제라구…》

《1부수상동지, 저는 이것도 큰 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농사군의 자식이 량반홍내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뭘, 뭐라구? 둘러대지 마오. 이진 너무해, 너무하단 말이요.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면 군의 호주인데 제 집을 이 꼴로 해놓고사는 사람이 군살림은 어떻게 윤택하게 꾸리겠소?》

김일이 어지간해서는 격한 감정을 드러내놓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강태무의 집안팎을 보고서는 화를 참을수 없는지 역증스럽게 핀잔을 하였다.

그때 밖에서 차소리가 났다.

최현과 한기훈이 기다린듯 소리나는쪽에 눈길을 보내며 밖으로 나가자 김일은 강태무에게로 다시한번 눈을 빨고는 그들을 따라 문턱을 넘어섰다.

휴양객들은 옷등을 벗어 울바자에 걸어놓고 작업에 달라붙었다.

몸이 부대한 김일과 최현은 꺾어진 굴뚝을 바로세우는 일을 하고 한기훈과 강태무는 운전사와 함께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서 자라는 잡풀들을 뽑아 버리고 더갈라지고 고삭아내린 동기와의 바뀔씩우는 일에 달라붙었다.

작업이 한창일 때 최현이 개자리에서 나와 지붕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여, 운전사는 내려오게.》

운전사가 지붕에서 다람쥐처럼 날래게 사다리로 내려왔다.

《차를 몰고가서 부위원장 색시를 태워오게.》

《알았습니다.》

운전사가 인차 돌아서는데 최현이 되돌려세웠다.

《이보게, 마저 말을 듣고 가라구. 개수매원을 한다니 차라리 잘되었네. 단고기 서너군에 술 한방구리 가져오라구, 이 돈만큼…》

운전사가 최현이 내미는 돈을 보자 기겁하듯 뒤걸음쳤다.

《이건… 이진… 제게도 돈이 있습니다.》

《자, 가져가라구. 수매소에 가서 소문을 놓지 말구. 괜히 부산을 피워 이다음 1부수상과 최현이 풍산에 와서 단고기, 술방구리를 공짜로 골격했다는 소문을 내지 말고.…》

뒤걸음질하던 운전사가 최현의 뚱조어린 말에는 《아무럼 우리 풍산사람들이…》하고 씨물씨물 웃다가 최현이 정색을 하고 두눈을 부릅뜨는 바람에 돈을 받아들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우리 위원장동지한테 줄경을 치르게 됐는데.》

최현이 삼작문을 나서는 운전사를 다시 불러세웠다.

《색시하고도 누가 왔노라 하지 말구. 새새 물

을것 같으면 거저 부위원장 친구들이 두세명 왔다 고만 전해.》

《알았습니다.》

차는 인차 떠나갔다.

휴양객들이 일을 끝내고 강태무가 물동이를 안고 가서 우물에서 길어온 물에 손을 씻고있을 때에야 차는 돌아왔다.

곤청색아마직작업복에 고무신을 신고 쟁걸음으로 삼작문을 열고 들어서는 녀인을 보자 휴양객들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통키에 몸매가 날씬하고 쟁반처럼 둥글납작한 얼굴에 실웃음을 잔잔히 머금은 녀인이 들어서자 금시 마당이 흰해진듯싶었다.

녀인과 제일 막역한 사이인 김일이 앞에 서서 큰 걸음을 두벅두벅 옮기며 마주 갔다.

《음, 인숙이가 옳구나!》

김일의 석침한 인사말에 머리수건을 벗어쥐고 종걸음으로 다가오던 녀인이 발을 우뚝 세웠다.

《아이?!》

김일의 얼굴을 찬찬히 마주 쳐다보던 녀인의 입이 방긋 열리더니 어망결에 비명같은 탄성이 튀어나왔다.

운전사한테서 남편 친구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허드레웃차림으로 별생각없이 들어섰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앞을 떠 막아선 몸집이 좋은 사람은 너무도 낮이 익으면서도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큰어른이었다.

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기 꺼질번 했던 자기의 삶에 소생의 자양을 주고 행복의 마루에 세워준 잊을수 없는 은인이었다.

《김... 일... 군사위원동지.》

선이 곱게 휘어진 입술이 바르르 떨다가 급기야 이렇게 목메인 부르짖음이 이어졌다.

녀인은 김일이 내밀고있는 손목을 두손으로 감아 잡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다음에는 김일의 큰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인숙이, 진정하오, 진정해. 벌써 열두해 세월이 흘렀구만. 세월의 흐름이란 참 빠르기도 하지.》

반가움에 젖어든 김일의 목소리도 떨렸다.

《서울을 떠나 평양, 중강, 그다음에는 중국동북에 넘어가 지낸다는 말은 다 들었소. 음... 자, 울지 말라구. 여기 어떤분들이 왔는가 보오. 강동무의 옛 상판 최현동지이시오.》

김일이 마구 들먹거리는 녀인의 동그란 어깨를 짚 그러잡아 최현에게로 돌려세워주었다.

강태무는 안해가 삼작문가에 떨군 머리수건을 주어들고 그에게로 급히 다가갔다.

《여보, 내가 늘 얘기하던 군단장동지이시오. 얼굴을 닦고 인사를 드리오.》

녀인이 그제야 남편이 쥐여주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최현의 앞에 와서 절을 곱게 하였다. 그

리고는 눈물에 흠뻑 젖은 목소리로 정하게 인사를 드렸다.

《최현군단장동지! 우리 주인이 어려울 때마다 군단장동지의 이야기를 하군 하였습시다. 이렇게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습시다.》

최현이 녀인앞에서 너른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받고나서 강태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태무야, 니 색시 정말 예쁘장하구나, 엉... 그 전쟁란리통에 리승만이한테 이런 색시를 떼우면 어쩔번 했느냐. 자, 일어나오, 어서... 여기 또 옛 전우가 왔다우. 당중앙위원회에서 검열위원회를 책임지고있대오.》

최현이 한기훈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현의 등뒤에서 다가서는 한기훈을 눈을 잔조롭히 해가지고 바라보다가 또다시 흑- 하고 흐느끼며 입술을 감빤았다. 한기훈이 급히 녀인의 손목을 무릅잡아 꼭 잡았다.

《기성이 어머니,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내가 옛 사단장한테 온다는걸 알았더라면 우리 집사람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을건데... 보고싶었습니다.》

《이렇게 꿈같이 모두 오시다니!... 저도 보고싶었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았던 딸딸 인숙이와 우리 딸이와 동갑이던 인호도... 뭘 생기면 들고오던 인호 어머니랑 정말 그립습시다.》

녀인의 감회깊은 소리에 최현이 껄껄 웃었다.

《하하... 그러고보니 진짜 막역한 사이는 한동무였구려.》

《아, 그럼요. 이 강동무가 전후에 10사사단장을 할 때 우리 두집은 울바자도 없이 남새밭을 사이에 두고 허물없이 지냈습시다. 뭘 지짐 몇작 구워놓고도 방문을 열고 오라가라 불러대며 한두리반에 두가족이 모여앉곤 했지요.》

한기훈이 감개무량한 어조로 지나간 추억을 되살리었다.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넘실거려였다.

저녁머리 금빛해살이 따스한 빛으로 대지를 어루만지었다. 강태무의 집모양새로 어수선했던 휴양객들의 속도 한결 개운해졌다.

《참, 좋구만. 옛 전우들이 이렇게 풍산골에 모여들었으니 이것도 천생연분인것 같소. 최현군단장동지, 오늘 저녁은 인숙동무가 차려주는 상에서 합시다.》

《반대없습다.》

김일의 제의에 최현이 고개를 끄덕이자 녀인이 단통 울상이 되었다.

《예? 식사를 말입니까? 이걸 어찌나, 저는 그저 애아버지 친구들이 왔다고 해서... 이 산골에 와서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서는 첫 손님들이 누구일가 하고 따라오면서도 1부수상동지랑 최현동지랑 모처럼 찾아오실줄은 모르고...》

녀인은 저녁상을 받겠다는 큰어른들의 말에 너무나 황송스러웠으나 한편으로는 속이 철렁해서 말끝을 제대로 가무리지 못하였다.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에 가장 아름답게 자리잡고있는 사람들, 그것도 온 나라가 다 알고 중하게 여기는분들을 대접하기에는 이모저모로 걱정이 앞섰던것이다.

《허허, 뭘 그러오. 우린 벌써 이 집 세간살이를 다 정찰했다오. 독안에 누런 감자는 차있더구만. 그걸 삶으면 되오. 찬장에 당콩 한사발 있던데 그걸 삶아 감자범벅이를 해먹으면 그게 하, 별맛이요.》

너인이 최현의 너스레에 더구나 몸둘바를 몰라 찢찢매다가 제가 이제부터 서둘러야 할 일을 깨닫고 운전사를 눈덕음으로 찾았다.

《아저씨, 나하고...》

《아아, 그러지 마오. 태무, 생각나나? 전쟁때련천에서 감자 두알씩 구워먹고 미8군사령관 위커눔을 죽치던 일이... 그때를 생각하며 풍산감자범벅이를 맛있게 먹어보자구. 우리는 원체 북판감자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인숙동무, 궁상스럽게 바가지를 들고 동냥갈 생각은 말라구.》

최현이 톱툰하게 늘어놓는 위로에 다소 속이 즈분하여진 너인은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부엌으로 찾아들듯 사라졌다.

#### 4

풍산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강태무의 집에 나타난것은 저녁식사가 끝날무렵이었다.

군위원장은 휴양단숙소로 마련한 군인민위원회합숙에 저녁식사를 준비하여놓고 모시러 왔던것이다.

운전사한테서 부러진 굴뚝으로부터 지금까지 강태무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들은 군위원장은 자못 긴장한 눈치였다.

더구나 휴양객들이 정주칸에 퍼놓고 둘러앉은 밥상을 눈여겨보고는 입부터 떡 벌어지고말았다.

풍산땅이 생겨 처음 맛아보는 큰사람들을 감자범벅이로 대접하다니...

《1부수상동지, 최현동지,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주인구실이 안되였습니다.》

당콩이 다문다문 섞여있는 감자범벅을 숟가락이 부러지게 듬뿍 떠서 입에 가져가던 최현이 씨익 웃었다.

《뭘 그러오, 위원장. 때맞춤 왔소. 조금만 발이 짧았더라도 이 빨찌산특식을 맛보지 못할번 했소. 어서 올라오시오. 오래간만에 북판땅의 감자맛을 보니 참말로 감개무량하오. 어서...》

김일기도 밥상옆에서 드리어 앉으며 너인에게 말했다.

《기성이 어머니, 거 범벅이 한사발에 술잔 하나를 올려보내우.》

휴양객들의 식사초대에 돌아설수 없어 군위원장은 너인이 다반에 반쳐온 범벅이 한사발을 받아들었다.

《맛이 어떻소?》

《예, 맛있습니다.》

군위원장은 맛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나 서둘러 대답하였다. 흥성거리는 휴양객들의 밥상에 앉아 울며겨자먹기로 범벅이 몇숟가락 들고난 군위원장은 입가녁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물었다.

《1부수상동지, 휴양일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휴양일정?... 뭘 일정까지... 하여튼 휴양문제는 최현동지와 의논하오. 최현동지가 우리 휴양단 단장으로 선거되었소.》

그런데 여기 주인들은 너무 마음쓰지 마우. 우리는 한 땀새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지내다가 조용히 가겠소.》

《그래도 주인구실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군위원장이 최현에게로 돌아앉았다.

《최현동지, 숙소는 군인민위원회합숙으로 꾸려놓았습니다.》

어제 저녁늦게야 도당통보를 받고 꾸렸는데 불편한게 많으실겁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게 무엇이겠는지 말씀하여주시시오.》

최현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군위원장의 말을 받았다.

《도와줄 일... 가만, 강태무부위원장이 뭘 말아보오?》

《건설부문과 도로, 산림부문을 말아봅시다.》

《산림, 그러니 풍산의 산물계는 다 도통했구만.》

최현의 눈길이 강태무에게로 돌아갔다.

《예, 도통은 못해도 산길들은 다 밝아보았습니다.》

강태무의 대답이었다.

《어, 그거 참 잘되었소. 올해 휴가는 받았겠소?》

《휴가요? 허허...》

《왜 웃소. 휴가도 공민의 권리요. 군위원장동무, 그럼 하나 도와주시오. 강태무부위원장에게 며칠 휴가를 주어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주오. 사냥도 하고싶은데 산판을 모르고 해매다가 봉변을 당할수 있거던.》

《강태무부위원장을 말입니까?》

군위원장이 길게 말꼬리를 끌어가는데 이상스러워 최현의 어성이 약간 높아졌다.

《왜, 거절이요?... 이왕이면 한가지 더 부탁하겠소. 휴양단숙소는 여기 강동무네 웃방으로 해주오.》

《강동무네 웃방?... 하, 이거 참...》

군위원장이 최현의 거듭되는 부탁에 대답이 궁해진듯 뒤더수기를 뱉뱉 굼었다. 김일이 단장의 이야기에 혼수를 들었다.

《나도 우리 단장동지의 부탁에 동감이요.》

군위원장이 쪽 벗어오른 이마에 연필대같은 주름을 말아가지고 생각을 굴리더니 줍 속빠가 있는 대답을 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숙소는 우리 합숙으로 해주십시오. 그다음 문제들은 저희들이 토론하여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 그렇게 합시다.》

최현이 군위원장의 체면을 고려해서 한걸음 물러서서 선선히 응낙하였다.

김일과 한기훈은 최현의 부탁을 놓고 바재이는 군위원장의 거동에 끌리 나으나 단장이 이미 결론을 내린지라 두말 않고 입만 쓰겁게 다시였다.

다음날 아침 휴양단단장과 군위원장사이에 자그마한 충돌이 일어났다.

군위원장이 강태무가 아니라 수염발이 허영계 선정감을 달고 나타났던것이다.

최현이 창졸간에 눈망울을 무섭게 디룩거리었다. 당장 입에서 폭탄터지듯 노성이 터질판인데 《잠깐.》하며 군위원장이 바빠 최현의 웃소매를 잡고 숙소안방으로 들어가 사이문을 꼭 닫았다.

김일과 한기훈도 볼들이 부었으나 최현이 마주선지라 더 간참을 하지 않고 옷방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강구었다.

《뭣이? 숙소도 그냥 여기를 잡으라구?... 안돼!》

최현의 거센 반응이다.

《최현동지, 저희들의 립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무서장동무와 심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주었습니다.》

《뭘? 이거 점점 이상해진다. 우리 숙소문제도, 산길안내자문제도 내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하, 이거 참, 도와의 합의라는건 또 뭐요?》

《최현동지, 여긴 전쟁시기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들어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현의 탁성이 점점 높아져갔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심중해진것입니다.》

《그러니?... 음, 알만 해. 이 최현이나 김일이 전쟁불바다에서 함께 덩굴던 강태무의 연당이를 뒤통수에 받아 풍산땅에서 저승길에 오를수 있다, 이거겠소?》

《하참, 최현동지,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때 김일이 사이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최현동지, 이 사람과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져야 되겠수다. 길안내자가 기다리고있으니 해삿기 전에 지체말고 산에 오릅시다.》

김일의 무거운 제의에 최현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령총을 찾아냈다.

심기가 불편해서 떠난 사냥길이라 잘될리 만무하였다.

이날 그들은 주먹밥을 먹어가며 해종일 산판을 훑었으나 메토키 한마리를 달랑 들고 내려왔다.

강태무일로 최현의 격노가 끝내 터지고야말았다.

휴양 마지막날이었다. 이날 휴양객들은 송아지만한 메돼지 한마리를 자빠뜨렸다.

저녁에 단장은 메돼지고기를 다 삶게 하고 그

동안 휴양생활을 돌보아준 봉사자들과 군일군들을 초청하였다.

강태무 량주와 내무서장도 메돼지고기맛을 보이자며 이름을 찍어 데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상이 차려지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고기국이 들어올 때까지 강태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현이 그냥 나들문쪽을 지켜보다가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강태무부위원장은 고기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요?》

최현의 통명스러운 직통배기말이 힐난조여서 삼시에 술렁거리던 좌중이 물뿌린듯 잠잠해졌다.

군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무슨 핑계를 대려고 《지금 도로보수하는데 가있어... 미쳐...》하고 저저히 엮여가는데 김일이 무겁게 가로챘다.

《도로보수하는데 가있다는건데, 그곳도 풍산땅에 있을테지?》

《예. 그건...》

《누굴 보내 데려오시오, 그 사람 처도. 탄 의미가 없소. 우리 세사람은 그 사람들과 막역한 사이요.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빠지면 메돼지국물이 목에 넘어가겠소?》

한 일군이 눈썰미있게 제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김일과 최현의 기상이 꺾끗하니 누구 하나 폐장을 자극하는 고기국냄새에 울대를 움썹거리면서도 손가락을 들념을 하지 못하였다.

한동안 좌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마침내 최현이 한껏 팽배해진 방안의 분위기를 휘저어놓고야말았다.

푸수하면서도 대쪽같은 성미를 가진 최현이었다.

《어험—》

최현은 목구멍부터 시원스럽게 토틈놓았다.

그는 군일군들을 눈망울을 무섭게 디룩거리며 둘러보다가 김일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김일동지, 내 좀 한마디 하겠수다.》

《예, 어서 하십시오. 나도 할말이 있습니다.》

《음, 동무들! 동무들이 어찌면 이럴수 있소. 강태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이미 말했소. 한마디로 애국자요! 영웅이요!

해방이 되자 통일애국운동에 나섰고 전쟁전해에는 피퇴군 대대사병들을 데리고 우리한테 넘어왔소.

평화시기에 두개 대대가 적대진영에 의거한 일이 동서고금에 있는줄 아오? 그게 떡먹듯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했소. 49년도가 어떤 해요?

리승만이 그때 우릴 먹어보겠다고 북진나발을 불었소. 그런데 우리가 은파산과 송악산에서 그놈들 면상을 호되게 박아주고 해주와 강원도에서 벌린 도발을 분쇄한데다가 강태무가 표무원이까지 휘동해가지고 두개 대대를 이끌고 38도선을 넘은 바람

에 그놈들의 전쟁도발이 다음해로 넘겨졌던거요.

이게 작은 공이요?! 강태무동무는 전쟁시기에도 전쟁후에도 잘 싸웠소. 런던장, 런던장, 사단장으로 공로가 커.

그 사람의 소행이 하도 장해서 우리 수령님께서 금지옥엽처럼 아끼시며 내내 곁에다 항일의 로병들을 붙여주어 쇠소리나는 무사로 키워주셨소. 수령님의 믿음은 철석이야! 우리도 그 사람을 목숨으로 보증할수 있소. 그런데 동무들이 분명 가르쳐보는데도 말이지요. 왜?... 어째서?! 어려운 시절에 부모형제를 다 버리고 목숨걸고 우리 위업을 받들어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이제는 너 없어도 된다는 식인가?》

최현의 이야기가 담담히 시작되었다가 자체력의 금선을 뚫고 격앙되어 올라갔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가슴을 텅텅 두드리다가 그게 성차지 않는듯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칠칠칠칠 때렸다.

속이 욱 끓어오른듯으로 줄기침을 더쳤다.

최현이 얼굴이 벽돌빛으로 되어 그냥 쿨럭거리다가 김일에게 언권을 넘긴다는 손시늉을 하였다.

《그럼 나도 한마디 하기로. 리승만이 강태무의 의거바람에 미쳐버렸었소. 미국놈들이 뱀이 나서 일체 무기공급을 중지하겠다고 올려뒀던거요. 리승만이 분풀이로 촌에 있는 그 사람 부모님들과 형님, 누님까지 잡아다가 다 때려죽였소. 그 사람의 처와 갓난 자식마저 죽여 씨를 말리겠다고 현상금 100만을 걸어놓고 쫓아다니구. 그리고 강태무를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지역에 세차레나 암살단을 들이밀었소. 수령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처자가 상할가봐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동무들이야 알타이 없지. 전쟁이 일어나자 수령님께서 전선사령부 군사위원으로 서울에 가있던 나에게 여러차례 간곡하게 강태무의 처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시었소. 난 그때 전선사령부 관하 모든 지휘관, 정치일군들에게 강태무의 처라는 녀인이 나타나면 즉시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방으로 데리고올데 대한 명령을 내렸소. 명령을 떨근지 이십일만에 인숙동무가 아장아장 걷는 어린애손목을 잡고 내앞에 나타났소.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참 지금도 눈에 선하오. 수령님께서 최전선에서 런던을 지휘하는 강태무를 무조건 서울로 소환하여 열흘간 안해와 자식과 함께 지내도록 하며 그 다음에는 군관들을 호송성원으로 붙여 낮에는 승용차로 오고 밤에는 적들의 폭격을 피하느라고 마차에 태워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중강을 거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시켜 교원으로 사업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소. 이렇게 수령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인숙동무를 동무들은 개수매원을 시켰소. 물론 그것도 누구든 해야 할 일이지만 교원까지 하던 동무를 부디 풀라 그 일을 시킬건 뭐란 말이지요.

동무들, 이번에 풍산을 돌아보니 동무들이 전

쟁후에 고생하며 많은 일을 하였는데 이 일만은 썩 잘못된것 같소. 동무들중에 설날에 술병을 들고 강태무의 집에 찾아간 동무가 있으면 손을 들어보요.》

김일이 돌아오른 심장을 활활 태우며 이야기를 길게 엮어가자 일군들은 뜨거운 감동과 가책에 휩싸여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한기훈동무도 우리 휴양단의 당대표격인데 한마디 하슈.》

《예.》

한기훈이 김일의 말에 기다린듯 자리에서 정중히 일어났다.

그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고나서 열기오른 어조로 말을 뗐다.

《이모저모로 우리가 꽃방석에 앉혀 애지중지해야 할 귀중한 동지들을 동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혈분이 하나 없는 이 북방의 산골에서 동무들이 강태무와 인숙의 동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돼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수령님께서 제가 강태무사단장 밑에서 문화부사단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차례 당부하시었습니다. 강동무가 20대에 사단장으로 오른 동무이니 옆에서 부모가 되고 형님이 된 심정으로 잘 돌보아주자고... 그런데 인숙동무가 넷째를 해산했을 때 시중드는 사람이 없어 예닐곱살난 아들이 밥을 짓고 창피하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강에 나가 기저귀를 빨아 가슴속에 품고왔다고 하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데 있단 말이지요. 이게 풍산골인정인가? 동무들, 이래서는 안됩니다. 북방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우린 백두산시절에 다 겪어보았습니다. 헌데 이 무슨 일이지요?!》

한기훈이 주먹을 허공에 날리며 버럭 소리치고는 입을 다물자 최현이 《예헴.》하고 다시 입소리를 뱉다.

《내가 꼭지를 때놓은 이야기라 한마디 더 해야겠소.》

한기훈이 최현의 소리에 꽤히 자리에 앉았다.

《동무들의 가슴이, 심장이 너무 싸늘하단 말이지요. 심장이 얼음밭에서는 혁명을 못해. 우리가 어떻게 만주의 수림속에서 장장 스무해세월을 넘어온지 아오? 동지에 대한 믿음, 동지에 대한 사랑—이거요. 사랑과 믿음이 없는 혁명은 오래 지탱 못하고 종당에는 주접이 들고 아예 주저앉는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요. 명심들 하시오. 이게 바로 우리 혁명의 명맥이요! 백두의 녀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이제 수령님을 뵈오면 여기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수령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겠는가?!》

최현이 마디마디에 진정과 안타까움과 통분을 담아 준절하게 일군들을 꾸짖는데 방문이 열리었다. 강태무가 큰 키를 구부이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뒤로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박인숙이 따라 들어왔다. 최현은 무춤 말을 끊고 손부터 들었다.

《어, 다들 기다리고있소. 어서 들어오라구.》  
강태무내외가 별스럽게 무겁게 느껴지는 방안공기에 위압된듯 뒤구석을 찾아가며 대답하였다.

《전 여기가 좋습니다.》

《어서, 인숙동무도 이리 나오고.》

김일이 최현과의 사이에 그들이 앉을 자리를 내라고 옮겨앉으며 권하였다.

《저희들이야...》

강태무가 그냥 구석자리에서 서성거리다가 앉아 버리자 녀인은 김일의 곁에 가서 앉지 못하고 오도카니 서있었다. 김일이 다시 다심하게 불렀다.

《강태무부위원장, 여기 나오라는데. 인숙동무도 앉지 못하지 않아.》

《하, 참...》

강태무가 그냥 바재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최현이 부아가 치밀어 벼락같이 욕을 퍼부었다.

《여 태무, 왜 그 꼴이야. 내 니보다 아무리 애비벌 되게 나살 건사한 사람이라도 이런 소리는 니 색시앞에서 하지 말자구 했는데 해야 되겠다. 니 꼴 더 봐주지 못하겠다. 뒤자리만 찾아들고 왜, 어께는 처지고 허리가 벌써 꺼부정해졌느냐. 뭐이 부족해?! 말해봐라, 뭐이 부족한가?! 수령님의 믿음이 부족한가! 왕벌을 내놓았다고 투정이야? 나도 벌을 때놓고 체신상노릇하지 않느냐?》

울화를 터뜨려놓는 최현의 욕설에 그때까지 뒤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강태무가 긴 허리를 벌떡 일구어세웠다.

그리고는 일군들이 깜짝 놀라도록 쇠소리나는 어조로 반박하였다.

《군단장동지, 그 말은 좀 섭섭합니다. 군단장동지야 이 강태무를 잘 아시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서 두해전에 군복을 벗지 못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였습니다. 이제 조국이 통일되면 고향땅에 나가 할일이 많다, 그러니 지금부터 사람들과 사업하는 법을 몸에 익혀라, 군에서부터 시작해라. ...제가 백만천번 죽은들 수령님의 믿음을 저버릴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였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호곡이였다. 심장을 짹 채운 피의 솟음이였다.

북방의 찬바람과 피약별에 검붉게 탄 그의 얼굴에 드릴수 없는 기상과 배짱이 얼얼거리고있었다.

《웁다! 니 그 말 듣기가 참 좋다. 그거면 다시. 그런데?...런대, 사단을 휘몰고 락동강까지 넘나들던 왕년의 그 기세는 다 꺼져버렸는가, 영?! 집은 왜 그 꼴로 만들고 살아, 영?! 청렴결백이라는게 그런건가. 쌀독에 감자만 채워놓고, 찬장에는 먹을만 한게 하나 없구. 그렇게 살자구 부모형제 다 죽이며 공화국을 찾아왔는가, 영?! 눈물이 나서 그 꼴 보겠더냐?! 처가 아이 낳으면 옆집 아낙더러 봐달라고 하면 못 쓴대? 북판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인데 니가 원체 소갈머리가 꼬부라든게 아닌가? 영?!》

그때 박인숙이 최현에게로 소곳이 땀구고있던 고개를 들었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최현에게 눈물에 젖은 소리로 애원하였다.

《군단장동지, 저의 주인을 너무 몰아주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이 언제나 이야기해줍니다, 이만큼 사는것도 호사라구. 술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았느냐고, 수령님께서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는데 더 바랄게 뭐냐고...》

호흡... 군단장동지, 주인을 너무 몰아주지 말아 주십시오.》

녀인이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하다가 끝내 오열을 참지 못하고 소리쳐 울며 방 안에서 달려나갔다.

마당에 서있는 정자나무의 굵은 밑둥을 그러안은 그 녀자의 울음소리가 문새로 흘러들어 사람들의 달아오른 가슴들을 뽀뽀 훑어내렸다.

《다들 저 울음소리의 의미를 새겨들시다.》

김일이 처연한 어조로 나직이 그러나 절절하게 당부하였다. 최현은 녀인의 울음소리에 기가 질려 더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하얀 도배지를 바른 벽에 허리를 붙이고 눈을 꼭 감았다.

그러자 두 눈기로 구슬같은 굵은 방울이 맺혔다가 후두둑 구름노전우에 떨어졌다.

왜놈들이 이튿만 들어도 바지에 피오줌을 싼다고 하던 용맹무쌍한 영웅호걸의 눈에서 똑똑 떨어지는 눈물을 보는 풍산사람들의 가슴에도 뜨거운것이 고여들고있었다.

## 5

김일성동지께서는 휴양단성원들이 평양에 도착하자 집무실로 불러주시였다.

《허, 얼굴들이 별짓별짓한걸 보니 휴양이 잘된 것 같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인사를 즐겁게 받아주시였다.

《예. 수령님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메돼지도 잡고 산토끼도 여러마리 잡았습니다.》

최현이 감사에 넘쳐 자랑을 하였다.

《저런, 메돼지까지. 굉장한 횡재요. 누구의 솜씨요?》

《총쏘는데야 최현동지를 당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이 히죽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히히... 최현동무가 풍산휴양단 단장중임도 맡았는데 단장이 메돼지까지 잡았으니 위신이 있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의 대답에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예. 그 단장노릇이 사실인즉 쉽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제가 단장중임을 맡아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하, 풍산땅이 뭐 대양너머라고 모르겠소. 두

루두루 들어왔지요. 최현동무가 단장이라 해서 난 풍산휴양단 간부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단장노릇이 배찬것은 뭇때문이였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신채 다소 진지한 어조로 던지시 물으시였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최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풍산에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강태무동무를 만났습니다.》

《강태무를? 그래 잘 지냈디까?》

《예, 그런데… 그 동무 신상에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최현이 시름겨운 표정으로 말씀드렸다.

《신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내 안색이 흐려지시였다.

《예. 어깨가 처지구… 거기 본토배기들이 파들리는 눈치가 험동하였습디다. 아니, 더 심중한것은…》

최현이 말을 이어가다가 기침을 쿨럭거리기 시작하였다.

강태무의 이야기를 수령님께 아뢰자니 흥분이 앞서고 가슴이 뻐개지듯 아파왔던것이다.

김일이 최현을 대신하여 휴양단이 북청역에서부터 부닥쳤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이따금 창밖으로 시선을 보내시며 그 무엇인가 심중한 사색에 잠기기도 하시였다.

《풍산을 떠나오면서도 어쩐지 서글퍼지기도 하고 불안한게 참 뒤일이 어떻게 번져질지 괴롭습디다.》

김일이 한시간 족히 이어진 휴양단의 귀환보고를 이렇게 끝내였다.

최현이 그의 이야기를 넘겨받았다.

《그렇습디다. 속이 후련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곳 일군들에게 강태무와 그의 안해에게 돌려주신 수령님사랑에 대하여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은 철석이라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속이 좋지 않아 되게 답새겨주기도 하고… 오는 길에 도에 들려서도 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겠는지 모르겠습디다.》

《음, 거 잘했소. 어떤 사람을 놓고 저울질이야?… 검열위원장은 왜 잠자코 있소. 한기훈동무는 강태무를 만나고나서 무슨 생각되는데 없소?》

《수령님, 생각되는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스럽지 않은게 느껴집니다. 강태무동무와 그의 주변에 가해지는 무언의 압력이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적인 성격을 띠는것입니다. 그것이 혹 전쟁시기와 정전직후에 남조선괴뢰들이 벌린 강태무암살작전의 연장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인차 손을 대야 하겠습디다.》

한기훈이 결괏있는 어조로 자기의 립장을 솔직히 토로하였다.

《하, 검열위원장의 눈이 역시 예리하구만. 좋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만족한 안색으로 전화를 드시였다.

《문건이 다 준비되었소?... 들어오시오.》

인차 문이 열리고 부관이 자그마한 트렁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부관은 수령님의 집무탁에 트렁크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두툼한 문건철들을 꺼내놓았다.

부관이 나가자 수령님께서는 문건철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게 뭇지 아오? 강태무를 포함하는 문건들이요. 간첩이요, 우연분자요, 종파나부랭이요, 별소리가 다 있소.》

순간 **김일성**동지의 안광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그 한점의 불꽃을 일별한 최현의 가슴이 급하게 뛰어들었다.

백두산에서 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섬광이었다.

미제침략자들을 혼비백산하게 하던 백두산호랑이의 격노의 드센 불길이었다.

그것은 온갖 인간세계의 불의앞에서 타협을 모르는 위대한 인간의 심장의 분출이었다.

사랑하는 이 땅과 인민을 지켜 인간의 아름다움과 고귀한것을 지켜 억척불변한 정의와 량심과 의리의 수호자로서의 신성한 사명감이 그 서늘한 광채에 다 비껴있는듯싶었다.

최현은 그 광채에 자신의 심장이 확 끓어오르는것을 참아낼수 없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수령님, 그레 어느놈의 소리입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그따위 횡방질을 하고있습니까?》

김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 강태무가 간첩이라니 세상에 모함을 뒤집어써워도 류만부동이지, 그건 허위날조입니다. 수령님께서 얼마나 품을 놓고 키워오신 사람인데...》

**김일성**동지의 존안에서 서리발치는 의분과 정의감에 설설 끓고있는 일군들의 격동된 모습에 덩달아 가슴이 쭈뼛져서 자리에서 일어난 한기훈이 집무탁으로 다가섰다.

《수령님, 제가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기훈동무, 시간랑비요. 봐야 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괴문서들이요. 내가 보관하다가 검열위원장이 때가 되었다고 할 때 주겠으니 강태무와 그의 안해앞에서 불태워버리시오.》

《알았습니다.》

《자 동무들, 자리에 앉으시오. 앉으시오... 내가 이번에 갑자기 동무들을 풍산에 보내 고생시킨것은 사실 강태무때문이였소. 그 사람이 저렇게 더러운 허물을 잔뜩 쓰고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달프겠소. 더는 참을수 없었소.》



그래서 그 누구도 허물수 없는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있는 항일의 백전로장들을 직접 강태무 가까이 보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한편으로는 그곳 사람들에게 강태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싶었소. 이것이 풍산휴양단을 못게 된 첫번째 리유였소. 동무들에게 구태여 파견전에 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것은 동무들이 내 말까지 듣고 가면 사태분석과 평가에서 객관성을 잃을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소. 헌데 귀환담을 듣고보니 동무들이 백전풍운에 닦이여 넓어지지 않는 량심의 자대를 가지고 옹계 문제를 포착하고 정확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온것 같구만. 강태무가 우리의 믿음을 기동처럼 뺏치고 살고 있다니 기쁘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곳 위원장이 우리 혁명의 명맥이 무엇이며 백두의 넓이 무엇인지 이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보고도 올라왔는데 듣기가 좋더구만.»

《수령님! 그러니...》

최현이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감격에 목구멍이 껍 막혀 입술을 푸드드 떨기만 하였다.

그러니 수령님께서서는 휴양단이 떠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것이 아닌가. 내내 풍산땅을 지켜보시며 강태무의 운명을 놓고 걱정도 하시고 분개도 하시며 세심하신 눈길로 걸음걸음 보살펴주신것이 아닌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최현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둘째, 휴양단에 당중앙검열위원장을 포함시킨것은 위원장이 강태무의 전우라는 사정도 있었지만 보다는 당중앙검열위원회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풍산에 가서 자기 직능에 맞는 일감을 찾아보라는거였소. 위원장동무의 보고 역시 내 마음에 드오. 수고들 했소. 난 우리 혁명의 풍파많은 전구들에서 세월의 눈비를 다 맞아본 백전로장들이 풍산에 가서 자기 임무를 스스로 찾게 될것이며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었소. 내 마음이자 동무네의 마음이 아니오.

동무들, 고맙소. 난 풍산휴양단이 대단히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즉시에 찾아내고 유감없이 풀어내어 한 인간의 파멸을 막아준데 대하여 당과 국가와 우리에게 운명을 다 맡긴 남반부출신의 동무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휴양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

최현이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우러러 진정을 터치였다.

불현듯 그의 시야에 한생토록 넘어온 삶의 편봉들이 줄달음쳐왔다.

한생은 고락이 반반이라고 했건만 돌아보면 좌절과 상실, 시련과 희생, 피와 눈물로 첩첩 이어져온 고행길이었다.

하지만 굵이굵이 쓰라린 우여곡절을 뛰어넘어 마침내 행복의 마루에 오르게 되었다.

무엇이더냐, 일찌기 상가집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설움에 노그라들번 했던 인간을 혁명의 전사로 빛내여준것은...

그것은... 사려 깊으신 안광, 다심하신 손길...

아아, 그것이였다.

그 깊이와 그 폭을 가늠할수 없는 웅심의 바다에 뿌리를 둔 사랑과 믿음이라는 인간 아름다움의 진주를 천품으로 안으신 위인!

그 위인의 품에 안겼기에 오늘의 최현도 김일도 한기훈도 있고 풍산의 외진 벽지에서 백두산이깔처럼 굽힘이 없는 강태무가 있는것이 아닌가.

최현은 목멘 어조로 아뢰였다.

《아닙니다. 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이 혁명이 강태무를 변함없이 충신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하였습니니다.》

김일이 최현의 말을 이었다.

《수령님, 저희들은 풍산휴양단을 무어주신 그 높으신 뜻과 덕망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승전의 피어린 길이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한기훈도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그대로 아뢰였다.

《수령님, 수령님께서만이 무어주실수 있는 우리 3인풍산휴양단이야기는 우리 당력사에 전설같이 전해질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겨끔내기로 가슴속을 짹 메운 감동을 터치는 일군들을 향하여 손을 내저으시였다.

《아, 됐소, 됐소.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말하오. 내가 마땅히 할일을 하는거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그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나 법기관에서는 강태무를 모해하여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혁명대오에서 떼어냄으로써 일심단결의 성세에 파렬구를 내려던 남조선피퇴들의 집요한 심리모략을 짓부셨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그 다음해 봄, 강태무는 량강도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으로 승급조동되었다. 어려해가 지나 강태무는 조선인민군에 복대하여 중장의 군사칭호를 받았다.

당과 국가는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는 정령에 이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주었다.

강태무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군복을 입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믿음과 보답이라는 인간의 고상한 물리를 지켜 인생의 궤도에서 탈선되지 않고 조선의 혁명가답게 살았다.

# 인류전설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한

## 혁명전설의 혁신적면모

박 춘 택

만민이 부르는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는 이 강산은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전설의 화원을 이루고있다.

최근 문학예술출판사에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널리 전해지고있는 혁명전설들을 묶은 혁명전설총서(금수산태양궁전전설편) 《하늘이 정해준 성지》와 혁명전설총서(백두광명성전설편) 《백두산기인설》(발굴정리 김우경)을 내놓았다.

전설은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어 전해져내려오는 구전문학의 한 형태이다. 이 세상에 문자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향과 념원을 신기한 자연현상이나 특이한 생활세대에 담아 환상적으로 묘사한 가지가지의 전설들을 창조하며 살아왔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에게도 인민들의 슬기와 재능, 념원이 담겨진 옛 전설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인간을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보람찬 삶의 길,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준 위인의 출현은 새로운 주제의 전설, 혁명전설을 낳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형상한 혁명전설은 전설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원만히 갖추고있으면서도 종래의 전설에 비하여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 혁신성은 우선 화폭의 중심에 수령을 모신것이다.

수령을 형상한것은 혁명전설의 주되는 특징으로 되며 이것은 오랜 력사와 기원을 가진 인류의 전설 창조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매혹,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수많은 혁명전설들을 낳았다. 조선의 현대력사와 더불어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는 혁명전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반영한 혁명실록인 동시에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 고결한 인간적품모를 격조높이 레찬한 송가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전설총서(금수산태양궁전전설편) 《하늘이

정해준 성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수산의사당(당시)에서 벌리신 혁명활동과 관련한 전설과 일화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는 전설과 일화들 그리고 금수산지구에서 일어난 신기한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전해지고있는 전설과 일화들, 위대한 장군님의 수령님에 대한 충정심의 최고정화인 금수산기념궁전(당시)전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과정에 창조된 전설과 일화들, 만경대가문에 대한 전설과 주체의 최고성지로서의 금수산지구에 깃들어있는 옛 전설과 일화들이 수록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

혁명전설총서 《하늘이 정해준 성지》에 들어있는 혁명전설들은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인적 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전설 《금수산의 종소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어버이수령님과 도이쉴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와의 관계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린저가 오매불망 바라고바란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리상사회였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바라는 리상사회는 만날수도 없었고 말조차 듣지 못하였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까지 그의 가슴속에서 한갓 꿈으로, 념원으로 남아있을뿐이었다.

린저에게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준것은 오직 선을 부르고 악을 물리친다는 종소리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까지도 법왕청이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시의 서북쪽언덕밑에 잡고 늘 바비까노의 종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마련한 자그마한 종을 스스로 울리며 최고의 리상세계를 갈망한것이다.

그는 인생말년에 세상 각처를 돌아볼 용기까지 낸다. 수십억이 넘는 인구가 산다는 넓고넓은 이 세상 미지의 그 어디에 하느님은 그러한 리상국을 펼쳐주시지 않았을가 하는 의혹이 불타올라서였다. 그는 유럽의 이웃나라들은 물론 머나먼 아메리카와 중근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을

탐방하였다.

그러나 십자가가 숲을 이룬 그 나라들에서 린저는 환멸을 느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복음서의 글줄들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울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기만하며 모리행위만 일삼았고 사람들사이에는 사랑이 아닌 반목질시의 감정만 홍수처럼 범람했다. 돈과 영리를 위하여 칼을 빼들었으며 자기를 위하여 남을 벌레처럼 짓밟았다. 그는 절망에 빠졌으며 세상도, 자기의 삶도 하나같이 역겨웠다.

이런 린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이다. 그는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을 돌아보고 《북조선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태세의 천당으로 그리던 세상,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그리던 이상국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의 나라가 현실로 된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며 그는 말씀드렸다.

《주석님, 나는 조선에 와서 한평생 바라던 리상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하느님도 주지 못하는 사랑과 행복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에게 주시였다고, 하느님은 바로 주석님이시라고 격정을 터뜨리는 린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온 인류가 전설적인 위인으로 칭송하며 흠모하는 위인중의 위인이다.

그리하여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그이를 한번 만나뵈우고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어 가장 자애로우신 위대한 인간, 걸출한 수령으로 칭송하는것이며 그들속에서 무수한 전설들이 창조되는것이다.

인간은 위인을 공경한다.

위대한 인간으로, 성인으로 우리 수령님을 흠모하여 린저가 터뜨리는 이 칭송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인의 위대한 사상과 신념, 불굴의 정력과 열정, 태양의 뜨거운 정과 열, 그 모든것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있으며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한생이었다. 우리 수령님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스승이였고 자신은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시였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에 류례없는 난판과 시련을 헤치며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오게 한 근본비결이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의 하루하루를 가장 헌신적인 사랑과 복무의 력사로 아름답고 숭고하게 수놓아오시였다. 이

력사적인 로정에서 수많은 전설들이 태어났다. 전설 《신기한 수첩》도 그중의 하나이다.

인류지성의 절정에서 빛을 뿌리는 아버지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해박한 지식과 다방면적인 식견, 탁월한 령도력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속에서 수수한 밤색의 자그마한 수첩에 대한 전설이 창조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시던 필수품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그 수첩 역시 수수하고 평범한것으로 우리 나라 어느 학용품상점에 가나 볼수 있는 그런 수첩이다. 그런데 그 수첩이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신기한 수첩》으로 알려져 여러가지 전설을 낳고있는것이다.

그 밤색뚜껑의 자그마한 수첩에는 세상만사가 다 적혀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와 관련한 자료가 들어있는것은 물론 여러가지 통계수자들과 력사와 지리, 생물학을 비롯하여 어느 농장의 농사작황과 경험도 적혀있고 산골마을에 사는 어느 개별적학생의 취미와 소질, 지어는 신발문수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문제들이 죄다 적혀있다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외국의 인사들에게서까지 《신기한 수첩》이라고 불리우고있으며 어떤 외국의 인사들은 그 수첩을 《혁명의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며 지어는 전자정보체계인 인터넷에 비유하기도 한다.

더욱 신기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수첩을 보며 가르치심을 주시면 어느것 하나 실현되지 않는것이 없고 언제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승리수첩》이라고 하는것이다.

어느해에 열린 전국농업대회에서 수령님께서 자그마한 밤색수첩을 책상우에 꺼내놓으시고 그 수첩을 보시며 두시간반동안 그해 농사문제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는데 그 가르치심은 한마디한마디가 모두 명언이여서 대회참가자들은 며칠 안되는 기간이지만 하나의 농업대회를 나온것처럼 농사물계가 환해지고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은 자신심이 온몸에 차고넘쳤다. 그해에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류례없는 풍작을 이룩하였다.

어느해 봄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도 수령님께서 그 밤색수첩에 때때로 눈길을 주면서 하시는 가르치심을 받고 가르쳐주신대로 하여 즉시 국난을 타개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 수령님께서 쓰시는 수첩은 《신기한 수첩》, 《보물수첩》이라고 불리웠고 수령님께서 그 수첩을 보시며 주신 가르치심대로 하면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둔다고 하여 《승리수첩》이라고도 불리웠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한번 편히 쉬신 날이 없었고 마음편히 주무신적이 없으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를 뜨거운 마음속에 새긴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념원을 반영한 전설 《로천사무실》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정미와 숭고한 도덕의리, 넓으신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은 《연갑자국수》와 같은 전설이 태어나게 하였다.

혁명전설총서(백두광명성전설편) 《백두산기인설》에 수록된 전설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환희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장군님의 거룩하신 위인상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흠모심을 반영하고있다.

희세의 위인을 모시여 위인칭송의 전설도 많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장군님의 비범한 천품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를 전설적인 위인이라고 한다고 감동깊이 말씀하시였다.

정녕 지니신 자질과 품모가 위대하고 령도가 위대하며 쌓아올리신 공적이 하도 위대하여 전설적 위인으로 칭송받으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 따르며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이러한 절절한 심정이 위대한 현실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하많은 전설을 낳고있다.

전설 《천하가 고요에 잠기게 하다》는 다문 몇 시간이라도 어버이수령님께 휴식을 보장해드리고 싶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감동깊게 반영하고있다.

어느날 밤 북부고산지대의 한 작은 간이역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특별열차가 멎어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 주무시고계시는 수령님께 한순간의 휴식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열차를 이 자그마한 산골 간이역에 멈춰서게 하신것이다. 역장을 만나신 장군님께서서는 찬이슬 내리는 역구내에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수령님의 휴식을 지켜 거니는 이밤이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 순간이 자신께서는 제일 좋은 휴식이라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신다. 수림속 그 어데인가를 더욱더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여기 바람이 참으로 세다고 하면서 밤새들이 매일 밤 저렇게 우는가고 물으신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오늘 밤만은 저 바람소리와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바람소리, 새소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휴식을 방해할가봐 걱정하시는것

이다.

이 몸이 저 바람소리를 막는 한그루의 방풍나무라도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생각할수록 더욱 세차게 들러오는것만 같은 바람소리가 자기의 잘못인듯싶어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만수역장의 눈앞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것이다. 갑자기 실금 같은 번개가 번쩍하며 캄캄한 밤하늘을 쭉 가르더니 때아닌 동풍이 일어 구름들이 서쪽으로 몰려가고 수림을 뒤흔들며 기승치던 서풍은 어느새 사그라졌고 바람이 자니 새들도 곧 울음을 그치였다. 온 천하가 끝없는 고요에 잠긴것이다.

지극한 마음을 지니신 장군님께서 자연조화를 다스리는 술법을 쓰시여 산새들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였고 시간을 조절하는 술법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휴식을 연장해드리시였다고 생각하는 만수역장의 가슴속에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활화산처럼 솟구쳐올랐다.

전설은 철길연선의 자그마한 산골마을 사람들이 옛말처럼 하고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천지조화를 다 통솔하시는 하늘님과 같은분이심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총정의 마음은 융암처럼 뜨겁고 백두산의 흰 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것이다. 전설 《정일봉에 별들이 새겨진 이야기》는 정일봉절벽에 아로새긴 불멸의 글발은 천출위인이신 그이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총정의 정화임을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다.

혁명전설의 특징은 또한 백두산위인들의 혁명활동과정, 현지지도과정에 실지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행로에는 보통인간으로서로는 도저히 상상이 가닿지 않는 비범성과 천리해안의 선견지명, 예지가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기에 실화 그자체가 전설로 전해지고있는것이 많다는 사정파도 관련되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문화유산보존에 대한 탁월한 사상을 감동깊게 보여주는 《고려왕실가문의 족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베오그라드의 추억》, 한평생을 두고 자신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였으며 인민들과 똑같이 평범하고도 겸박하게 생활하신 수령님의 고결한 인민적품모를 구가한 《수령님의 생활비》, 《중지당한 구내길보수공사》, 《수령님의



실내화》, 하늘이 낸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대성인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담은 《지구를 돌아온 조의렬차》 등 전설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과정, 현지지도 과정에 있었던 역사적사실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있다.

인간은 위인을 따른다.

사상도 리념도 위업도 제도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꽃피우고 기쁨도 눈물도 정도 사랑도 동지와 인민과 함께 나누시면서 한평생을 빛내여오신 위대한 인간, 절충한 수령의 영상을 가슴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역사적사실에 매혹되고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흠모하여 이처럼 수많은 전설을 창조하고 전하고있는것이다.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지략으로 적들의 모략책동을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김정일**장군님의 령장의 풍모에 대해서는 남조선 인민들속에서도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많이 전해지고있다. 《파산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도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어느해 미제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을 때 처음부터 실패를 거듭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지역 해외침략기지에서 전투폭격기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여 복침을 가당한 지상목표타격연습이 수포로 돌아갔고 공중급유연습을 하던 여러대의 비행기들이 추락했으며 도하작전연습에 동원된 배가 뒤집혀 거기에 탔던 놈들이 모두 물귀신이 되고말았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원인을 알고있었다. 축지법을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술법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장군님께서 축지법으로 시간을 혼란시켜 군사훈련을 뒤죽박죽이 되게 하셨다는 한 로인의 말.

합동군사연습이 있기 전날 축구공만 한 인공위성이 태평양상공에 떠있었는데 그것이 조화를 부렸고 그 신기한 위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띄우신것인데 그것이 축지법을 썼다는 짧은 사람의 말.

남녘땅에서 이런 전설이 생겨나 널리 퍼지고있는 것은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전설의 특징은 또한 지난날 영웅호결과 명장, 위인들에 대한 전설은 한 인물에 대해 불과 몇편, 그것도 당대가 아니라 후세에 가서 그들의 공적과 위훈이 전해지면서 후대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생겨난것들이지만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전설들은 위인의 생존시 당대에 벌써 동시대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창조되어 웅근 하나의 전설군을 이루고 널리 퍼지고있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이 수많은 창작되고 전해져 백두산전설군을 이루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전

설이 많이 창조되어 백두산녀장군전설군을 이루고 있으며 수령님의 인민적풍모와 위인상을 폭넓게 보여주는 수많은 전설이 창조되어 금수산태양궁전전설군을 이루고있고 선군혁명의 긴긴 세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펼쳐보인 전설들이 수많은 창작되어 백두광명성전설군을 이루고있다.

혁명전설은 창조범위에 있어서도 옛 전설과 구별된다.

옛 전설은 민족단위로 창조되었다면 혁명전설은 민족단위를 벗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도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옛 전설과 확연히 구별되는 현대인들의 사상감정과 사고방식, 미학적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한 혁명전설이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전설문학은 오래동안 물려오던 허황한 환상의 틀에서 벗어나 주체시대, 선군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설형식을 찾게 되었으며 문학사적인 진보를 이룩할수 있게 되었다.

백두산위인전설은 민족적궁지의 발현이고 전인민적효모와 매혹, 칭송의 표현인것으로 하여 커다란 인식교양적감화력을 발휘하며 주체문학, 선군문학 발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과 견인력은 크다.

그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우리 인민의 똬어 넘치는 환희와 격정의 발현이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의 분출이며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사고방식과 사상감정의 표현인것으로 하여 거기에 체현된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정서와 감정, 인민적인 예지와 기지 그리고 구수한 이야기식흥미와 통속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미치는 견인력과 감화력의 폭이 아주 넓으며 침투력이 강하다.

뿐만아니라 혁명전설을 대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공감으로 하여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의 구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백두산위인전설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은 전설속에 탄생하시고 전설속에 성장하시여 전설속에 혁명의 길,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신 탁월한 위인들이시며 천출위인들의 혁명력사는 세상에 다시없는 위인전설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그 시원을 두고 선군시대에 활짝 피어나는 혁명전설속에 민족과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시야말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전설적위인이시라고 우리 인민은 격조높이 말하는것이다.

하늘이 낸 백두산위인들을 모시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전설이 태어났고 만민의 칭송속에 혁명전설은 오늘도 래일도 끊임없이 창조되며 길이 전해 질것이다.

# 두자루의 권총과 오늘

백 성 근

사람들은 흔히 노동도구의 발전력사로 인류의 발전력사를 논하곤 한다.

허나 나는 여기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서 인류의 발전력사를 무기의 발전력사로 논하고싶어진다.

우리가 생산한 저격무기로부터 각종 포와 탱크, 장갑차, 함선과 비행기, 전락로켓에 이르기까지 수천점의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이 전시된 전시홀들을 끝없이 계속 걷고만싶어졌다.

도창무기를 쓰던 시대로부터 화약무기를 쓰는 시대로의 발전, 화약무기를 쓰던 시대로부터 장갑무기와 전락로켓무기, 핵무기를 쓰는 시대로 변천되는 전과정이 다시금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인류는 자기가 발명한 각종 노동도구들로 만든 재부들을 각종 무기들로 마스코 불태우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옳은 정전과 사상, 주의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진 문화적재부들을 창조하고 대대손손 자기의것이라고 자랑하고싶어도 그것을 지켜낼 자기식의 위력한 무기가 없을 때에는 어쩔수없이 파괴당하여야 하고 빼앗겨야 한다는것을...

한때 일부 사가들은 고구려력사가 끝난 이후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잃음의 역사, 짓밟힘의 역사, 무너짐의 역사라고 개탄하였었다.

어찌하여 일찌기 훌륭한 상무기품을 창조했던 우리 민족이, 남먼저 화약무기도 만들고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던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강탈당해야 했던가.

애국심에 불타는 인민은 있었으나 그들을 모두 무장시켜줄 현대적인 무장장비가 없었고 더우기 침략자가 감히 넘볼수 없게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이끌어줄 결출한 령수가 없었기때문이었다. 국권은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이 아니건만 역신들은 제 한몸의 부귀영달을 위해 서슴없이 그것을 팔았고 그 광경을 뵈히 보면서도 변변치 못한 무장을 갖춘 군대는 국권을 지켜내기는커녕 왜놈들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이제는 남들이 가지고있는 무장장비들을 다 가지게 되었을뿐아니라 성능면에서는 외국산장비보다 더 우월한 무장장비들도 척척 자체로 만들어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그 하나하나의 무장장비들을 바라보노라면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떠오른다.

이 세상 모든것이 변해도 총만은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동지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새 조국건설의 그 나날에도 식찬가지수를 절약하시고 새옷 한벌 사입지 않으시면서 저축한 자금을 군건설을 위해 기증하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도 어려온다.

희생되는 순간에도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하던 항일혁명투사의 절절한 웨침, 총이 부족하여 남해를 앞에 두고 피눈물을 뿌리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라야 했던 1950년대의 전사들의 절규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한점한점의 무장장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은 바다없이 깊어갔다.

그렇다! 이 집은 결코 국산화된 무장장비들을 진렬한 보통의 박물관이 아니다.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말없이 시위하는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애국관, 선군의 업적관인 동시에 백두산천출명장들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고 간고분투하면서 피와 땀, 온넛을 바쳐 이룩한 조선민족의 존엄관이다.

이 집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이 진렬되어있지 않다. 력사적인 4월 25일을 안아온 그 두자루의 권총이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그 두자루의 권총이 2천자루, 2만자루로 새끼치고 또 그 총들이 민족의 존엄과 세계의 정의의 수호할 총검의 숲을 이루게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나에게는 우리 식의 현대적무장장비들이 진렬되어있는 이 집이 통채로 거대한 두자루의 권총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이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이 있기에 다시는 《시일야방성대곡》의 구슬픈 울부짖음이 이 땅에 메아리치지 않으리라. 이 땅에 신천과 수산리의 참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조국통일대전의 승리의 축포성도 이 한점한점의

# 불어다오 백두의 칼바람이여

## 광명철

하늘땅을 내려치며 후려치며  
투사들의 신념을 억척같이 버려주던  
그날의 백두의 칼바람은  
혈전으로 날이 밝고 저물던  
그 세월에만 헤쳐야 했던가

여느 사람들 같으면  
단 며칠도 견디어내지 못했을  
험난한 그 싸움의 길에  
걸음걸음 억센 의지를 가다듬어준 그 칼바람은  
정녕 그날의 투사들만이 맞아야 했던가

오늘도 백두의 산악을 휩쓸며  
거대한 밀림의 바다에 사나운 포효성을 터뜨리며  
끝까지 가리라던 그 길에  
끝까지 이어갈 이 땅의 후손들을  
끝없이 부르고 또 부르는  
백두성지의 칼바람이여

저 칼바람속엔 있어라  
천교령을 넘으시던 우리 수령님  
쓰러진 대원들 한사람 또 한사람 불러일으키시며  
몸소 지어부르시던  
그날의 《반일전가》를 품어안은  
사연깊은 그 바람도

저 칼바람속엔 있어라  
고난의 행군길에 몸소 우등불을 피우시고  
대원들 가슴가슴에 한흙의 미시가루 안겨주시며  
래일의 승리를 더 깊이 다져주시던  
그날의 불멸의 화폭을 새겨안은 그 바람도...

말해주고있다 오늘도 백두의 칼바람은  
이 칼바람앞에 무릎꿇은자 혁명의 배신자되고  
이 칼바람 기어이 이겨내고 길들인 사람들  
투사로 애국자로 영생의 삶 누리고있음을

피끓는 이 심장 두드리며 칼바람은 웨치고있다  
우리 수령님따라 백두에서 시작한 성스런 이 길에  
눈보라를 헤쳐야 할 세대 따로 있고  
꽃길만을 골라디더야 할 세대 따로 있지 않음을

시련과 시련을 헤쳐야만 가닿을수 있는  
혁명승리의 길  
고난과 고난을 맞받아 뚫고나가야만  
높이 휘날릴수 있는 최후승리의 기발  
투사들이 앞서간 자옥자옥에  
세대의 자옥을 값높이 덧놓으며  
우리는 백두의 칼바람을 달게 맞노라

불어다오 불어다오 백두의 칼바람이여  
그날처럼 더욱 세차게 더욱 사납게  
온갖 쓸모없는 허접쓰레기들을 모조리 날려버  
리고  
오직 순결한 혁명적신념만이 남아  
거세차게 활활 불타오르게 해다오

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 가리키시는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길에  
우리 날마다  
백두의 칼바람에 마음을 끝없이 다스리고 버리며  
억척의 투사들로 이 세기를 떨쳐가리라

무장장비들이 내뿜는 강력한 불줄기로 우리 가슴  
후련히 쏘리니 세계여, 그날을 지켜보라!

이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  
부한다.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으려거든 이 장비들을 더  
억세게 틀어쥐라! 영원한 승리자로 존엄높은 삶을  
원하거든 이 장비들을 더 계승발전시키라!

이 한점한점의 귀중한 무장장비들을 피땀을 바쳐  
만들어내고 억세게 틀어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 온 세계에 대고 이렇게 당당히 선언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을 감히 짓밟으려는자, 우리의  
신성한 령토에 감히 불질하려는자 지구상 그 어디  
에 있건 가차없이, 철저히, 무자비하게 소멸해버  
리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  
자루의 권총을 밀천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을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소유한 불패의 군사강국, 선군의 내  
조국에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있다.



## 주 설 응

오늘 우리 병원에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도입되었다.

이 커다란 사변을 맞고보니 이제는 내결에 없는 사람, 못 잇을 사람의 귀중한 모습이 우렁이 떠온다.

### 1

《이름 리은숙,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7년 6월 14일(나이 33살) 직장직위 군초물공장 로동자...》

환자의 병은 긴급한 수술을 요구하고있었다.

나는 병력서를 천재 창문으로 다갔다.

(정말 너에게 티끌만 한 공명도 없어?)

마치도 창밖에 다른 김순영이 있는듯이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없다.

그럼 가능성은?

가능성은 물론 있다. 그러나 가능성과 현실성의 거리가 제일 먼것이 의료부문이다.

충충이 드러운 무거운 구름을 배경으로 한그루의 은행나무가 세찬 바람에 날려갈듯이 태질하는 잎사귀들을 굽고 가는 가지와 아지들로 짝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듯 요동치고있었다.

런 사흘째나 비를 퍼붓고도 아직 시원치 않은지 하늘은 여전히 뿔통사나운 인상이다. 잔비를 머금은 바람이 폭우를 기다리라고 창유리를 두드렸다. 나의 심중도 하늘과 다를바 없었다. 아니, 저 은행나무라 해야 옳을것이다.

(파연 수술을 한다면 성공할수 있을까?)

우리 과의 기술력량으로 그런 수술을 한다는것은 자신도 놀랄만 한 결심이었다. 내가 너무 과신하는것은 아닌지.

눈썹리 아득한 곳에 솟아있는 하산령이 어슴푸레 안겨왔다.

할아버지형이라고도 불리우는 저 령을 볼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오래 살고싶은것은 사람의 영원한 소원이란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불로초를 캐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그 길엔 아득히 높은 눈산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산을 누구도 넘을수가 없었던단다. 그래서 아무도 불로초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바로 저 하산령이 나와 우리 병원의사들에게는 전설속의 눈산과 같은것이였다. 철길이 없는 우리 군에서 철차를 리용하자면 이웃군까지 백여리를 나가야 하는데 그 입구에 길을 지켜선 파수병마냥 우뚝 솟아있는 하산령은 경사가 급하고 늪은이의 주름같은 잔굽이가 하도 많아 폭우나 폭설에 길이 종종 끊어지곤 하여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제때에 큰 병원에 후송하지 못할 때면 아무리 할아버지의 령이라 해도 고올리 만무한것이였다.

게다가 그토록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승리적으로 결속했다지만 아직도 부족한것이 적지 않아 환자를 한명 후송하자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저 령이 더욱 미워지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안타까와하는것은 그것때문만이 아니였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그것두 동무가?... 파장동문 어째서 의사들에겐 국가계획이 따로 없는지 생각해보았소?》

아침에 기술부원장이 머리를 가로흔들며 한 말이였다.

속이 달아올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옳은 말이다. 물론 환자수를 미리 예측할수도 없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한 측면이라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부원장의 말은 곱씹을수록 산나물처럼 감칠맛이 나는것이 아니라 부자덩이처럼 쓰고 미끈미끈한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를 알고지내면서 처음으로 느낀 야릇한 감정이였다.

왜? 어째서?

40년가까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기을



인 그의 정성과 의술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여 우리 군사사람들은 원장이나 초급당비서는 잘 몰라도 기술부원장은 누구나 알고있어 이제는 소학생들까지 그를 만나면 인사를 꾸벅 하는 정도였다.

더구나 나에게 있어서 리병식기술부원장은 비단의 술높은 선배이거나 기술적지도를 받는 상급만이 아니었다.

나의 아버지와 친형제처럼 자란 그를 나는 코흘리개때부터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다. 친삼촌이 둘이나 있었지만 부원장은 그들보다도 더 가까운 삼촌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그를 좋아하고 모두다 칭찬하는것이 나에겐 기쁨이라기보다 자랑이었다.

우리 두 가문의 련계는 매우 오래고 깊은것이였다.

《어머니는 눈을 감을 때까지 너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왔던 전쟁직후의 일을 추억하군 했다.》

두 가문의 깊은 련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부원장이 하는 말이였다.

내가 갓 마흔에 과장으로 자라날수 있었는데는 밑거름이 되려고 바친 부원장의 노력도 깃들어있었다. 나를 당당한 실력가로 키우기 위해 그가 바친 열정은 추억할 때마다 참으로 깊은 감동을 자아내곤 한다. 물론 그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비단 이런 관계때문에 생긴것만은 아니었다.

병원에서 그의 지위는 거의 절대적인것이였다.

그는 의술의 최고경지 인술의 소유자로 인정되고 있었고 사업과 생활에서 별로 따지고들만 한 흠이 없어 그의 인생을 일부 의사들은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것이 무리가 아니였음을 나는 2년전에 더 깊이 알수 있었다.

과장으로 임명된 직후 파에 비치되어있는 사망환자병력서를 훑어보던 나는 부원장이 우리 파 과장으로 있었던 10년간의 사망병력서가 두건밖에 없는것을 보고 몹시 놀랐었다. 그리고 감탄했다.

그날 퇴근길에서 아깍없이 터쳐놓는 나의 찬사에 부원장은 은테안경속에서 빙그레 웃음을 지을 뿐이였다.

비결이 무엇인가고 자꾸 물어도 묵묵부답이던 부원장은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진중한 표정으로 한마디 해주었다.

《순영아, 명심해라. 설사 환자는 포기해도 의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걸 말이다.》

그때 나에겐 부원장이 하산령마루에 서있는듯이 느껴졌었다.

그런 나였기에 얼마전에 그가 년로보장을 받겠다고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 그달음으로 뛰어갔었다.

《그게 정말이예요? 의사나 환자나 할것없이 모두가 다 삼촌의 은퇴를 바라지 않고있어요.》

《과장동무, 혹시 그 요구에 사심이 비진게 아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살짝 핏기였었다. 그 순간에도 나에 대한 그의 요구성은 변함이 없

었던것이다.

그는 지금도 정문앞까지는 《순영》이라고 부르다가도 클로르포름냄새만 나면 곧 《과장동무》라고 어조까지 딱딱해지곤 했다. 병원안에서는 단들이 있을 때조차 실무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아 왕왕 화가 폭발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는 그의 절제에 은근한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심정을 알아차렸는지 그가 웅글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나두 늙었지. 시력두 딸리구 육체두 여느때같지 않아. 그러다가 내 사소하게나마 실수라두 한다면... 의사란 원체 단 한번일지라두 실수를 몰라야 하는 법이지.》

그제서야 나는 기술부원장의 속깊은 마음을 알아차렸다. 하긴 세월은 어쩔수 없게 그의 육체에도 늙음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마에 얹힌 잔주름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훑어내리는것이였다. 그는 나에게 인간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우리 의사들의 책임감이 어느만 한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는것이다. 고마운 마음이 앞설수록 그와 더오래동안 함께 일할수 없다는 아쉬움만이 가슴밀골을 설설 꿰게 했을뿐이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그러한 수범이 나로 하여금 더욱 이번 환자를 놓고 수술이나, 후송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쉽지 않은 길을 택하게 했던것이다. 그런데 적극 지지해줄줄 알았던 부원장에게서 거절을 당할줄이야...

그도 나의 기술을 못미더워 그랬을까? 아니면 혹시 수술도중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나를 위한 따뜻한 로파심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느닷없이 두건밖에 없었던 사망환자병력서가 눈앞에 얼른거리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일까?

나는 언제나 명백하고 환하게 안겨오던 그의 모습에 이 순간엔 비물이 흐르는 내앞의 창유리처럼 흐리터분해지는것만 같아 애써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내가 무슨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절대로 그럴수 없어. 암, 그럴수 없구말구...)

## 2

리은숙환자에 대한 기술협의회가 열린다는 전화를 받고 원장방으로 가던 나는 마주오는 기술부원장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나를 보자 그는 곧바로 다가왔다. 웃이 화락하니 젖은것을 보니 우산도 쓰지 않고 어딘가 급히 나갔다가 오는것 같았다.

《지금 군도로보수대가 령길을 보수하고있소. 늦어도 래일 오전까지는 길이 나진다오.》

그러니 하산령까지 갔다온 모양이였다.

《그렇게 될가요? 일기예보를 들으니 오늘 밤까지도 무더기비가 계속 내리겠다고 하던데...》

그는 비물이 똑똑 떨어지는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기며 빙그레 웃었다.

《힘은 들겠지. 내 그래 도로보수대사람들을 만나서 급한 사정을 두루 이야기했소. 그들도 최대한 시간을 다그치겠다고 했소.》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듯 흰하게 웃었지만 내심에 잠재되어있는 막연한 불안까지 다 가셔낼수는 없는것이다.

《그건 그렇고, 환자의 상태는 어땠소?》

나는 대답을 못하고 멀거니 쳐다만 보았다. 과연 몰라서 묻는것인지... 그러다 자신을 자책했다. 내게 언제부터 부원장의 말에 까박을 붙이는 그런 좋지 못한 버릇이 붙었을가 하는 환멸감때문이었다.

나의 심중을 들여다본듯 침착한 어조로 그가 말했다.

《약국장에게 비상약을 총동원하라고 지시를 주었으니 어떻게 하나 래일... 래일 오전까지는 견지해야 돼, 환자도 그리고 우리도...》

《그다음은요?》

나는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눈길이 굳어졌던 부원장이 어정쩡한 미소를 지었다.

《과장동문 그걸 몰라서 묻소?》

실무적인 그의 말투에 습관된 나였지만 이 순간엔 야릇해보이는 웃음과 마찬가지로 그 말이 것처럼 의지하고싶었던 부원장에 대한 믿음의 금선이 끊어질듯 팽팽 켜지게 하였다.

반백이 넘은 머리칼밑의 비물에 흠뻑 젖은 이마와 턱에 나무의 년륜처럼 잡힌 주름들이 마치도 예순다섯개쯤 되는것은 아닌지... 그가 과연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것조차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다.

어쩐지 런민의 감정이 갈마들었다. 늘 광채를 뽐던 눈도 전등불밑에 봐서 그런지 불꺼진 창문을 런상시키는것이였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또렷이 물었다.

《그러다가 만약... 환자가 마지막기회마저 놓친다면 그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한 말이였지만 그는 흠칫 놀랐다. 나도 속을 뻘드름히 드러내보인것만 같아 얼굴을 붉히며 입술안쪽을 잘근거렸다.

몇번 헛기침을 하고난 부원장은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누구를 책망하려고 할 때마다 그가 하는 이 동작을 이제는 우리 병원의 안경건의사들은 모두가 모방하고있었다.

《이제 말이요, 과장동무.》

그는 약간 갈리는 음성으로 안경알에 시선을 박은채 말했다.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는것은 좋지만 두려워하면 안되오. 오히려 질러가자던 길이 예도는 길로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서도 아픔을 느낀듯 그는 눈을 찌프렸다.

그 말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못할 처지여서 나도 입술만 피나게 깨물었다. 여전히 그가 나를 폭민지 못한다는 서러운 사실만이 가슴속에 고패칠 뿐이었다.

잠시후 천천히 안경을 쓴 부원장은 나직하나 딱

잘라 말했다.

《좋소, 책임은 내가 지겠소. 그러니 후송준비나 잘해놓으시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릴 때마다 황황히 메꾸어오던 부원장에 대한 신뢰의 담벽이 드디어 허물어진듯싶었다.

책임을 진단 말인가? 무슨 책임? 어떻게?

과연 인간의 생명을 《책임》이라는 두글자에 다 담을수 있단 말인가?

헛 빈 가슴에는 공허만이 바람처럼 불어쳤다. 40년을 쌓아온 탑을 제 손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는 그가 안타까웠다. 하여 나는 모진 마음을 먹고 아픈 말일지라도 하지 않을수 없었다.

《부원장동지, 우린 살아있는 생명밖에는 책임질수 없다고 봅니다.》

《웁은 말이요.》

《그래서 환자의 심장이 뛰는 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술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찌겠소? 수술은 실험이 아니란 말이요.》

가쁜 숨소리가 가르릉거렸다.

《그 녀성도 동무와 같은 두 아이의 어머니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확 달아올랐다.

《만약 그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목에서 단내가 풍기여 말을 마저 할수가 없었다. 고개를 외로 숙인채 가볍게 떨리는 부원장의 손을 바라보느라니 방금 한 말이 후회까지 되는것이였다.

선배이고 병원의 로장이며 상급인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나를 위해 마음을 기울인 《삼촌우의 삼촌》인 그에게 주제넘은 훈시와 뱀통을 부리다니... 이렇게까지 내가 교만방자해졌단 말인가?

계단에서 발자국소리들이 울렸다.

협의회에 참가하려고 과장들이 모이는 소리였다.

나는 마주보기 거북했지만 눈길을 들었다. 그는 이 한순간에 더 늙은것만 같았다. 쪼프린 그의 눈에 비긴 나에 대한 실망의 빛이 안경알에 확대되어 어른거렸다.

《만약 책임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 만장탄된 권총이라도 있느냐?》

(어찌면 그 말을...)

무딘 수술칼에 찔리운것 같은 아픔에 가슴이 떨렸다.

만장탄된 권총! 하많은 의미를 담고있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생면부지의 그와 우리 두 가문을 하나의 혈연으로 매듭짓게 한 소중하고도 잊지 못할 사연임이 분명하다. 언제나 서로가 가슴속깊이 새겨 안고있으면서도 쉽사리 터놓지 않던 그 이야기를 지금의 이 순간에 꺼내놓은 그의 마음이 리해된다. 아니, 리해되면서도 리해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것이 더욱 정확할것이다.

나는 뭐라고 항변하려고 입을 오물거렸으나 끝내 목소리를 터치지 못하였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오고있었다.  
그러나 흰 위생복만이 얼른거릴뿐 누가 누군지는  
가려볼수 없었다.

### 3

《지금이 어느편에 경험소리요?》  
이때까지 진행했던 복부내장수술에서 얻은 경험  
에 대해 이야기하자 약국장이 한 말이었다.  
일부 사람들의 눈빛에도 못마땅함이 어려있었다.  
옳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지금은 정보산업의 시  
대이다. 다른 과학기술부문과 마찬가지로 의학도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다. 유전암호들이 해독되어  
DNA검사로 몇십년후에 걸리게 될 병까지 미리 진  
단하고 레이자칼이 수술칼을 대신하여 무혈수술이  
가능하게 된 오늘날 경험이라는 말자체가 고리타분  
의 대명사처럼 들리는것도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경험주의는 천리마시대때부터 준마의 발  
통에 보수주의나 기술신비주의와 더불어 된타격을  
받아온, 하면서도 어려운 매일수록 한사코 머리를  
쳐드는 낡은 사상관점이라는것도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험을 무시하거나 또한 경험과  
경험주의를 동일시하는것은 엄청난 착오이다. 어떤  
경험인지가 문제이지 경험 그자체가 다 문제시되  
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 이러한 착오들이 더  
러 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진취성과 판로주의  
를 혼동하고있으며 일욕심과 공명을 분간하지 못  
하는것이다.

《경험과 경험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나의 말에 약국장은 빙그레 웃었다.

《피장파장이 아닐가?》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실력을 갖춘데다 우등등  
한 얼굴에 늘 웃음을 짓고있어 《호인》이라 불리  
우는 그를 나도 몹시 존경했다.

《저는 경험과 경험주의는 외척관계라고 생각하  
는데요.》

새침한 나의 말에 약국장은 껄껄 웃었다.

아마 회의장만 아니라면 그는 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또 매력을 발휘하는군. 고집을 쓸수록 더 인상  
적있게 순영이거던.》

그뒤에도 여러명이 나의 수술제안에 대해 미타하  
다는 립장을 표명했다.

물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우  
리 병원에서 두명밖에 안되는 여성과장중 한사람  
인 고려치료과 파장은 같은 여성으로서 나에게 신  
심과 용기를 주기 위해 고집과 주장의 차이까지 력  
설했다.

《과장선생의 주장은 결코 고집이 아니예요. 진  
리에 대한 고집은 주장이고 허위에 대한 주장은 고  
집입니다. 그러나 과장선생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계속하여 그는 지난 시기 자기 부문에 정통하

고 또 풍부한 립상경험을 체득하기 위해 낮과 밤  
을 패워온 나의 노력과 정열에 대하여 두루 렬거  
하는것이였다.

새로 온 초급당비서도 그의 의견에 수긍했다.

《웁습니다. 단순히 고집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과장동무, 수술에서 성공할수 있다는 기술적담보에  
대해서 여기 동무들이 충분히 납득될수 있게 구체  
적으로 말해보시오.》

모두의 눈길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  
들의 눈에서 불줄기가 쏟아져나오는듯 얼굴과 전신  
이 따끔거렸다.

그들은 경험적담보가 아니라 기술적담보를 요구  
하고있는것이였다.

물론 기술적담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입술을  
감쳐문채 당비서의 곁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기술부  
원장만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별스레 등이 굽어보  
이는 그는 두손을 깎지깎채 마치도 이 협의회에 상  
관없는듯 한 인상이였다.

눈을 찌르는 그 모습에 반발심이 울컥 치민 나는  
발작적인 흥분이 끓어올라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였  
던 의학기술적담보서를 책철뚜껑으로 덮어버렸다.

나는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입니다.》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모신 족자에 눈길을 준채  
또다시 《경험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지  
난 세기 중엽의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  
다듬고있었다.

《담보는 있습니다.》

드디어 나의 눈앞에는 또다시 쏟아지기 시작하  
는 뽕얀 비속에 싸인 하산령이 아니라 눈보라 몰  
아치는 북변의 이름모를 험준한 산골짜기가 안겨  
오기 시작했다.

### 4

40대의 이마벗어진 군의장이 편대군의소를 이끌  
고 랑림산줄기의 어느 한 골짜기에 전략적인 일시  
적후퇴의 마지막짐을 푼것은 1950년 11월초였다.

평야를 떠날 때까지만 하여도 사색을 불려일으  
키는 단풍이 한창이였는데 거기에는 벌써 한겨울이  
였다.

눈이 내리고있었고 《씨비리바람》이라고 명명한  
골바람은 인테리의 서툰 재간과 간호원들의 나약한  
팔뚝으로 엉성하게 지어놓은 천막을 통채로 날려버  
릴듯이 미치광이처럼 울부짖었다.

군의소에는 립상경험이 많지 못한 녀준의와 새로  
입대한 처녀 둘을 포함한 간호원 여섯명뿐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젊은 군의력량과 경험있는 간호원들  
은 모두 재진격을 준비하고있는 대대, 중대들에 다  
나가있었던것이다. 그러다보니 군의장은 암탉들을  
거느린 수탉모양으로 되고말았다. 거기에 의료설비  
나 약품도 없거나 모자라는것이 많았다.

극악한 조건으로 보면 얼음판에서 밥 지어먹기  
보다 더 어려웠다. 그런데 천막을 전개하기도 전  
에 환자가 들이닥쳤다. 폭격맞은 땅처럼 터진 퍼르

끼레한 상처만 보고도 복막염이라는것을 제격 짐작할수 있었다.

파편은 절개하여 끄집어내면 되겠지만 복막염은 현상태에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우리 중대장동지를 살려주십시오. 전투영웅입니다.》

전사들의 애원앞에 선뜻 수술할 결심을 못하는 군의장의 얼굴은 고통속에 모지름쓰는 환자의 얼굴보다 더 이그러져있었다.

《빨리 군단병원으로 후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술》이라는 말이 나올가봐 지레 떨고있는듯한 녀준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도 증폭되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고통당하고있는 군의장의 가슴을 더욱 헤집었다.

《군단병원이 어디 있소?》

버럭 지르는 소리에 녀준의의 동공은 얼어붙은듯이 까딱하지 않았다.

《후치령을 넘기도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을거요.》

그것은 자기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녀준의는 《책임》이라는 두글자에 오한을 만난듯이 떨고있었다.

군의장도 두다리가 후들거렸다. 범의 꼬리를 잡은 심정이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렸다.

노루꼬리만 한 겨울의 해는 벌써 눈보라 뽀얀 서산마루로 기울어졌고 깊은 골짜기는 장막을 드리우듯 빨리도 어둠속에 잠겼다.

갑자기 밖에서 간호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서둘러 묻는 군의장에게 간호장이 숨소리를 섞어가며 대답했다.

《저기... 개울가에서... 웬 군인동지가 부상자를 업구 왔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있습니다. 이 동무부터 데려가라고 야단을 쳐서...》

앞뒤가 막힌 처녀들이 안타까왔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렇지, 이 한지에 그냥 뒤두고 오다니...》

군의장은 등불을 들고 눕혀놓은 환자에게 다가가며 녀준의에게 군인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는듯 한 애젊은 병사는 허벅다리엔 총상이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관통상은 아니었다.

군의장은 즉시 상처를 해집고 탄알을 뽑았다. 누군가가 1차지혈을 잘해준 덕에 피를 많이 흘린것 같지는 않았다.

상처를 처치할 때 병사는 잃었던 의식을 회복했다. 새처럼 눈이 동그란 병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분대장부터 찾는것이였다.

《저기에 있소. 그런데 어디서 부상을 당했소?》

점자로 상처를 꾸실 때마다 그는 펄쩍펄쩍 뛰면

서 떠들거렸다.

《당치령방어... 전투에서...》

《그러면 60리길을 분대장이 내쳐 업구 왔소?》

결의 간호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동추위 속에 무릎을 치는 눈판으로 사람을, 그것도 몸에 붙지 않고 늘어지기만 하는 부상병을 업고 왔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간호장이 붕대를 감을 때 다른 상처가 없는가를 살피던 군의장이 입술에 묻은 피흔적을 보고 토혈을 했는가고 묻자 상등병은 머리를 흔들며 울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분대장동지가 저에게 피를... 그도 부상을 당한...》

상등병은 말을 못하고 울대만 꿀꺽거리였다.

갑자기 찬바람이 쓸어들었다. 바람과 함께 얼굴이 하얗게 질린 녀준의가 뛰어들었다. 입가에 푸른 음영이 비낀것이 바라보는 가슴을 서늘하게 식혔다.

군의장이 파르르 떨리는 처녀의 입술을 눈길로 별리려는듯 지그시 노력보았다.

《분대장동지가... 그가...》

녀준의는 마치 속삭이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속삭임소리는 운문을 전률케 했다.

《그가 어디에 있소?》

《저기...》

녀준의가 가리키는 간호원천막으로 한달음에 달려간 군의장은 간호원들의 흐느낌소리에 걸음을 뚝 멈추었다.

가물거리는 초불밑에 피가 흥건히 내배인 붕대를 이마에 둘러감은 30대 초엽의 분대장이 조용히 누워있었다.

비록 퍼릿한 얼굴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있었으나 안도의 숨을 내쉬듯 입술은 빠끔히 벌려있었다. 그의 신분을 확인해보려고 소지품을 찾았으나 나오는것은 한장의 사진뿐이였다.

소학생모자를 쓰고 기쁨에 넘친 눈으로 뻗히 올려다보는 사내아이의 모습이였다.

뒤면에 뭐라고 써있었지만 눈앞이 흐려와 읽을수가 없었다.

군의장은 가드라든 그의 왼손을 꼭 잡고 무수히 난 칼자리로 하여 험상해보이는 약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때까지 난 〈단지법〉을 효도의 상징으로만 알고있었소. 그런데 이 동문 자기 병사를 위해 제손을 뺐구만...》

녀준의가 울먹이며 조용히 부르짖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긴장한 사람이...》

군의장은 찢어진 군복자락을 여며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럴수 있지. 마지막기운까지 자기 대원을 위해 깡그리 바쳤으니까... 이 초불처럼 말이요.》

천막안은 간호원들의 눈물삼키는 소리로 짹 찼다. 나직한 흐느낌소리는 사납게 울부짖는 눈보라소리를 누르며 고조되고있었다.



드디어 군의장이 머리를 쳐들었다.

《복막염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합시다.》

모두가 말없이 군의장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의 침묵이 아니었다.

군의장은 자기를 바라보는 녀준의와 간호원들의 번쩍이는 눈동자들에서 활활 타오르는 초불들을 볼 수 있었다.

수술준비를 끝내고 군의장이 있는 천막으로 들어서던 녀준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군의장이 자기의 권총에 탄알을 채우고있었던것이다.

격발기까지 당기고난 군의장은 흠칫 놀라는 녀준의에게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나와 그의 생명은 하나요.》

그리고는 결연히 수술장으로 향하였다.

## 5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이따금 창유리를 후려치는 비바람소리만이 정적을 흔들었다. 마치도 50년전 천막안의 그 뜨거운 정적이 여기에 그대로 옮겨진듯싶었다.

기술부원장은 내가 서두를 뻔할 때에는 놀라운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지금은 깍지깎은 두손만 무겁게 내려다보고있었다. 때때로 얼른거리는 안경알처럼 그의 심중도 흔들리고있음을 짐작할수 있었다. 끈질긴 침묵을 깨뜨린것은 초급당비서였다.

《어떻습니까? 파장동무의 이야기가 수술의 담보로 될수 있습니까?》

당비서는 약국장에게 눈길을 주며 재삼 물었다.

《대단한 경험주의지요?》

가뜩이나 혈색이 좋은 약국장의 얼굴이 금시 익어떨어질것만 같은 홍시가 되어버렸다.

수술에 도리머리질하던 사람들의 귀밀도 벌거우리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경험이 아니지요.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창조한 승리의 전통입니다. 생각해보시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에는 바로 부상자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필요하다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금방 들은 군의장과 같은 전세대의료일군들의 희생적인 헌신도 뜨겁게 어려있는것이 아니겠소. 그걸 대를 이어가느냐, 마느냐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동무들에게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어조에 원장선생의 얼굴에도 만족한 웃음이 피어났다.

《웁습니다. 우리들에게 중태에 빠진 그 녀성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동지라는 립장에 설 때 능히 기적은 담보되지요.》

원장과 당비서는 몇마디 주고받더니 기술부원장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부원장선생.》

부원장은 대답은 하지 않고 안경을 벗어 닦기 시작했다.

나는 긴장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십년을 두고 숙련이 된듯 한 그 동작이 이 순간엔 매우

서툴게 느껴졌다. 그의 검박거리는 눈시울과 파르르 떨리는 얼굴표정은 혹여 자기의 주장을 뒤집어놓은 나에 대한 그 어떤 불만의 표시는 아닐가? 그의 적극적인 찬성을 받지 못했다는 현실감이 마치도 나를 바늘방식에 올려세운듯 한 심정이였다.

믿음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던 원장선생이 좌중에게 말했다.

《이 시각에도 환자는 고통을 받고있소. 그러니 수술을 진행합시다.》

모두가 수긍하는 속에 원장선생의 위엄에 찬 목소리가 울렸다.

《집도는 파장동무가 하오.》

나는 두손으로 책상모서리를 짚 들어쥐었다. 현훈중에 몸이 기울어지는것 같았기때문이였다. 감정의 여파가 구석구석으로 가볍게 물결쳐갔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눈빛들에 믿음이 어려있었다.

갑자기 당비서가 흥그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내 보기엔 그 이야기가 파장동무와 어떤 련관이 있는것 같은데요?》

나는 선뜻 대답을 할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옅은 나의 얼굴이 타버릴듯 달아오르는데 여직껏 빛어놓은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 안경알을 닦던 부원장이 뚝뚝한 목소리로 대꾸하는것이였다.

《아주 깊은 련관이 있지요. 그 군의장이 바로 순영동무의 할아버지입니다.》

뚝뚝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초급당비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랬던군요. 어쩐지... 그런데 부원장선생은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부원장에게로 쏠리였다.

약국장을 비롯하여 사연을 아는 오랜 파장들도 빙그레 웃으며 안경을 다시 쓰고있는 부원장을 주시했다.

안경을 쓰고서 좌우를 둘러보는 부원장은 전혀 딴 사람처럼 느껴졌다.

《분대장의 품에 간수했던 사진속의 아이가 바로 저니까요.》

순간 나는 눈앞이 확 흐려졌다. 왜서인지는 자신도 잘 몰랐다. 눈물이 크르르렁 매달린 얼굴을 숙이고 나는 방안을 가볍게 흔드는 탄성들을 들을 수 있었다.

...

나는 쿡당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고 애쓰며 수술장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재는 혈압계의 눈금을 주시했다. 기초마취를 한 환자는 벌써 아픔을 잊은듯이, 아니면 내가 곧 자기의 아픔을 털어버려줄수 있다고 확신하는듯 평안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있었다.

그러나 나의 심장은 그의 평안으로 해서 더욱 푸르락 뛰고있었다.

약국장을 비롯한 권위있는 파장들이 보조집도자로 참가하겠다고 제의하는것을 분명히 듣고서도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다.

나는 평온치 않은 심장의 박동이 손끝을 떨리게

할것 같은 불안을 금할수 없었다. 수술기록부에 수표를 하려던 나는 흠칫 놀랐다.

수술집도자의 란에 기술부원장의 수표가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키우는것이 있어서 황황히 수술장으로 들어갔다. 아니나다를가 완전수술복장을 한 기술부원장이 수술기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있었다.

부원장은 다가서는 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섭섭해말아. 집도는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네가 해라. 그러나 책임은 내가 지겠다.》

오늘만 해도 두번째로 들어보는 혈연적어조였다. 내가 눈을 습벽이자 그는 눈초리를 세우며 기술부원장으로 돌아갔다.

《수술장에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시오. 자기의 모든것을 환자에게 집중하오.》

하지만 나는 고맙다는 말을 기어코 하고싶었다. 그러나 이때 환자를 실은 밀차가 들어왔다.

## 6

언제 비발이 가늘어졌는지 모른다. 나홀동안 기를 쓰며 퍼붓던 하늘도 이제는 기진맥진한것 같았다.

거리는 어둠과 고요로 짝 차있었다. 불빛 한점 없는 거리였지만 왜 이렇게 정답게 느껴지는 것인지...

(아마 세시가 넘었을거야.)

이따금 고인물을 밟는 찰싹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다. 그 소리는 이밤의 고요를 깨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층 북돋아주는것이였다.

부원장은 어둠속에서 나를 인도하며 말없이 묵묵히 걸기만 했다.

나는 그의 팔을 조용히 껴다.

《미웠지요?》

《천만에... 내가 밟게 보인것이 한스럽다.》

가벼운 한숨소리에 나는 그의 팔을 더욱 바싹 끼었다.

《순영아, 너의 할아버지가 해주던 불로초이야기가 생각나누나.》...

나는 어둠속에서 빙그레 웃었다.

할아버지는 부원장이 의학대학으로 떠날 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옛사람들이 불로초를 캐지 못한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 그걸 얻으려고 했기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켈수도 있지. 그 불로초란 곧 정성이야. 그것은 의술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환자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자기 생명과 켈수 없이 이어진 동지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불현듯 할아버지가 그리웠다. 이제는 얼굴의 주름밖에 기억되지 않지만 매돌을 가는듯 하던 그 목소리는 지금도 부드럽게만 들려오는것이였다.

《할아버지는 늘 나에게 아버지를 거울로 삼으라 하셨지. 그런데 나는 인생의 말년에 와서 소위 깨끗한 은퇴만을 생각하다보니 어느새 할아버지의 당부를 잊었었구나.》

이 순간 나는 별안간 부원장의 잘못을 용서해주

고 오히려 그를 두둔해주고싶어졌다.

정말이지 내가 자신심 없는 수술을 벌려놓았다가 사고라도 쳤다면 부원장의 《깨끗한 은퇴》는 콩크리트도로에 내던져진 사기접시모양이 되었을것은 뻔했다.

나는 그의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자각지심을 가볍게 떨리는 팔과 무거운 한숨소리에서 느끼며 어루만지는듯 한 어조로 나직이 말했다.

《됐어요. 회초리도 지내 굵으면 상처를 입는뎡어요.》

나의 말이 우스웠는지 그는 흰이를 슬며시 드러내는것이였다.

《언젠가 넌 두명밖에 없는 사망환자진단서를 두고 나에게 물었지? 비결이 뭐가구... 부끄럽구나. 난 오늘에야 그게 나의 자랑이나 공지가 아니라 한생 켜지 못할 한으로도 남을수 있다는걸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구나. 나의 로쇠는 육체에서부터가 아니라 정신에서부터 시작되고있음을 여적 모르고있었지. 이번수술에서 환자가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소생한셈이야.》

《됐다는데두요.》

나는 긴 팔로 그의 옆구리를 톡 쳤다. 정말이지 이밤 그런 말을 듣고싶지 않았다.

고요한 거리를 짝 채우는 두사람의 규칙적인 발걸음소리만으로도 너무나 족한것이였다. 어제는 어떠했다 해도 오늘은 이렇게 한걸음으로 걸지 않는가.

벌써 두렵던 동녘의 장막이 엷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집앞에 거의 당도했을무렵에는 가로수들의 우듬지까지도 흰했다.

나는 선뜻 헤여지고싶지 않아 집앞의 가로수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삼촌, 집에 들렀다 가세요.》

부원장은 내 말을 듣는등마는등 하면서 무성한 잎을 사방으로 펼치며 시원히 뻗어올라간 아름다리 은행나무만 올려다보는것이였다. 간밤의 비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간들간들 매달려있던 몇개의 잎사귀들이 팔랑팔랑 떨어지고있었다. 부원장은 허리를 굽혀 그 잎사귀들을 집어 들고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묻자 그는 여전히 눈길을 떼지 못하며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어찌 보면 나를 편상케 하는 잎이로구나. 황황타는 단풍계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청청락엽이 된 이것이 말이다. 정말 잊을번 했거던, 비록 따로따로 붙어있어도 저 무성한 잎새들이 한줄기에 피여 있다는걸 말이다.》

나는 조용히 눈길을 들어 수려한 은행나무를 쳐다보며 부원장의 말을 다시 음미해보았다.

잎사귀는 앞에도 뒤에도 그리고 우에도 아래에도 여기저기 더미로 피여있지만 아름다리 하나의 줄기에 생명을 잇고있는것이며 그 줄기는 그 모든것에 생명을 주는 뿌리에 떠받들려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머리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 위대한 계승

## 리 경 체

이 강산에 온갖 꽃 만발한 봄명절  
수령님 탄생 100돛이 되는 해의 그 봄날에  
우리는 높이 우러러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으로

아,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따사로운 해빛으로 온 강산을 비쳐주시고  
은혜로운 봄빛으로 인민을 품에 안으신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

천만군민의 환호성 넘친다  
우리 수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장군님의 모습으로  
태양의 위업 빛나게 이어가시는  
백두의 혈통 굳건히 이어가시는 그이를 우러러

인민의 긍지 넘친다  
그이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한없는 영광과 행복이여  
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는  
위대한 태양의 력사여

우리는 보았어라  
피눈물의 그 언덕에서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혁명의 한길 끝까지 가자고 하신 그 믿음에서  
혁명의 첫 기슭에서 2천만이 우러르던 한별  
20대 청년장군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시련을 이겨내며 헤쳐온 자욱 이어  
우리 가야 할 선군의 그 길에서  
생사를 같이할 제일전우라 하시며  
이끌어주신 그 사랑 그 손길에서  
빨찌산의 행군길 대를 이어가시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이 계시어  
정파 뜻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신념과 의리로  
심장을 합치고 운명을 합치는  
우리 삶의 영원한 태양

이 길에 세기가 흐르고  
이 길에 세대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  
순결한 우리의 혈통 백두의 혈통

그 혈통 이어가는 길우에  
거창한 창조의 숲은 펼쳐지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안고  
위성은 퇴성 더치며 우주로 솟구치거니

수령님들 념원하신  
그 리상 이 땅우에 펼쳐  
온 세상에 휘황한 해돋이를 펼쳐가실  
위대한 선군조선의 태양

그 태양 빛나는 이 땅우에 만복은 꽃피고  
눈앞에 펼쳐질 우리의 꿈과 리상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 울려퍼지는  
내 나라의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리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심은  
백두의 혈통으로 빛나는  
위대한 계승이여라  
대를 이어 태양복을 안고사는  
인민의 무궁한 긍지와 영광이여라

《정말 웅아요. 우리모두의 생명도 이처럼 하나  
의 뿌리에 붙어있지요.》

《바로 거기에 우리 사회의 생명력이 있는것이  
지.》

한갓 가로수로만 보이던 은행나무가 이 순간엔  
마치 우리 조국의 축도처럼 안겨오는것이였다.

어디선가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다. 비가 걷히려  
는 모양이다. 나무는 자기의 무성한 잎새들에 밤새  
간직하고있던 물방울들을 꽃보라마냥 뿌려주었다.

부원장은 물방울이 떨어져내리는 나의 얼굴을 내  
려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해졌다. 똑똑한 사람  
은 남의 잘못을 보고 제 결함을 고치니까.》

그리고는 껄껄 웃었다. 그것은 마치 속을 깨끗이  
터놓는것만 같았다.

나도 소리내여 웃었다. 맑고 명쾌한 웃음소리가  
어둠을 벗어던지는 새날의 거리로 랑랑히 울려퍼  
져가고있었다.

# 불을 뿜는 땅은 무엇을 전하는가

—단편소설 《불을 뿜는 땅》을 읽고—

김 학

항일의 혈전만리, 전화의 불길만리에서 버리어지고 다듬어지며 우리 혁명의 승승장구의 길을 힘있게 담보해온 위력한 무기, 유일한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사상이다.

사상을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만난을 이겨내고 승리만을 펼쳐온 위대한 전통의 일단을 감명깊게 보여준 수령형상단편소설이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생ن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습니다.》

단편소설 《불을 뿜는 땅》(곽성호 작, 《조선문학》주제103(2014)년 7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상을 놀래운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것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풍만한 형상으로 심오히 보여주고있다.

## 사상의 위력

소설은 우리 수령님의 독창적인 혁명령도방식에 대한 생활적인 형상속에서 사상의 위력, 대중의 정신력의 힘에 대하여 심오히 해명하고있다.

위험천만한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한 박격포중대의 나 어린 전사가 박격포로 적기를 쫓아내려 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전선군사위원 김일과 함께 그 중대를 찾아가신다. 소설은 이 계기에 형상의 력점을 찍어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사색의 세계를 펼친다.

적들의 무차별적인 공습타격으로 더 전진 못하는 전선과 최후국을 비롯한 항일투사지휘관들의 가슴아픈 희생, 무고한 로인들과 아이들, 녀인들의 죽음... 적기들의 땃꼭꼭속에서 한치한치 남진의 길을 열어나가고있지만 미제의 오만한 《공중우세론》은 점점 더 확대되고있다. 이것을 두고 백전로장 김일까지도 우리의 비행기나 대공화력무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것을 안타까와하고있다. 하다면 현실적인 방도는?...

이미전부터 생각해보시던 문제가 다시금 그이의 뇌리에 떠오르시었다. 백두산에서 싸울 때 보병총으로 적기를 쫓아내려던 일이었다. 지금도 그때처럼...

바로 이러한 때 박순돌전사의 《중대사건》이 제기되었던것이다. 그랬다. 누구나 박격포로 적기를

쫓아내려 한것을 무모하기 짝이 없는 허황한것으로, 지어 적기의 공습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전선군사위원 김일까지도 《도대체 그게 제정신을 가지고 한 일》인가고 노성을 터뜨리는 사건을 오로지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스쳐보내지 않으시었다. 아니, 그 어떤 비상한 발견의 계시로 보시었다. 하여만사불구하고 박격포중대를 찾아가시는것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인 생활형상을 통하여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박격포중대를 찾으시였을 때 그 《중대사건》의 당사자는 책벌을 받고 다른 중대로 조동되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박순돌전사를 부르시여 그와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의 가정배력이며 입대정위 그리고 그처럼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킬 하나의 중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다.

하나의 자그마한 불꽃에서 료원의 불길을 내다보시며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킬 사상의 화약을 차곡차곡 다져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대한 작전을 토의하는 전선사령부 일군 및 전선련합부대지휘관, 문화일군회의에까지 박순돌을 부르시여 병사들의 배심을 높이 치하해주시고 지휘성원들의 의기도 북돋아주신다.

《그러나 이 동무를 보시오! 비록 박격포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기와 싸워보겠는가를 제나름대로 연구했단 말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그의 이런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는커녕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대사건》. 오히려 책벌조동으로 처리되었던 《파오》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상론, 군중관에 의하여 기특한 소행, 고결한 자력의 정신으로 전환되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적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것이 그 어떤 신식무기가 아니라 단결된 인민의 힘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바로 그러한 정신력을 총대마대에 채우고 적기와 싸우자는거요. 적기와 의 판가리싸움에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보총을 비롯한 각종 저격무기까지 다 동원시키잔 말이요.

온 나라에 조밀한 화력망을 펼쳐놓고 적비행기가 내리쬐질 때에도 쏘고 올라갈 때에도 쏘며 개별적으로도 쏘고 집단적으로도 쏘며 전선에서도 쏘고 후방에서도 쏘면 우리 조국강토가 통채로 불을 뿜는 땅이 될거란 말이요. 그러면 제놈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날뛸수 있겠소? 대신 우리는 앞은자리에서 무제한한 대공화력무기를 공짜로 얻는거나



갈단 말이요!》

세상을 놀래우는 그 모든 기적이 다 그러했듯이 전쟁의 국면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비상한 결단도 이렇게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에서 찾고 무르익히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드디어 우리 조국강토가 통채로 불을 뿜는 땅으로 전환될 위대한 수령님의 응지가 확인되었다. 기적은 일어났다. 각종 저격무기들이 적비행기들을 쏘떨구는 비행기사냥군조활동이 벌어졌고 전쟁기간 비행기사냥군조원들이 쏘떨군 비행기대수는 도합 3 673대로서 세계전쟁사를 경악케 하였다.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대중의 사상의 위력이었다. 소설은 력사의 이 진리를 전하고있다.

## 세부의 매력

정신력발동의 전통과 진리를 심오히 밝힌 형상적 수법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말할수 있겠지만 이 소설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생활세부의 탐구와 활용이다. 한마디로 세부가 논 역할이 크다.

박순돌전사의 딸꼭질세부...

소설에서 무려 네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세부는 박순돌의 엉뚱하고 대담한 행동의 동기와 생활적라당성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서 그리고 이야기를 생활적으로 정연하게 날라가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특히 이 세부는 박순돌이네 소대원들의 시점과 작가의 시점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 등 여러 각도에서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고 지어 양상까지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전쟁이 일어나기 두달전, 남편의 생일을 즐겁게 해주려고 산에 올라 두릅을 따던 순돌의 안해가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미제공중비적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된다. 땀을 들이던차에 손거울을 꺼내들고 머리를 비다듬다가 흉탄에 맞은듯 피젖은 손에 그것을 꼭 움켜쥔채 쓰러진 안해, 뒤에서는 할머니의 젖품을 파고들며 피울음을 터치는 아들에, 그 울음소리마저 집어삼키며 요란한 폭음과 함께 지나가는 적비행기들을 쏘아보는 순간부터 시작된 딸꼭질은 소설이 제기한 문제성의 본질을 깊숙이 체현한 세부로서 인물의 성격, 사건의 의미, 생활의 논리를 밝히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생활적이며 본질적이며 간명한 이런 세부들은 작품을 풍만한 형상으로 꾸미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것을 소설은 말하고있다.

박순돌의 손거울세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세부도 소설에서 두어번 반복되면서 박순돌의 개성적면모를 돈구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깊은 아버지정을 보여주는데서, 전사들의 동지우애심을 보여주는데서 그리고 미제비행기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고발하는데서 해발쭉거리는 오동통한 발가숭이사내애의 사진이 뒤면에 붙어있는 거울세부는 발견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전선군사위원 김일의 구리단추세부도 비록 간명하게 묘사되었지만 형상적효과는 크다. 전선사령부의 자기 방에 들어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황황히 옷매무시를 바로잡는 김일의 군복깃아래에서 금시 떨어질듯 대롱거리는 구리단추... 아직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빈 단추구멍만 거듭 매만지는 김일의 모습...

이 세부는 우선 오만하게 날치는 적기들의 맹폭격에도 이렇다할 방안이 없어 소심하게 위축되어있는 김일의 심리를 대변에 꿰뚫어보게 하며 그것을 통하여 전선지휘관들의 정신상태를 두고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부각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일과 장기를 두시는 생활세부가 펼쳐진다.

...

《여기 장기판이 없소?》

《예?!...》 김일은 잘못 듣지 않았는가 의심하듯 이렇게 반문하며 꺼슬꺼슬한 입술을 다물념 못했다.

《왜 그렇게 놀라오? 머리شم을 하는데 장기이상 없지. 시간이 좀 있는데... 한판 겨루어보지요.》

김일은 그제서야 허겁지겁 어느 구석에선가 장기판을 찾아냈다. 먼지가 뿌옇하게 올라있는 장기판이었다. 그것을 황황히 닦아내는 김일에게 그이께서는 험험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새 정말 바쁘긴 바빠던 모양이구만.》

김일은 순진한 소년마냥 얼굴을 붉히며 어쭙게 미소를 지었다.

첫판은 빈번히 헛수를 쓰는 김일이때문에 몇수 써보시지 못한채 끝나버리고말았다.

《무슨 일이든 직심스레 달라붙어야 성수가 나는 법이지. 오락두 마찬가지요. 그래야 심신이 거뜬해질수 있거던. 헌데 김일동무, 이 장길 그저 오락이라고만 생각지 마오. 동무가 주물러놓아야 할 전장이라고 가상해보란 말이요. 그럼 망탕 장기쪽을 놀리게 되지 않을지요...》

지나가는 말쑥처럼 하시였으나 김일은 신중한 기색으로 받아들이며 장기판에 바싹 나앉았다.

...

우리 수령님의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형상적확인이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이 확증되고 성격이 드러나는, 즉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이 해아려지는 세부들로 하여 소설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뿐만아니라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웅당한 품위를 보장할수 있었다.

묘사의 문학인 소설에서 세부와 세부의 련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작품일것이다.

소설의 매력은 세부의 매력과 분리될수 없다. 《불을 뿜는 땅》은 형상의 이 진실도 전하고있다.

우리의 소설문학도 불을 뿜어야 한다.

위대한 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사상의 불을!

# 총창우에 이슬이 흐를 때

김 광 호

우렁이 동터오는 초소의 새벽  
총창우에 흐르는 맑은 이슬  
어찌하여 이리도 아름답습니까  
어찌하여 초병의 이 가슴 설레이게 합니까

총창우에 이슬이 흐를 때  
막내동생 아직도 쏜새근 단잠 자는  
행복넘친 고향집 창문가엔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비껴 흐르고

새 농기계제작으로  
밤길도록 탐구의 불빛 흐르던  
고향마을 청년작업반 창문가엔  
청춘들의 고운 꿈이 노래로 울릴것입니다

총창우에 이슬이 흐를 때  
밤새워 옥야천리 나무리벌을 갈아엎은  
중학시절 동창생의 프락프르전조동에도  
혁신의 불꽃어린 이슬이 흐르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학교시절 담임선생님  
그때의 나처럼 뒤떨어진 학생의  
수학공부 도와주려 밤길 걸었을  
그 유정한 밤색빛갈의 구두에도 이슬이 흐릅니다

아, 간밤도  
내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지 못했다면  
평화를 파괴하려 호시탐탐 노리던  
원썬들의 침략의 불줄기 터졌으리

그러면 내 고향의 전야와 마을은  
타래치는 불연기에 휩싸이고  
내 조국의 창가마다엔  
이슬이 아닌 붉은 피가 흘렀으리

아, 우렁이 동터오는 초소의 새벽  
총창우에 흐르는 맑은 이슬이  
이 가슴에 다시금 새겨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병사의 총창우에 조국의 평화, 평화가 있음을!

## 탄부의 공제 외 1편

박 상 민

나는 탄부  
땅속 깊은 곳에서  
채탄기를 몸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나의 청춘시절을 탄에 다 담고 산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보다  
막장냄새 더 많이 마신다 해도  
번쩍이는 탄발에 삶의 터전을 둔 사람  
막장을 떠나선 살맛 또한 없어  
채탄장에 아예 살림도 펴고싶다

나는 탄부  
조국의 땅속 보화중에서 제일인  
탄을 캐며 온 나라에 생의 자옥 새긴다  
발전소며 용해장 비료공장 그 어디랴  
남모르게 안아보는 꿈으로 하여 행복하다

막장 여기서선  
웃음과 행복이 그리고 열과 빛이  
인민이 사는 그 어디에나 달려가고있다  
부강조국 건설장마다에 나의 땀 나의 뱃이  
련속발파의 메아리처럼 차판가득 실려가고있다

얼마나 좋으나  
교대전엔 선번째 탄차를 떠나보내며  
채탄기의 진동속에  
얼얼해진 손바닥을 쭉쭉 문지르는 멋  
돌아보면 저만치 채탄장이 앞으로 전진하는 멋

놓인 일감 쉽게 제긴적 없었다  
호락호락 굶어드는 탄벽이 있었던가  
발파심지에 불을 달 땀 결전의 시각인듯  
긴장한 썸세기는 고막을 두드리고

폭음뒤에 쏘아진 탄무지는 흐뭇한 웃음무지

차디찬 석수에 후더운 가슴을 적시며  
채탄장 지켜내던 나날에 심장이 커졌다  
백톤쯤엔 도무지 성차지 않아  
수백톤을 단번에 털어낼 창안도 하며  
땅속을 주름잡는 탄부의 이 궁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구절구절이 내 피줄속에 뛰고있다

안전등빛이 비치는 곳에 탄이 있던가  
탄부가 가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  
땅속 초행길을 헤치며 행복을 마중간다

청춘의 땀과 열정으로 안아올리는  
저 번쩍이는 석탄의 무게에 실리는가  
경제전선 맨 앞장에 선 탄부의 이 궁지!  
오, 룡성하는 조국의 새 모습속에 빛나라  
부흥하며 세계를 앞서가는 조선속도속에  
탄부의 궁지는 날마다 커만 가고있구나

## 막장소보

흰 종이가 검어져  
내가 쓴 글도 못 읽겠네  
하나 탄부들 어느새 다 외웠네  
나는 탄부들의 목소리 다시 받아쓰네

### (1) 별바다

—명희! 구경가지 않겠니...  
내가 별바다에 데려다줄게  
—뭐?! 막장에 무슨 별바다  
난 탄바다가 더 좋아

동창생 철준의 싱거운 말에  
명희의 되알진 대답  
그런데 이게 뭔가  
《딱따구리》명희도 말문 막힐 때 있나  
—하하 탄부의 별빛노동자 없어봐  
너의 사랑 탄바다가 어떻게 있어?!

### (2) 암벽이 앞드렸네

착암정대 용을 써도  
철준을 눈아래로 바라보는 암벽의 말  
이제 겨우 스무살 애송이굴진공  
팔뚝의 땀핥살로는 어렵도 없다네

암벽은 히물히물  
배심종게 주저앉아 버티는데  
철준이 눈에선 번개가 번쩍  
웅다문 입가에선 으드득 이가는 소리

툑툑 심장 뛰는 소리인가

막장가득 메아리친다  
벌쐼 철준의 입가에 흐르는 미소  
그 미소라고 울리는 폭음 폭음...

암벽의 한숨소리인듯  
쉬익 발파연기 사라지고  
암벽은 무너져내렸네  
철준의 발앞에 무릎꿇고 엎드렸네

허허 억만년 굳고굳은 암벽이  
애송이굴진공에게 절을 하는가  
아무렴 청춘의 심장과 어이 맞설소냐  
저길 보구려 탄이 사랑의 눈빛을 반짝이오

### (3) 막장의 달

오늘은 정월대보름  
새해 첫달계획 마감짓는 날  
동무들 막장에도 달이 떴소  
중대장얼굴이 달같이 환해졌소

아무렴 중대장만 달이 되겠나  
온 중대가 다같이 달이 되자구  
탄벽에 번쩍이는것은 별  
우리의 얼굴에 빛나는것은 달

우리 심장이 불이 되어  
내 조국의 밤을 밝게 장식하자구  
막장에 달이 뜨면  
조국의 밤하늘엔 해가 뜰테니  
자, 동무들 탄이요!



## 송 재 환

요즘 전상봉아바이가 이상해졌다.

그전같으면 운전공들과 수리공들이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버락치듯 된욕을 퍼부었을 텐데 왜서인지 될수록이면 잔소리도 하지 않고 모르는척 하는것이다.

사람들은 부직장장아바이의 코가 왜 저렇게 낮아졌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기웃거렸다.

전상봉아바이는 오랜 굴착기운전공이다.

부직장장사업까지 하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아 굴착기에서 내려지만 기계속내에 환하고 운전기술기 능수준도 높아 누구도 그의 말을 무시 못했고 그로 하여 기업소내에서 그의 권위는 자못 당당했다.

《전아바이가 그렇게 말했소?》

《부직장장아바이가 한거면 담보하오.》

기술에 능해서인지 그는 코대도 보통 세지 않았다.

전상봉아바이의 생김새에서 유표한것은 류달리 높고 우뚝한 코마루였다. 코마루가 높아서 코대도 세나, 그러며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전코대라고 했다. 그만큼 자존심이 세고 한번 한다고 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불같은 성미였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그가 어깨가 처져 무슨 일이나 흥심이 없어하니 거연한 산줄기같이보이던 높은 코마루도 펴 낮아보이고 표정도 서글퍼보였다.

무엇때문일까?...

사람들은 고개를 기우뚱기우뚱하였다.

이럴 즈음에 ××발전소건설현장지휘부에서 건설기계화사업소 중기계직장에 긴급지령이 떨어졌다.

닷새안으로 굴착기 1대와 불도젤 2대를 무조건 가물막이전투장에 도착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기본언제굴착과 콘크리트타입의 돌파구를 열 가물막이전투를 위대한 장군님께 맹세다진대로 해내는가 못해내는가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굴착기와 불도젤을 닷새안으로 가물막이전투장에 들이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련합총지휘부는 중기계직장에 그 중요성을 엄숙히 부언하였다. 그로 하여 건설장의 총이목은 여기에 집중되었다.

기계화사업소에서는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토의하였다.

그 회의후 전상봉아바이도 굴착기운전공들과 불도젤운전수, 수리공들과 함께 꼬박 이틀밤을 패며 굴착기와 불도젤을 수리정비해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난사라구야. ...

굴착기와 불도젤을 실은 대형런결차는 중기계직장마당에서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가지 못하고있었다. 그렇게 되자 발전소건설련합총지휘부와 기계화사업소 지령실을 연방 오가는 전화로 전화기가 설새없이 드르릉거려댔다.

—왜 못 오는가, 당장 보내라!

—폭우에 갈수 없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저저마다 목에 피대를 세우며 고함치는 소리는 높았으나 공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 그 누구도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가슴들을 끓이였다.

중기계직장에서 발전소건설장까지는 100여리길이다. 그 100여리구간에는 수십개의 험한 령이 있고 새로 건설한 나무다리들이 수없이 많았다. 연 이를 동안이나 내린 폭우에 새로 개척한 산도로들이 물을 먹고 무너져내리고 사태가 저서 길이 막힌 곳, 나무다리들이 형체없이 떠내려간 곳도 있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길로 대형런결차까지 합치면 중량이 100여톤이나 되는 중기계들이 가다가 사고라드나는 날에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전상봉아바이는 그전같으면 중기계이동을 책임지



고 가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굴착기와 불도젤을 수리정비만 해주고 손을 떼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그를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못미더워서인지 이번 위험천만한 일에 중기계운반을 맡기지 않고 있었다. 사실 지금 지배인은 기업소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에 대해서, 과거 《공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니 그럴수 있겠다고 전상봉 아버지는 처음에는 별치않게 생각하였는데 전화가 연방 오가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북아치자 차츰 그 긴급하고 어려운 일에서 제외된 자신이 쓸쓸했고 또 일종의 모욕감까지 치밀어올랐다.

누구도 그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오늘 아침 지배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인사만 받고 급히 지령실쪽으로 사라졌다.

그는 경황이 없는지 한마디 말도 비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어느때와 달리 복새란리가 터졌는데 그렇게 외면하고 황황히 가버렸으니 전상봉아버지는 자신이 더없이 서글퍼졌고 노여움이 울컥 치밀었다.

부직장장사업을 인계하겠다고 제기했으니 패배주의자로 보는것이 틀림없다. 사실 자기는 그전같이 일을 축내지 못하여 부직장장자리를 빛내고있는것이 아니라 차지하고만 있는것 같아 죄스러워 그런 제기를 했는데 일꾼들이 리해하지 못한것이 분명했다.

(늑으면 노여움이 많다더니 나도 다들바 없구나. 아무튼 내가 쏟은 물이니 남을 탓할수는 없지.)

전상봉아버지는 불도젤운전칸에 우두커니 앉아 먹장구름이 태를 치며 엉켜돌아가는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며 긴 한숨을 그었다. 요즘 자기가 왜서 때없이 멍해지며 입맛도 없고 일손도 잡히지 않는지 하는 원인을 오늘에야 푹푹히 알게 되는상싶었다.

《예익, 망할 놈의 하늘...》

아버지는 화집에 한마디 내뱉고 줄담배연기를 연방 내뿜었다.

폭우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며 불도젤천정을 두드려댄다.

차츰 아버지는 자기에 대한 감정보다 굴착기와 불도젤이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쇠덩이같은 근심이 무겁게 가슴을 내리눌렀다.

(이놈의 비가 빨리 그쳐야 이것들이 떠나겠는데... 모두 얼마나 안타까이 기다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느라니 무엇보다먼저 얼마전에 직장을 찾아왔던 향미의 얼굴이 떠오르고 막돌과 자갈을 모으느라 손가락에 피가 터진 그 어린 손이 어려와 가슴이 저려왔다. 이 시각에도 그 애가 굴착기와 불도젤이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랴...

이때 초급당비서와 지배인이 운전칸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전상봉은 향미의 생각에서 깨어나 엉거주춤 일어서며 운전칸에 짹 차는 그들의 거울진 자태를 온몸지 않은 눈길로 흘끔 쳐다보았다.

초급당비서는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지마는지 심

중한 얼굴로 전상봉을 쳐다보며 두툼한 입술을 열었다.

《아버이가 결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

전상봉은 얼퍼름한 낯빛으로 초급당비서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공허와 고독속에서 안타까이 고대하던 믿음의 그 말이였지만 기쁨보다도 뻔이 옥 치밀었다. 그래서 웅대하지 않고 돌아앉아버렸다.

초급당비서도 그의 심중을 읽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혼자소리하듯 물었다.

《이 폭우속에서 굴착기와 불도젤을 옮겨갈수 있습니까?》

《...》

《아버이가 옮긴다면 옮기는것이고 못한다면 못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그제야 전상봉은 머리를 돌리고 초급당비서를 흘끔 쳐다보았다.

《책임비서동집니다.》

《영?》

전상봉은 놀랐다. (책임비서동지가?...)

그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안경을 낀 책임비서의 얼굴이 피곳 떠올랐다. 더불어 몇년전 발전소착공식을 앞두고 눈이 강산같이 쌓인 엄동설한에 첫 불도젤을 런컬차에 싣고 건설장으로 들어가던 그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고개길들이 선히 어려왔다.

초급당비서는 전상봉아버이에게 담배를 권하며 심중히 말했다.

《책임적인 대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상봉은 그의 말이 고마와 어린애같이 눈물이 짙끔 솟구쳤으나 속과는 달리 통명스러운 소리를 내뿜었다.

《나야 이제 자리두 내놓은 사람인데 뭘...》

그러자 지배인이 성근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버이, 제가 갓 오다보니 오랜 기능공도 몰라봤는데 너그럽게 리해하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초급당비서는 시무룩이 웃으며 운전칸문을 열고 나서려다말고 무겁게 말했다.

《사실 제가 당일근자격이 없습니다. 지배인동문 새로 와서 그렇다치고 저는 책임비서동지가 귀찮아서야 아버이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루박듯이 말을 잇달았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젠 당조직의 믿음입니다.》

《!》

세찬 바람을 안고 태질하는 폭우가 굴착기천정과 운전칸창유리를 의미심장하게 때리며 울려온다. 좁전까지만 해도 천근만근의 무게로 가슴을 누르며 다가들던 어두운 장막이 타번지는 불길에 불시에 녹아내리며 벗겨지는듯싶었다.

점점 커가며 밝게 비쳐지는 푸른 빛광속에 책임비서 김길웅의 사려깊은 얼굴이 다시금 크게 떠오르고 잊을수 없는 그 겨울, 박달나무도 얼어러지

던 대한날에 그와 함께 빙설의 그 험한 하이포고개에서 얼음에 지쳐 편걸차와 불도젤이 통채로 미끄러져 천길벼랑에 굴러떨어지려는 순간 목숨을 내대고 모래가마니를 차바퀴밑에 들이밀던 일이 다가왔다.

전상봉은 쿵쿵 높뛰는 가슴을 누르며 벌떡 일어섰다.

(책임비서동지가 나를 그렇게 믿는단 말인가?!...)

전상봉은 눈물겹게 고마왔다.

사실 그와 책임비서는 그 이후에는 더이상 특별한 연고관계가 없이 범상히 흘러왔었다. 그저 그때 일이 전부였다.

그날 책임비서는 해가 질녘에 불도젤을 발전소건설장에 부리우고나서 아바이와 담배를 나누며 말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난 부직장장동무를 너무 짝눈게 알았습니다.》

그후 세월이 흘렀으나 마주설 일도 생기지 않았고 별다른 인연도 없었다. 그런데 공사의 운명을 다루는 관건적인 시각에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냈고 이렇게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있는지 않는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차오르며 아바이는 자기의 심장이 커지는듯 했다.

사람이 이런 멋에 사는가?...

전상봉아바이의 눈앞에는 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100여리길에 앞을 막아설 험한 고개와 장마비에 무너진 령길, 떠내려갔을 다리들이 다가왔다.

어떻게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가?

하나하나 따져가며 지난날 경험들을 되새겨보았다.

이때 초급당비서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허나 전상봉은 자기의 생각에 깊이 잠겨 의식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전상봉아바이는 초급당비서를 알아보고 일어섰다. 초급당비서는 황황히 그를 불러앉히었다.

《생각을 깨뜨려서 안됐습니다.》

《아니, 팬찮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리에 전상봉아바이의 가슴은 높뛰기 시작하였다.

《책임비서동지한테서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향미라구...》

《네?... 이 비에 전주대가 다 넘어졌다던데 어떻게 전화를?...》

《손전화기로.》

《?...》

왜서인지 불쑥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글쎄요. 이제 찾아드리겠습니다.》

초급당비서는 전화기현시판에 새겨진 전화번호를 누른다. 불과 몇초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전상

봉에게는 얼마나 조금하고 길던지...

향미는 전상봉의 생애에서 세번째 세포비서였던 황영일의 막내딸이다. 올해 중학교(당시)를 졸업하고 그는 발전소건설청년돌격대에 탄원했다.

그의 아버지 황영일은 고난의 행군시기 안변청년 발전소에 60톤기중기를 가지고 이동작업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순직한 사람이다. 이를테없이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했던 사람, 하루에 서너마디 말을 하면 극상이다. 웃는 법도 거의나 모른다.

그러나 향미는 아버지의 그 성격과 달리 늘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새물새물 웃는다. 하지만 말이 적은것만은 꼭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를 잃은 다음 향미는 작업반장이었던 전상봉을 큰아버지라고 부르며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설명절이면 꼭 남먼저 찾아와 세배를 하고 그 무슨 별식이 생겨도 전상봉이부터 찾아오던 향미였다. 그러나 언제한번 손을 내미는 법이 없었다. 그런애가 어째서 나를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다.

아까 불현듯 향미의 피터진 손이 가슴아프게 밟혀온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때 손전화기에서 향미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전화받습니다.》

초급당비서가 손전화기를 전상봉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향미동무, 부직장장아바이를 바꿔주겠소.》

전상봉은 서둘러 손전화기를 받아들였다.

《향미야, 내다.》

전상봉의 목소리에 어린애같은 탄성이 화답하여 울려나왔다.

《큰아버지!》

반가와 동동 매달리는듯 한 향미의 그 목소리에 전상봉은 금시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어서 말해라. 무슨 일이 생겼느냐?》

《큰아버지, 난 약속했어요.》

《약속이라니?...》

《우리 소대 동무들한테요.》

《영?》

《나 큰아버지를 믿고...》

《뭘?...》

전상봉의 마음이 바짝 긴장해졌다.

향미의 천진스러운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온다.

《내가 큰아버지한테 말하면 우리 큰아버지가 굴착기와 불도젤을 오늘 무조건 끌어온다구. ...》

《영?! ...》

순간 전상봉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려주는 박동소리와 함께 코마루가 시큰해왔다.

향미의 티없이 맑은 순진한 목소리가 계속 울려왔다.

《큰아버지, 내가 잘못 말했나요?》

《?...》

《나도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아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있어요. 그러구 책임적인...》

향미의 목소리가 문득 토막지며 끊기었다.

봉— 하는 손전화기의 소음이 폭우소리와 함께 전상봉의 귀가 아니라 심장을 아프게 에이며 울려왔다.

(이 애가 울고있구나.)

전상봉은 손전화를 꼭 움켜잡고 마른침을 꿀꺽 삼키었다.

다시 향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토막지며 울려왔다.

《큰아버지! 사람들은 말했어요. 전상봉부직장장 아버지가 있다면 꼭 해낸다구요.》

《?!》

향미의 울먹이는 그 목소리가 전상봉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내가 있다면 꼭 해낸다구?!...》

이름도 모를 그 못사람들의 믿음에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듯 믿고있었던 말인가. 그러고보면 나도 지금껏 헛살지 않았다는 커다란 자부심이 산악처럼 머리를 쳐들었다.

순간 갑자기 하늘과 땅을 통채로 끌어안고 들어올리기라도 할것 같은 거대한 힘을 느끼었다.

손전화기에서 향미의 부름소리가 또다시 울려왔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허나 전상봉은 굳어진채로 서있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서서히 고여오르고 있었다.

향미는 여전히 안타까운 목소리로 찾고있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하지만 의연히 전상봉은 굳어져있었다.

그의 심장은 청춘의 활기를 넘겨받은듯 뿜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저 천진하고 순진한 향미의 믿음과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할수 있는 길이면 목숨인들 아까우랴...

그는 속으로 향미에게 대답하고있었다.

(오냐, 가마. 가겠다. ... 큰아버지구실을 하겠다. 나를 믿고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겠다.)

폭우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며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었다.

전상봉은 일어섰다.

《떠나겠수다.》

《함께 갑시다.》

《싫수다. 요즘 나를 사람값에 쳄소?》

《허허... 아바이, 책임비서동지가 그쪽에서 길들을 복구하고있습니다. 아바이를 마중해오고있습니다.》

《!》

아바이는 또다시 불명어리를 안은듯 가슴이 뜨거워났다. 그리고 눈앞에 눈부신 해빛이 찬연히 비쳐드는것과 함께 산을 안은듯 마음이 넓어지고 흠뻑해왔다.

아바이는 말없이 초급당비서의 손을 잡고 힘껏 쥐었다놓았다.

미구에 마당에서는 불도젤과 굴착기가 발동을 걸고 대형런결차가 발동을 거는 소리가 폭우소리를 밀어내며 울렸다.

드디어 거대한 힘장수들을 실은 대형런결차가 폭우를 헤치며 발전소건설장을 향해 떠났다.

(향미야! 나도 네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들을 네가 있는 곳에 기여이 물고가겠다. 네 아버지가 내 가슴에 영원하듯 나도 사람들의 믿음속에 영원히 살겠다!...)

전상봉아바이의 눈앞에는 이제 넘고 헤쳐가야 할 100여리 험한 령길과 넘어진 전주대들, 무섭게 범람하는 강물이며 산골물의 흐름이 열른거렸다.

이제 목숨을 내대야 할 위험천만한 일이 앞을 막아나선들 어떠랴. ... 하지만 그것은 지금에 와서 두려움보다도 노래처럼 랑만으로 안겨왔다.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책임비서의 안경 낀 사려깊은 얼굴과 웃을 때마다 덧이가 살짝 드러나는 향미의 새물새물 웃는 눈이 떠오르고 건설장의 모닥불가에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곳 발전소건설장에 와보니 우리 건설자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신심과 용기를 받아안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환히 안겨왔다.

전상봉아바이의 스러져가던 삶의 욕망과 희열이 대변에 나래를 퍼덕이며 솟구쳐올랐다.

사람은 이런 멋에 사는가?

그 누구든 생명의 마지막꽃이 살아있을 때까지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 사랑속에서 살아야 한다. 한 순간이라도 그것을 잃는다면 무슨 멋에 살랴!

벌써 영광령을 넘은 대형런결차발동소리는 폭우를 누르며 세차게 울려가고있었다.

그것은 책임비서와 향미, 낯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에 대한 그의 심장의 대답이였고 전상봉아바이의 흥그러운 사는 멋이 낳은 인생의 노래가락이었다.

×

이튿날 새벽, 전상봉아바이는 초급당비서와 함께 그리고 도중에서 맞아준 책임비서와 함께 대형런결차를 몰고 폭우가 멎은 발전소건설장에 도착하였다.

온통 흙탕물에 게발리고 피가 터진 손과 얼굴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100여리길을 헤쳐왔는가를 말없이 증언해주고있었다.

울며 웃으며 향미가 새끼염소처럼 뛰어오고 여기저기서 건설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흥수처럼 그들에게로 밀려왔다.

전상봉아바이의 주름깊은 눈가에는 어린애같은 천진한 웃음이 피어나고있었다.

# 체육열풍

리명학

이렇듯 가슴 설레인적 있었던가  
텔레비존과 신문 방송에  
우리 선수들의 경기소식 실리면  
마치나 그들속에  
자식이 있는듯 형제가 있는듯  
온 나라가 관심되어 웃고 떠들며...

이렇듯 가슴 벅찬적 있었던가  
공장마다 일터마다  
운동장 경기장 새로이 번듯하게 닦고  
너도나도 선수가 되어  
땀을 흠뻑 흘리며  
넘치는 힘과 열정에 멋지게 살고...

종구나  
우리 원수님  
온 나라에 지펴주신 체육열풍  
오, 그것은  
온 나라가 한마음 더 굳게 합치는  
단결의 열풍  
온 나라 인민이 더 빨리 내달리게 하는  
속도의 열풍

그처럼 바쁘신 시간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경기모습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그처럼 환히 웃으시던  
우리 원수님 미소에  
더 세차게 타번지는 열풍이어

찬연한 람홍색국기가  
세계의 하늘을 뒤덮을  
멀지 않을 래일을 위해  
조선은 달리여라  
지구라도 들어올릴  
힘과 용기 키우며  
인민은 더욱 강해져라

오, 체육열풍  
조선이 언제나 앞서게 하고  
조선이 언제나 이기게 하는  
조선의 열풍이어  
우리 조선 빛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이 안아오시는  
애국의 열풍이어

가사

## 우리 군대 장한 모습 여기에 있네

송명근

굽이치는 강줄기를 단숨에 막아  
우쭐우쭐 언제나 솟구치는 곳  
조선속도 창조되는 일터 찾으면  
우리 군대 장한 모습 여기에 있네  
아 새 속도의 첫자리엔 병사가 있네

눈비와도 모든 시련 맞받아가며  
멋쟁이 새 거리를 세워가는 곳  
그 일숨씨 놀라워 쳐다보며는  
우리 군대 장한 모습 여기에 있네  
아 결사판철 첫자리엔 병사가 있네

문명국의 아름답고 밝은 미래가  
소리치며 눈앞에 솟아나는 곳  
원수님뜻 꽃피우는 이 땅 어디나  
우리 군대 장한 모습 여기에 있네  
아 새 기적의 첫자리엔 병사가 있네



# 위대한 승리의 비결에 대한 소박하고 감명깊은 형상

송 원 길

수필 《사랑과 보답에 대한 생각》(조인영 작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7호)을 읽고나니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송되는 서정시 《용서하시라》의 결구가 떠오른다.

다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길을 떠나는 비장한 정황에서 철없던 그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두고 그토록 자책감에 모대기면서 조국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조국에 충정다할 불같은 맹세의 서정으로 치달아오르던 끝에 나직하나 승엄하게 울리는 시의 결구 《…그리고 용서하시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하여 더 싸우지 못하고 가는것이 그리도 죄스러워 조국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필을 아담하게 잘 쓰면 소설이나 시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울릴수 있다.》

수필 《사랑과 보답에 대한 생각》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심오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작품은 문학의 여러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문제이론의 요구를 창작실천에 구현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요인에 대한 크나큰 사회정치문제를 수필이라는 작은 형식속에 재치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인민군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세계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인 조국에 바치는 인민군전사들의 끝없는 보답의 료리, 수령과 전사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수필이라는 작은 형식의 작품에 재치있게 형상한 비결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적극적인 태도와 현실속에서 생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작가적인 안목에서 찾을수 있지만 독특한 수법으로 수필을 창작한 작가의 원숙한 형상능력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필자의 남다른 얼굴이 엿보이고 깊은 사색과 풍만하고 생신한 사상감정이 담긴 좋은 수필을 써내기 위해서는 우선 수필의 소재와 계기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수필은 생활소재와 계기에서 받은 느낌을 서술해

내는 글로서 어떤 생활소재, 어떤 생활계기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수필을 생신하고 감동적으로 써내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작품은 《나》의 시점에서 독자들에게 강한 정서적여운을 안겨주는 수필의 특성에 맞게 수필창작을 위한 소재와 계기를 《나》와 가까운 생활속에서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우선 필자는 수필의 소재를 자기와 혈연적으로 가까운 아버지의 생활에서 찾고 의의있는 문제점을 잡아쥐였으며 아버지의 시신을 감장할 때 본 험한 파편자옥들과 운명직전에 남긴 아버지의 유언에서 수필의 계기를 선택하였다.

필자의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으로 달려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전우들의 피와 살로 기적적으로 소생하였으며 그후 최고사령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마련해주신 화선휴양소에서 휴양생활까지 한 전쟁로병이다.

그후 필자의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나는것과 함께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전쟁전과 같이 영화기술원으로 일하였으며 력사적인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례제》 발표후 선참으로 농촌에 진출하여 근 40년세월을 묵묵히 사임없이 일하다가 거기에 뼈를 묻었다.

필자는 이렇듯 자기자신이 오랜 기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온 자기의 가장 가까운 생활에서 수필의 소재와 계기를 선택하고 깊은 사색과 탐구속에서 사랑과 보답의 위력에 대한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작가가 작품에서 보여준 능란한 형상능력은 독특한 서정전개방식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필에서의 서정의 전개는 인물관계, 이야기줄거리조직을 기본으로가 아니라 생활에서 받은 필자 자신의 느낌의 확대, 심화로 실현된다. 다시말하여 서정시와 마찬가지로 필자의 느낌으로부터 서정이 발생하여 일반화과정을 통해 서정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것이다.

이러한데로부터 수필에서의 서정은 생활의 계기에서 받아안은 필자의 느낌이 작가 자신의 생활과 결부되어 새롭거나 더 깊은 의미를 담은 느낌으로 전개된다.

수필의 이러한 서정전개방식은 주로 필자의 주정토로를 통하여 실현되는것이 보편적이다.

이 작품에서 필자의 주정토로는 많지 않다.

얼핏 보기에는 다른 수필과는 달리 서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서정이 얼음장밑의 강물처럼 작품의 밑바탕에 줄기차게 굽이치고있다.

그것은 바로 필자의 주정토로를 서정의 전개방식으로 하던 종래의 수필형상수법을 답습하지 않고 감동적인 사실의 역사적증거자인 여러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배합하여 필자의 사색과 느낌이 끊임없이 확대심화된 주정토로가 결합된 결과이다.

작품에서는 인민군용사들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직접 받아안은 아버지와 역사적사실의 증견자들인 런던장과 야전병원 정치부원장의 대사를 통하여 수령님의 사랑을 독자들에게 새로운 맛이 나면서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함께 작품의 서정성을 한껏 높이고있다.

필자가 작품에서 보여준 능란한 형상능력은 또한 작품의 특색있는 구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수필은 현실속에서 받아안은 강한 느낌이나 생각을 《나》의 시점에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글이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직접적인 소개로 시작하여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철없던 그 시절에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풀리는 과정으로 형상한 작품의 구성은 자유분방하다.

작품은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나》의 시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회상의 수법으로 구성되어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 에 대한 소개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의 생활을 순차적구성방법으로 형상한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나》의 시점에서 조국해방전쟁직후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아버지의 생활이 필자의 회상으로 엮여지고있다.

작품의 구성에서 더욱더 이채로운것은 회상으로 엮여진 이야기속에서 아버지자신이 수첩에 남긴 조국해방전쟁시기 생활이야기를 회상의 수법으로 겹놓으면서 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작품은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사랑의 위력으로, 무비의 헌신과 보답의 힘으로 승리하였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여운있게 끝맺고있다.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그지없이 평범하다고 생각한 아버지 에 대한 소박한 소개로 시작하여 위인의 사랑의 세계와 전사들의 보답의 료리, 사랑과 보답의 위력을 해명한 작품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은 크다.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전사들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화선휴양소의 뜨거운 전설을 낳았다. 한없이 다심하신 그 사랑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선기도 헤아려 더운 밥과 더운 국, 콩나물을 불비쏟아지는 전선의 용사들에게 안겨주었다.

어버이수령님 베푸시던 뜨거운 그 사랑을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이어가셨고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이어가신다.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속에 대를 이어가며 받아안은 그 사랑은 다심하고 정깊으면서 끝을 모르는 사랑이어서 그 사랑에 바치는 헌신과 보답 또한 끝이 없다.

독자들은 대대로 이어지는 위대한 사랑이 있어, 대대로 충정다해 바치는 보답이 있어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승리만을 펼칠 우리 조국의 희망찬 앞날을 확신하게 된다.

작품은 작가들이 공인된 형상수법, 고정격식화된 틀에만 매달리지 말고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때 작품의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높이면서도 작품에 한편의 아담한 산문시, 서정시로서의 수필의 새로운 맛이 깃들게 할수 있다는 경험을 보여주었다.

눈을 감으면서도 《받은 사랑에 다 보답》 못하고 가는것을 죄송스러워하던 아버지의 마음까지 합쳐당과 조국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보답의 길을 이어가면서 필자가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써내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 상식

### 교통안전신호등

1868년 12월 10일 런던의 어느 한 도로교차점에 안전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교통안전신호등이었다.

높이가 7m정도 되는 강철기둥우에 두개의 가스등(하나는 빨간색등, 다른 하나는 파란색등)이 올라앉아있었다. 이 등불을 관리하는것은 교통정리원이었다. 빨간등은 정지신호이고 파란등은 주의신호였다.

1914년 8월 5일 서방의 어느 한 도시에 처음으로 전기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종이 울리었다. 3색(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신호등은 1918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 봄빛넙친 로컬에서

김 충 기

이 아침도 방송에선 들려오누나  
미제의 핵전략폭격기가  
태평양을 건너 또다시 날아들고  
전쟁의 도화선은 한치한치  
불꽃을 튀기며 타들어가고있다고

제 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전쟁미치광이들을 모조리 깔아뭉갠듯  
나는 발동소리 높이 프락프르 몰아간다  
틀어잡은 운전대에 지그시 힘을 주며  
푸근푸근 부푼 대지를 갈아엎는다

오늘도 이 땅에선 아이들을 위해  
배움의 종소리 시간맞춰 울리고  
콩우유차들은 해빛밝은 도로를 달리리  
사랑의 선물 가득 실은 직송기들은  
서해의 섬들을 찾아 날으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순회도  
본래의 고운 모습 되찾고 퇴원한다지  
온몸에 화상입고 의식을 잃었던 애들  
온 병원이 달라붙어 소생시키고  
이름도 모를 술한 사람들 피부를 떼준걸 생각하면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고마움

정녕 고마워라  
태어날 때부터 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고 키워준 품  
병이 날세라 예방주사 놔주고  
마음껏 공부시키며 희망을 꽃피워주는 품

고난의 찬눈비도 다 막아주고  
원썬들의 끊임없는 침해로부터도 지켜준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그 품에서  
누구나 힘껏 일하고 창조하며  
보람차고 문명한 생활 누려가거니

고마운 이 제도를 쌀로 받들자고  
우리의 원수님 더욱 빛내주시는  
사회주의를 한몸바쳐 지켜가자고  
애어린 모들도 다투어 푸른 잎 펼치는것만 같은  
나의 포전

원썬격멸의 의지로 들끓는 이 땅에  
나는 발동소리 높이 프락프르 몰아간다  
놈들의 아성을 단숨에 짓몽개버릴듯  
틀어잡은 운전대에 지그시 힘을 주며  
봄빛넙친 대지를 갈아엎는다

# 그리움의 눈물이어

김 정 삼

누가 말했거나  
눈물은 약자의것이라고  
세포땅의 대자연을 정복해가는  
우리들의 눈물은 강자의것이다

강산을 천만번도 변화시킨다는 그 세월도  
감히 어찌지 못한 황야에서  
모진 시련과 힘겨움을 다 겪었어도  
웃음만은 잃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눈물

아, 오직 한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기둥으로 믿고사는  
이 나라 청춘들의 심장속에서  
화산의 용암처럼 뿜어오르는  
그리움의 눈물이어

원수님의 이야기만 한번 하여도  
금시 눈굽이 축축히 젖는 마음들

그리움의 불덩이에 목이 짝 메나니  
진정 우리의 님이 되고 목숨이 된  
오, 피같은 그 진정이어

그리움에 불타는 그 얼굴들에서  
방울방울 불을 타고 흘러내리어  
세포등판의 얼음대지를 한치한치 녹이고  
이 땅 행복의 뿌리들을 적서운  
그 눈물의 힘! 그 눈물의 뜨거움!

그리움이 이글거리는 눈물의 그 힘 그 뜨거움  
으로  
가혹한 시련을 다 이기고  
황포한 대자연을 두발밑에 눌러딘은  
승리한 정복자들은 이렇게 웨친다  
그리움의 이 눈물로 이 나라의 청춘들은  
쓸모없던 세포대지를 뒤엎어  
위대한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했노라고



리 룡 운

밤이다.

로천채석장쪽에서 울리는 착암기소리들이 가벼운 밤바람을 타고 귀맛 좋게 들려온다.

현장에서 들어오며 병실모통이를 돌아서던 돌격대장 백영철은 어둠속 저편에서 두런두런 들려오는 말소리에 무뎠음을 멈추었다.

《…그 담배맛이 그렇게 좋더라 말이지. 아마 그럴거야. 전번에 보내온 지원물자들속에 우리 집사람이 특별히 열갑 넣어보냈거니까.》

자랑하듯 말하는건 분명 화물차운전사 최정식의 목소리다.

《열갑씩이나요?! 그런데두 뜯어서 몇대 뽑아 피운 담배갑을 주면서 큰 선심이나 쓰듯 했구만요.》

이건 또 3소대장 김정철의 목소린데…

그는 돌격대에 몇 안되는 대학졸업생이었다.

둘사이가 잠잠한걸 봐선 아마 정식이 앓차— 하고 혀를 깨무는 모양이다. 갱뽕한 얼굴에 바투 깎은 상고머리를 굽적거리며 서있을 그의 모습이 보이는듯 했다.

한데 정식이 무엇때문에 자기보다 나이도 썩 아래인 정철의 앞에서 저렇게 주눅이 들어하는가?! 말투조차 슬슬 얼리려드는듯 했다.

대단한 애연가인 그가 남에게 담배를 주었다는것도 어쩐지 끝이들리지 않았다. 호주머니에 담배가 떨어지면 밤맛부터 잃는다는 정식인것이다.

이렇게 남의 말을 엿듣는것이 안된 일인줄 알면서도 어쩐지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은근히 다음말이 기다려지었다.

《사실 그새 다 피우구 그게 남은 마지막담배였

네.》

《아니, 지원물자가 온게 언젠데 벌써 그걸 다 피워요. 혹시 담배를 피우는게 아니라 입에서 때는 거 아니야요?》

점점 더 난처한 처지에 빠지는듯 하던 정식이 말머리를 휙 돌려버렸다.

《그건 그거구 소대에 차 쓸일이 뭘 없겠나? 오늘은 차정비도 일찍 끝냈으니 이제부턴 시간이 있어.》

차, 이것 봐라. 차라면 더구나 자기 살불이처럼 여기면서 누가 다치지도 못하게 하던 저 구두쇠가 언제 저렇게 인심좋은 아저씨가 되였는가.

백영철은 남의 말을 엿듣는 말도적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도 감감 잊은채 점점 더 깊은 의혹에 빠져버렸다.

《소대에 뭘 따로 차 쓸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운전사동지, 어제부터 왜 그래요? 할말이 있으면 툭 더놓고 하라요. 사내들끼리 뭘 자꾸 빙빙 에돌면서 그래요.》

정철이 핀잔하듯 호기있게 하는 말에 최정식이 기다렸다는듯 활기를 띠고 접어들었다.

《거 말 참 잘했어. 그까짓 소대장과 운전사라는 직무상차이만 벗어나버리면 다같은 사내들끼린데 에 돌것도 없지. 내 체면을 좀 세워주게. 거 있잖나, 시라는걸 하나 좀 써달라구.》

아하! 그래서였구나! 하고 백영철은 속으로 이마를 찼다.

나이도 어지간한데다 또 돌격대에 유일한 대형화물차운전사라고 평소에 정철이쥔은 항상 코아래로 보며 조수 대하듯 하던 그가 소대장이라는 직무까



지 깎듯이 피어올릴 땐 쪼간이 있다 했더니...

백영철의 입이 벅글썩해지며 어둠속에서 혼자 웃었다.

저런 능청꾸러기라구야. 그래서 정철이를 구렁이 닮았어 하려했구나.

《시요?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정철의 물음에 정식은 그답지 않게 빨래줄처럼 길다란 설명을 달았다.

《머칠전에 있는 작품발표회 말일세, 가만 듣자니 역시 자네의 시가 제일 멋있더구만. 내 모르는 소견에도 코가 다 찡해지더라니까. 대장동지가 이제 래일이나 모레쯤엔 또 그런 발표회를 하겠다고 할텐데 이런 난사가 어디 있겠나?! 어린 처녀들까지 다 썼는데 머리통이 커다란 나 하나만 여적 빈손이야. 이렇게도 써보구 저렇게두 써봤는데...

에이, 안되겠어. 부탁하네, 날 도와서 래일까지 시 하나를 좀 써달라구.》

세상만사에 막히는게 없노라구 노상 흰소리치던 그가 저렇게 허아래소리를 할 때두 있는가?!

《래일이요? 아니, 시라는게 뭐 스파나로 틀어맞추었다풀었다하는 차부속인줄 알아요? 그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하, 이젠 뒤흔두 앓구 가마에 넣을 잡도리구나. 내참!》

어이없다는 투로 목대를 세우는 정철의 말에 백영철은 웃음이 락- 터지려는 입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

돌격대가 이곳 광산에 짐을 풀어놓은지도 어느덧 6개월이 가까와온다. 국정관문도시의 대상건설에 필요한 석재채취를 위해 조직된 돌격대였다.

화강석광산에서 좀 떨어진 어느 한 건물에 침실을 정한 돌격대는 도착한 첫날부터 광산사람들마저 깜짝 놀래우리만큼 일을 해제켰다. 화강석을 채취하자면 우선 수백립방에 달하는 버력을 처리해야 했다.

불과 30여명의 돌격대원들은 밤낮으로 달라붙어 단 한주일남짓한 기간에 그 많은 버력을 처리하고 수억년 땅속에 잠자던 가장 질 좋은 거대한 화강석 암반을 드러내놓았다. 그리고는 뒤이어 그우에 십여미터의 특수정대들을 박아가며 수백톤급대발과를 들이대어 석재생산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사실 이러한 성과는 돌격대원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책임지고있는 백영철자신도 선뜻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었다.

석재채취란 텔레비존화면에서나 보아왔고 더구나 그런 분야의 일에는 전혀 문외한인 대원들을 데리고 모든 조건이 불비한 이곳으로 떠날 때 당사자인

백영철은 물론이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일꾼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돌격대원들은 그 우려를 싹 날려버리게 하였다. 대장인 백영철 못지 않게 광산의 오랜 기능공들을 찾아다니며 기능을 익히고 묘리를 배웠고 서로 지혜를 합쳐가며 나름대로의 창발적의견을 내놓곤 하였다. 누구든 조금도 뒤전에 서려 하지 않았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여 대렬편성을 할 땐 그로 하여 어지간히 골머리를 앓은 백영철이었다.

착암공, 압축기운전공, 발파와 연공작업...

모든것을 다 도맡아할듯이 저마끔 나서던 그들이 한가지 일만은 모른척 하며 서로 눈치를 살피었다.

《...그러니까 취사원할 동무가 정말 없소?》

잔뜩 목을 움츠리고 혹은 먼산을 쳐다보며 아닌 보살을 하는 대원들을 둘러보는 백영철의 어조에는 짜증마저 어리었다. 여기로 오는 차안에서 한껏 들떠있는 대원들을 보며 은근히 걱정하던 문제가 눈앞에 박두한것이다.

횡대로 늘어선 대렬의 끝에 선 몇 안되는 처녀들쪽을 향해 어서 나서라고 흘금흘금 눈길을 던지는 축들도 있다. 하지만 처녀들은 입술을 삐죽거리고 썰썰해진 표정들이 누구도 선뜻 나설 기색이 아니었다.

(홍, 우리가 뭐 여기 와서까지...) 하는 억울한 표정들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시키고싶지는 않았다. 내키지 않아하는 일은 성수가 나지 않는데다 결과도 시원치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백영철이다.

바로 그런 때 처녀들속에서 한발 내짚으며 조용히 나서는 처녀가 있었다.

《저, 제가...》

처녀들중에 그중 나이도 들어보이고 그로 하여 행동거지나 눈빛마저도 남달리 진중해보이는 처녀였다.

이름은 김경희, 도안의 어느 려관료리사로 있던 처녀였다.

순간 영철은 《고맙소.》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걸 꿀꺽 삼키며 《그럼 그렇게 합시다.》하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제부터 려관료리를 먹으면서 일하게 되었다고 웃으며 수군거리는 대원들을 보느라니 한껏 허거픈 웃음이 났다.

아닌게아니라 처녀의 료리솜씨는 대단했다.

무엇이 많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언제 봐야 같은 감을 가지고 만든 음식 하나하나에도 거기에 바쳐진 정성의 손길이 허끝에 감돌았다.

《여, 이거 남새국이 원래 이렇게 맛이 있었드

라?》

《뭘 그래, 새삼스레… 누가 뚫인거라구.》

《차, 이거 난 요즘 몸이 나는것 같애. 이전엔 몰랐는데 광구까지 이르고나면 숨이 막 차가던.》

《거 식사조절 좀 해야 되겠어. 누가 보면 돌격대에서 휴양생활하다 온줄 알겠어.》

《입이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 아무래도 취사원을 교대시키든가 해야지.》

덧국까지 청해가며 음식을 달게 드는 대원들을 볼 때마다 백영철은 흐뭇한 마음과 함께 경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곤 하였다. 하지만 그 고마움의 색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희미해져갔으니 그만큼 돌격대앞에는 일감이 산같이 쌓여있었다.

얼마후 백영철은 머지않아 있게 될 발파에 요구되는 자재문제해결로 며칠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예상외로 병실안이 텅 비어있었다.

현장에서는 한창 작업중이겠으나 웅당 있어야 할 취사원 경희까지 보이지 않았다.

소리쳐 찾아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혹시 피곤으로 쪽잠이라도 든게 아닌가 하여 처녀들의 병실문을 두드려보았으나 역시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이 비었는데 손바투 규모있게 포개놓은 모포위에 크지 않은 학습장 한권이 펼쳐진채로 놓여있었다. 얼핏 들여다보니 식량과 갖가지 부식물들의 품명과 수량들이 날자별로 적힌 것인데 아마 스스로 작성하는 일출고일지 같았다.

무심결에 그걸 들고 후르르 번지느라니 두칸두칸 그 의미가 명백치 않은 글들이 드문히 있었다.

(《잉어도 바다로 가요》?! 이젠 무슨 뜻인가?)

잉어라면 민물에 사는 물고기인데 바다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린지 알수가 없었다. 꼭 애들의 동요제 목같은 글을 원주필로 꼭꼭 덧금을 그어가며 써놓았다. 백영철은 씩 웃으며 고개를 기웃거렸는데 그 뒤로 몇장을 더 번져서야 그 《동요》제목의 의미를 깨달을수 있었다.

거기에는 그날 출고된 식량과 부식물의 수량과 함께 밑에 이런 글줄도 있었다.

《민물고기를 가지고 담근 식혜를 바다고기식혜 못지 않게 맛있게 드는 대원들을 보니 정말 기쁘다. 이전에 학교에서 배운 리론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정성을 기울이니 방법도 생긴다.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낳는 이런 전투장에서 부차적인것으로 인식된 취사원일을 스스로 맡아안을 땀 어쩔수 없는 의무감에 쫓기웠지만 위훈과 혁신을 갈망하는 대원들의 어머니가 되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자고 결심하니 스스로 자각하고 더 분발하게 된다. 아마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재미에 자신의 수고를 생각지 않는지도 모

른다.

…이전에 나는 이런 말을 들은적이 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무심히 들었던 그 말의 의미를 여기 돌격대에서 깨닫는것 같다.》

순간 백영철은 그 자리에서 뒤주일전에 있는 일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날 낮에 경희는 대원들에게 시원한 국수를 말아 내놓았다. 뜨거운 가을볕에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대원들은 곱배기국수까지 사양없이 맛있게 들었다.

《어— 이런 국수엔 땀싸하구 새콤한 명태나 가재미식혜가 제격인데.》

한 대원이 금시 저가락을 놓고 입을 닦으며 하는 말에 식탁 저쪽에 앉았던 다른 대원이 한입 물었던 국수를 꿀꺽 넘기며 나무랐다.

《저 친구 알건 다 알아서… 말타니까 견마잡히겠네.》

그런 뒤 며칠 지나서 저녁식사로 다시 국수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정말 갖가지 양념을 시뻘겋게 들쓰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식혜까지 반쳐올라왔다.

그때 화강석돌산우에서 갑자기 이게 웬 바다고기냐고 놀라는 대원들에게 조용히 웃어보이기만 하던 경희의 모습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백영철이도 그때 식혜의 맛이 좀 류별나다는 생각은 했었으나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다.

아마 식혜에 들어간 물고기는 이곳 광산양어장에서 좀 얻어왔을것이다.

(허, 그래서 민물고기더러 바다로 가자됐구나, 마음씨두…)

한 대원이 별치않게 한 말을 두고 것처럼 마음쓰고 고심했을 처녀의 그 수고가 가슴 한끝에 찌르르 마쳐왔다.

(그래, 그게 바로 어머니들의 마음이지.)

백영철은 마음 한귀퉁이로부터 슬며시 젖어드는 그 어떤 따뜻한 감정을 의식하며 병실앞을 나섰다.

그러다 뭔가 한웅큼 싸안은 앞치마자락을 걷어쥐고 급히 병실모퉁이를 돌아서다 반색하는 경희를 보았다.

《어마, 대장동지. 언제 오셨습니까?》

《오, 지금… 헌데 건 뭐요?》

《저, 길짱구… 송동무가 갑자기 신장병이 도졌다기에…》

신장병에 길짱구달인물이 약이라는 말은 백영철이도 들은적이 있다. 이렇듯 대원들을 위해 자신의 잠시간마저 바쳐가는 처녀의 모습은 그날 밤 늦도록 백영철로 하여금 실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

켰다.

돌격대의 다음날 전투총화는 이채롭게 진행되었다.

모두가 하루전투과업수행을 기쁘게 총화하며 슬렁이는데 느닷없이 백영철이 식당취사원인 경희를 불렀던 것이다.

대원들의 맨뒤에 앉았다가 뜻밖에도 지명을 받은 처녀는 엉거주춤 일어서며 사뭇 놀라는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 그를 바라보던 백영철은 빙시 웃으며 물었다.

《경희동무, 동문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오?》

《예? 시… 말입니까?!》

처녀는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잠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백영철의 진지한 눈빛을 뵈히 바라보았다.

《저… 저는…》

잠시 머뭇거리던 경희는 고개를 번쩍 쳐들며 자신에 넘친 목소리로 꼭꼭 그루박아 말하였다.

《전 서정시〈어머니〉를 제일 좋아합니다.》

《좋구만. 그런데 어째서 그 시를 그렇게 사랑하오?》

백영철의 이 물음에도 처녀는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전 세상에서 어머니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바로 그 시에 어머니에 대한 저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만이 아니라 저… 보다 크고… 더… 웅장하게 담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녀는 갑자기 적중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마지막말을 좀 갑자기기는 했으나 자신의 견해를 명백히 말했다.

《동무들의 생각엔 어떻소?》

백영철의 물음에 장내가 이구동성으로 호응하였다. 경희가 자리에 앉자 영철은 이어 몇명의 대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다. 대답은 모두 각각이었다.

어떤 대원은 시 《나의 조국》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고 또 어떤 대원은 《어머니의 당부》를, 누구는 《백두산》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개중의 누군가는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의 한대목을 손짓몸짓 섞어가며 익살스레 읊어 장내를 한바탕 웃기였다.

이렇게 되어 저녁총화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굶으로 흐르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떠들썩하던 장내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던 백영철이 폭 가라앉은 어조로 말을 떴었다.

《아마 동무들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화제를 꺼내는가 하고 의아해할거요. 사실은 내 어제 밤 어느 책에선가 이런 대목을 읽었소. 그게 뭐냐.…》

대원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을 일별하며 영철은 다

시 말을 이었다.

《〈사람은 자기 한생에 적어도 한편의 작품을 쓸수 있다.〉 이거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가가 한 말이요. 다시말해서 자기 한생에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이도록 서술한것이 바로 완결된 하나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 바로 나의 견해요. 그것이 소설로도 될수 있고 시로도 될수 있고 또 수필이나 다른 형태의 글로도 될수 있지만 명백한것은 필자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세상에 대고 꼭 말하려는 문제거리가 있다는거요. 그럼 우리 돌격대를 시점으로 놓고보면 어떤가?!》

이렇게 서두를 떤 영철은 그간 돌격대가 거둔 놀라운 성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였다. 거기에는 거의나 맨손으로 방대한 버럭들을 처리하던 그 나날도 있었고 특수정대를 암반에 박아넣느라 낮에 밤을 이어 돌가루를 뽀얗게 들쓰며 착암기를 돌려가던 이야기도 있었다.

거기에는 한겨울의 혹한에 광구의 정점에 올라 내의바람의 옷몸을 더운 땀으로 적시며 함마를 휘두르던 날들도 있었고 넘겨뜨린 대돌의 착암수평을 맞추느라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앞장서서 그 밑에 기여들어가던 감동없이는 볼수 없던 사실도 있었다.

불어오는 서해의 광풍속에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활차를 거대한 암석우에 끌어올리던 아슬아슬한 연공작업의 날도 있었다.

일만 한것이 아니었다.

배구와 탁구를 비롯한 소대별 체육경기도 있었고 시기별로 제시되는 당정책학습경연도 있었다.

《…동무들, 작가들은 더 좋은 글을 쓰자고 현실 체험을 나간다고 합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들끓는 현실을 바로 알 때라야만 비로소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을 내놓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동무들이 지나온 우리 돌격대생활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훌륭한 글들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철의 이 제의는 대부분 대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부 머리를 기웃거리며 자신없어하는 측들도 있었다.

《팬썰소. 지금껏 얼마나 넘기 힘든 고비들을 함께 넘어온 우리들이요. 그러니 이 작품창작에서도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간다면 문제될것이 없을거요.》

이리하여 돌격대에는 새로운 바람, 창작작이라는 새로운 열풍이 일어났다. 자기들이 품고있는 감정과 생각을 즉흥적으로, 전투적으로 담기에는 창작이 제일 적합하였다.

대체로 한주일이나 닷새를 주기로 창작발표모임

을 가지었는데 여기서는 지은 시를 랑송할뿐만 아니라 서로의 독후감도 나누면서 밤늦도록 모두들 열성이 대단하였다.

처음 그들이 지은 시라는것들은 각양각색이었는데 별의별것들이 다 있었다. 대원들의 문학재산이라는게 대다수 멀리 흘러간 중학시절에 배운 리론들과 그때 암기해둔 몇편의 시구절들이 고작이었다. 그러다나니 도무지 뭘 말하려는지 알수 없는것도 있었고 마치 긴 작문을 칼로 툭툭 썰어놓은듯한것도 있었다.

어느 한 대원이 자기가 쓴 시를 펼쳐들고 손을 내젓고 머리칼을 휘날리며 목청껏 읊고났을 때 영철은 그중 나이 어린 한 대원을 불러일으켰다.

소감을 말해보라는 대장의 말에 그는 한동안 머리를 기웃거리며 난감해하다가 단마디로 말해버렸다.

《거 뭐... 좀 와디디합니다.》

흐-하 폭소가 터졌다.

모두들 듣고나서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자기의 소감을 발표했지만 그들이 썼다는 작품 역시 신통치 않았다.

이런 날이면 백영철이 문학리론을 강의하는 연사로 나서곤 하였다.

사실 백영철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문학에 취미를 두고 술한 책들을 읽었는데 군사복무때는 물론이고 대학시절에도 여러건의 작품들을 창작하여 잡지에 발표하였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였다.

문학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형상과 그 수법에 대하여, 감정의 흐름새와 생동한 언어구사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런 강의는 때로 몇시간씩이고 진행되었는데 대원들은 모두들 실감있는 그의 말을 듣노라고 피곤마져 잊어버렸다.

누구의 발기인지 병실의 복도에 《시창작 경쟁도표》가 나붙었다. 개별적으로 줄칸을 치고 실적에 대한 기록은 3소대장 김정철이 맡아하였다.

대학을 졸업한데다 그중 문학적소양이 높다고 하여 자칭 돌격대의 《주필》노릇을 맡아나선것인데 잘되었다는 작품은 크게 써서 경쟁도표옆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돌격대안에 문학열풍이 일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들의 수준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여, 함마질 좀 조심히 하라우. 그러다 이 힘들게 캐낸 종자를 손상시키겠어.》

《종자라니?! 무슨 소리야?》

《차, 이런 친구라구야. 우리가 지금 캐낸 이 돌이 종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게 이제 실려가서 잘 다듬어 멋지게 형상해놓으면 훌륭한 작품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작업의 여가에 대원들이 주고받는 말도 창작어로 지향되었다.

×

방금 한 대원의 시랑송이 끝났다.

스스로의 감정에 도취되어 손을 내저으며 격조높이 랑송을 끝낸 그는 어쩌나 하는듯 한 눈길로 동무들을 휘둘러보았다.

백영철은 이전에 그의 시를 두고 와디디하다고 혹평했던 나이 어린 그 대원을 다시 지명했다.

《...어떻소? 한번 평가해보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고 형상적으로 말이요.》

일어서서 잠시 고개를 기웃하고 생각에 잠겼던 그 대원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현철동지 시는 언제보나 너무 웨치기만 합니다. 저 뭐랄가... 말하자면 아무리 맛있는 사탕도 크기가 적당해야 한입에 넣고 맛보겠는데 이건 너무 크니까 어느쪽으로 입을 대야 할지 가늠이 안 갑니다.》

주위에서 킁킁 웃음이 일었다.

《뭘? 그럼 칼로든 망치로든 까서 한조각씩 맛보면 될거 아니야!》

현철이라는 대원이 두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첻, 억지부리지 말라요. 의견이야 접수해야지 우기면 돼요?!》

두덜대듯 말하며 자리에 주저앉는 그를 보고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백영철은 어린 대원의 그 비유가 마음에 들었다.

뽀니뽀니해도 형상적인 사유능력이 높아진것이 기뻐다.

다음은 화물차운전사인 최정식을 불렀다.

주뿔주뿔 일어나 어정쩡한 눈길로 구원을 청하듯 바라보는 눈빛이 어쩐지 석연치 않았다. 어제 밤정철이와의 《사업》결과가 시원치 않은듯 했다.

아닐세라 바지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어 펼쳐드는 그의 얼굴은 별절게 달아올랐는데 거기에 씌여진 글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비장함까지 어리었다.

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대원들은 벌써부터 배밑골에서 흐물거리는 웃음집을 애써 진정시키느라 무진 애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랑송을 시작하자부터 맨뒤에 앉은 경희주변의 몇몇 처녀들속에 키득거리던 웃음은 급기야 온 병실을 떠나갈듯 한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몇문장 안되는 그 《시》속에 《아, 오》하는 감탄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또 구절의 단



락뒤엔 어김없이 《…노라, …여라》라는 종결문을 꼭꼭 붙여주었는데 과연 웃음없이는 들을수 없었다.

백영철이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느라 머리를 수그리고 이마를 슬슬 문지르는 속에서 정철을 향해 주먹을 내보이며 위협적으로 눈을 흘근거리는 그를 찌어보았다.

모두들 눈물까지 흘리며 실컷 웃었다.

아무래도 정식에게 지원포를 싸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쯤 지나 병실안이 조용해졌다.

《…웃기만 할 일이 아니요. 그새 이런 발표모임이 여러번 있었지만 정식동무가 이렇게 자기의 작품을 들고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이게 중요한거요. 내 정철동무에게 파업을 하나 주겠소. 일주일간 정식동무의 창작을 도와줄것!》

《알았습니다.》

웃음이 잦기를 기다려 뒤에 앉았던 경희가 소리없이 일어섰다.

대원들의 몫시선이 삽시에 그에게 쏠렸다.

《제가 오늘 쓴 글은 시가 아니라… 저, 이 글을 쓴 나 자신도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글에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생각해오던 감정을 솔직히 그대로 담아보았습니다.》

일순 병실안이 조용해졌다.

그가 쓴 글은 《마음의 고백》이라는 산문이었다.

《…글은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고요가 깃든 방안에 흘러가는 시내물처럼 도란도란 청아하게 울렸다.

《왜냐하면 글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반영되어있고 그래서 글은 더욱 솔직한 향심으로 써야 하는것입니다.》

저도 그사이 여러편의 글을 썼고 일정하게 평가도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신이 쓴 글들을 거울로 삼고 자주 그앞에 자기를 비추어보곤 합니다. 스스로 대견하고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때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과연 저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 어느 노래에도 있듯이 그 어떤 영예나 명예를 바라서 돌격대에 탄원한것은 아니였던가, 그로 하여 말은 일에 불만을 가져본적은 없었던가 하고 말입니다. 얼마전에 입당을 한 동지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과연 나의 마음속에 부러움과 함께 그 어떤 시새움이 나 질투의 감정은 없었던가.

그렇지 않다고 뿔뿔이 말할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쩐지 경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였다.

《…돌격대에 나온 후의 특색있는 창작과정을 통하여 글에서뿐아니라 제 한생의 종자는 과연 무엇

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종자가 없는 글은 글이 아니듯이 종자가 없는 인생도 인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글은 끝났다.

하지만 병실안에는 여전히 고요가 흘렀다.

모두의 가슴에 샘물처럼 흘러든 그의 글이 너무도 큰 여운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백영철은 코마루가 찌릿해움을 느끼었다.

병실의 중간쯤에 앉았던 정철이 벌떡 일어섰다.

《동지들, 오늘 경희동무가 자기의 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경희동무 하나만이 아닌 우리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량심적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자신부터가 당원의 영예를 지니는 계단을 쌓느라 돌격대에 탄원했지 그것이 당원으로 불러달라고 뿔뿔이 말할수 있는 과정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 여직껏 손끝의 재간으로 글을 썼다면 이 시각부터는 그 글을 거울로 삼아 집단의 더 큰 단합을 위하여 사심없이 자기를 바쳐나가겠다는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병실안이 격양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뒤이어 또 한 대원이 일어났는데 그는 얼마전에 입당한 신입당원이었다.

《…이렇게 저는 입당 그자체에 자신의 목표를 세웠던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여러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다 더 높은 목표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항상 지켜보는 동지들의 눈길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럼없이 한생을 뿔뿔이 살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많은 대원들이 일어나 자신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으며 당면하여 있게 될 대발파에서 저저마다 앞장설것을 결의해나섰다.

사실 이것은 백영철이 대원들속에 문학열풍을 일으키며 바랐던바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껏 돌격대의 사업에 만족하였다.

하기야 대원들의 자각성으로 충만된 그 열의에 떠받들려 날마다 전진하는 돌격대의 사업에 불만이 있을것도 없었다. 그러나 경희의 수첩에서 우연히 그의 마음을 읽은 날 밤, 영철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갔다.

낮에 본 경희의 글에 비추어볼 때 대원들의 정신적준비에는 어쩐지 뭔가 꼭 짊을수 없는 공백이 있는듯 하였다.

더구나 대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이룩해가는 위훈의 바탕에 사소하게나마 그 어떤 사리나 공명심은 없었던가?!

사심없는 헌신에 대해 누구나 말은 쉽게 한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짧지 않은 한생을 남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조국을 위해 바쳐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상한 각오, 꾸준한 인내이기 전에 옹바른 인생관을 바탕으로 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아지를 펼쳐나가는 백영철의 눈앞에는 선군시대의 공로자들로 온 나라에 알려진 깊은 산골분교의 부부교원이며 미지의 세계를 헤쳐가는 과학자들, 구봉령의 가족도로관리원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하다면 대원들을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구나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까지 참가했던 자신이고보면 그 책임감으로 사뭇 어깨가 무거워지는 백영철이었다.

(무엇보다 대원들모두의 정신문화적인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주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생각이 여기에 이른 영철은 드디어 대원들속에서 작품창작의 된바람을 일으키기로 하였던것이다.

대원들에게 더 높은 문화적소양과 함께 그 과정에 자신을 돌이켜볼 정신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한 처녀의 소박한 글 한편이 이토록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바로 이래서 문학은 시대를 선도한다고 하는것인가?!

(얼마나 좋은 동무들인가?!)

새로운 흥분으로 뒤설레이는 대원들을 둘러보는 영철의 마음에는 커다란 믿음이 굵실굵실 차올랐다.

다음날부터 돌격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일신되었다.

창작경쟁도표결에 새로운 경쟁도표가 또 하나 붙었는데 주제는 《나는 오늘 집단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였다.

경쟁요강은 부디 따로 정한것이 없었고 저녁총화때마다 대중의 집체적인 의견을 참작하여 도표를 올리였다.

도표의 붉은 줄들이 저저마다 경쟁적으로 키를 들구었다. 거기에는 별의별 사연들이 다 어려있었는데 어쨌든 크든작든 그것이 동지들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 조직과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의 의사를 모아 도표의 붉은 줄을 올리였다.

×

광구의 여기저기에 거대한 암석을 규격에 맞추어 절단해낸 석재들이 주런이 널려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무게는 무려 수십톤에 달하였다.

이제는 그 석재들을 실어 건설장까지 날라가는

일이 남았다. 그를 위해 광산에서 멀지 않은 역에 무개화차편성이 조직되었다.

이제 산재되어있는 이 석재들을 역까지 실어다 화차에 올려 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산에서는 석재운반용대형대차까지 내주었다.

그런데 낮에 온 소식이 얼마전에 일이 있어 타기 관에 동원되었던 이 대차가 아직 사나흘은 더 걸려야 돌아온다는것이였다.

대차가 도착하는 차제로 래일부터는 석재운반작업을 하려했는데...

다들 맥을 놓으려 했다.

대원들에게 오후한것 휴식을 선포한 백영철은 저녁에 있게 될 작품발표회준비를 잘하라고 일렀다.

...이제는 이 작품발표회가 모든 대원들이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은근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되었다.

여러명의 대원들이 창작품들을 발표하였는데 그들의 수준이 눈에 띄게 쑥 올라간것이 알려졌다.

이번에는 중간쯤에 앉았던 최정식이 머뭇머뭇하며 일어섰다. 웅성거리며 자기를 바라보는 대원들을 둘러보던 그의 눈길이 백영철에게 와 멎었다.

(끝내 하나 완성해낸 모양인가?!)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는 영철의 시선을 외면하며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 오늘까지도 아직 시 한편 완성해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조용하던 병실안의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는 말소리가 울리였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심정을 담은 시 한편을 읊으려고 합니다.》

조용해진 장내에 애써 자신을 다잡으려는듯 한정식의 목소리가 석싹하게 울리였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용서하시라 선생님이지여

화학숙제도 제대로 안해오고

대수공식도 외우지 않아

선생님을 애먹이던 이 제자들

선생님이지여 용서하시라

...

서정시 《용서하시라》였다.

처음에는 별로 자신없이 딱딱하고 메마르게 울리던 그의 목소리가 시의 서정을 타고 차츰 열기를 띠며 뭔가 가슴밀곶에서 고폐치는 뜨거운 감정의 설

레이를 타고 격조높이 터지었다.

...

허나 나는 그대의 아들  
내 혈전장에서 용맹하러니  
잊지 마시라  
내 최후의 돌격전에서  
기발하고 나가다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며  
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  
그리고 용서하시라

정식의 시랑송은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뚝 서있는 그의 눈빛에는 알수 없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번뜩이고있었다.

《동무들, 지금껏 즐기치게 달음쳐온 우리 돌격대가 오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석재운반용대차는 아직 며칠 걸려야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며칠을 앉아 기다리고만 있어야겠습니까?! 건설장에선 이 석재가 도착하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있을것입니다.》

정식은 잠시 말을 끊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우리가 왜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이곳으로 달려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많은 글을 쓰면서 버리어온 마음들이 바로 이 시각을 위해서가 아닌 말입니까?!

...전 이 자리에서 대형화물차로 석재를 끌어내리자는걸 제기합니다. 동지들! 석재를 실어만 주십시오. 실어내리는건 제가 맡겠습니다.》

정식의 폭탄같은 이 제의는 순식간에 온 장내를 들끓게 하였다. 지어 백영철이도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그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게 아니었다.

하지만 역시 기술실무적인 문제에서는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정식동무에게 타산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백영철의 말에 모두들 여전히 서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정식은 기다리고나 있듯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 생산해놓은 석재들중에 제일 작은것의 무게마저도 대형화물차적재량의 20~30프로를 초과한다. 화물차의 적재량규정을 운행시 최대안전수치를 준하여 정했다고 볼 때 평지에서라면 이만한 초과량이 허용될수 있다.

문제는 석재를 싣고 광구아래까지 내려가는 경사길이다....

《제 그래서 낮에 그 운반로정을 다시한번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몇군데 위험개소가 있긴 한

데 운전조작에서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한다면 능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된다는데요, 될수 있다는거요?!》

정식의 흥분한 말에 곁따라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른 백영철이 숨가쁜 어조로 물었다.

《대장동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작은 석재들부터 먼저 한편성을 맞추자는겁니다. 아, 전쟁때두 포를 고지우로 올려갈수 있다구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진 올라가는것두 아니구 내려오는건데... 그리구 제 운전사경력도 이젠...》

정식은 여전히 웃으며 배포유하게 희떠운 소리까지 했다.

그것으로 여직 반신반의하는 모두를 안심시키려는것이다.

정식이 자리에 앉고 이어 오랜 톤의끝에 백영철이 일어섰다.

《동무들, 방금 누군가도 말하다싶이 무모한 배짱으로 일을 치는건 아니요. 이 일이 그 어떤 공명심에서 출발하는건 더구나 아니요. 정식동무가 이런 안을 제기하게 된 그 마음은 그가 방금 읊은 시가 다 말해줍니다. 조국의 거세찬 발걸음에 자신의 보폭을 맞추고 그 길에서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생각이 아니겠는가. 난 이 동무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오.》

이렇게 되어 다음날 광산에서는 석재운반용대차가 아닌 대형화물차로 수십톤의 석재를 운반하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다. 돌격대원들은 물론이고 술한 광산사람들까지 지켜보는 속에 커다란 석재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덩실하니 올라앉았다. 화물차의 맨 뒤바퀴에는 백영철이 어제 밤에 광산공무직장에서 얻어온 강제식제동철관까지 깔려있었다.

차가 급시 발동을 걸고 떠나려는데 운전칸문을 열고 후닥닥 뛰어오르는 사람은 바로 백영철이었다.

《왜?! 내가 있으면 불편한가? 나두 동무 못지 않은 운전급수를 가지고있다는걸 알지?!》

헛해서 바라보는 정식에게 백영철이 픽 웃으며 한 말이다.

《에이, 어쨌든 대장동지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아직 이렇다하게 시 한편두 변변히 못 내놓구...》

최정식이 번속지레대를 지그시 당기면서 말했다.

《뭘, 동무야 오늘 하루일로 자기의 시를 쓰고 있지 않나.》

차가 움썹 떠나자 술한 사람들이 그 주위를 따라서는는데 손에는 모두 지레대며 통나무 같은것들을 들었다.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고 머리끝이 긴장감으로 터질듯 한 온 하루가 이렇게 흘렀다.

저 멀리 보이는 광구우에 붉은 락조가 내려앉았을무렵 석재상차작업이 끝났다.

첫 철차편성이 기적소리를 길게 남기며 아득히 멀어져갔다.

며칠후 돌격대병실로 여기 광산의 지배인아바이가 처음으로 올라왔다.

한생을 이곳 광산에 바치면서 돌만 다루어서인지 똑똑하고 엄격하면서도 고집과 자존심이 보통 아닌 아바이였다.

지배인은 방안으로 안내하는 백영철의 청을 마다하고 복도의 벽면들에 눈길을 준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거기에는 그새 대원들이 쓴 결의문이며 시작품들, 여러가지 경쟁도표들이 빼곡이 걸려있었다. 최정식이 쓴 시 《218호 나의 자동차야》도 있었다.

《이보우, 대장동무. 내 여기 돌격대의 일이 잘 되는 까닭을 다 알았소. 팬찮소. 정말 대단해.》

광산지배인은 주름발이 얼기설기한 얼굴에 느슨한 웃음을 짓고 뒤에 선 백영철을 돌아보았다.

《예, 우리 동무들이 모두 좋은 동무들입니다.》

《어디 가나 대원들은 다 좋지. 문제는 다른데 있는거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했던 대장동무의 잡도리가 다르거던.》

지배인아바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걸음을 옮겼다.

×

봄이다.

점점이 햇숨같은 구름이 푸른 하늘에 떠있다.

드넓은 이 대지를 한껏 어루만지는 밝은 해빛, 산산이 불어오는 바람, 바람...

백영철은 지금 병실결의 양지쪽 빈 공지를 일구고 심은 도라지밭머리에 서있다. 연약하고 애된 새싹들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땅을 헤집고 돌아오르고있었다.

이해 첫봄을 맞으며 땅이 녹는족족 일구어 심은 것이다.

사연이 깃든 도라지밭이었다.

겨울이 거의 끝나갈무렵 석재를 싣고 가는 차편에 몇몇 동무들이 휴가로 집을 다녀왔다.

그중의 한 대원이 동무들에게 맛보이겠다고 이 도라지를 몇지함 가져왔다. 지함을 뜯어 열어보던 대원들은 일시에 야— 하고 탄성을 터쳤다.

흙을 말끔히 털어내어 깨끗이 손질한 도라지들이 뿌리채로 마치 갑속에 가득찬 성냥가치처럼 빼곡이 차있었다.

《거 도라지들이 하나같이 실하구 곱게 생겼다. 꼭 동무네 아주머니를 보는것 같구만.》

대원들은 도라지를 가져온 동무를 돌아보며 떠들었다.

《그게 뭐... 창성도라지라누만.》

자기 안해에 대한 칭찬이 싫지 않은지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한다. 얼마나 정성이 깃들었는지 선뜻 손대기도 서슴어졌다.

더구나 취사원인 경희가 제일 기뻐했다.

동지들이 식탁에 오른 색다른 음식을 달게 드는 것을 볼 때 그들 못지 않게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처녀였다.

그런 그들을 둘러보던 백영철이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가만, 우리 저 도라지를 심는게 어떻게?》

모두들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대장동지. 이제 얼마 안 있어 여기서 철수하겠는데 이걸 심어 언제 덕을 보겠습니까?》

《저 도라지들을 보니 남편과 우리 돌격대를 위하는 한 녀인의 지성이 엿보이누만. 그저 먹어버리기엔 너무도 귀한 마음이란 말이요. 동무들도 시를 쓰면서 느꼈겠지, 감정의 승화라는걸 말이요. 아마 의의가 더 클게요.》

이렇게 생겨난 도라지밭이었다.

배일이면 이곳을 떠난다.

대원들은 떠나기에 앞서 자기들이 심은 나무들에 물을 주고있다. 이 도라지밭을 만든 다음날 작업이 끝난 뒤 10여리 떨어진 양묘장에 가서 떠다심은 나무들이다.

사방 둘러보아야 시뿐엔 돌뿐이어서 어딘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던 이곳 광산에 생겨난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었다.

그 어린 나무숲너머로 큰 소랭이며 바깥쪽을 맞든 처녀들이 노래소리를 날리며 언덕아래로 내려가고있다.

이번 겨울에 한 대원이 쾡쾡 얼어붙은 강에서 얼음을 까내고 물고기들을 잡아온적이 있었다. 그런 걸 처녀들이 커다란 탱크에 넣고 길러 지금은 저렇게 광산양어장에 놓아주러 가는 길이다.

이 땅을 위해 하나라도 흔적을 남겨놓고싶은, 그래서 기꺼웁게 유감없이 이곳을 떠나려는 그 마음들을 백영철은 잘 안다.

백마디 말이 무슨 필요이라?!

바로 이것이 애국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백영철은 부지중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것을 느끼며 힘껏 웨치고싶었다.

또 한해 얼마나 자라났는가

부디 우리에게 묻지를 맡아

날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이

이 전변의 세월이

이 땅이 푸르게

무성한 숲을 펼쳐가고있거니



단 평

## 선군시대 인생찬가가 주는 언어형상의 매력

—가사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두고—

음 혜 성

인민의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날에 날마다 행복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는 내 조국강산에 또 하나의 선군시대의 인생찬가가 울려퍼지고 있다.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는 이 세상 둘도 없는 당복, 선군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활적으로 잘 형상한 민요풍의 노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사는 알기 쉽고 곡에 맞추어 부르기 험하게 되여야 한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널리 불리우는 노래를 보면 다 가사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곡에 맞추어 부르기 험하게 씌여졌다.

인민들이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것처럼 즐겨 부르는것은 가사의 내용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시어를 통해 통속적으로, 음악적으로 씌여졌기 때문이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첫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방천 어드메냐  
주름깊은 얼굴에도 그 버들이 싱싱하오  
선군세상 복을 누려 구십환갑 노래하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우선 가사는 누구나 다 이해할수 있고 알기 쉬운 말,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면서 친숙해진 말로 뜻이 깊은 사상정서적내용을 표현함으로써 언어의 형상성을 더욱 높였다.

가사는 비록 황혼기에 들어섰어도 젊은 시절처럼 한생토록 우리 당을 받들어야 할 의지를 일상 언어생활에서 친숙해진 말로 흥취나게 노래하였다.

가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3개 절로 된 가사의 매절의 시어, 시구들에는 우리 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언어가 그대로 씌여졌으며 밝고 낭만적이고 흥취나는 사상감정이 꾸밈없이 반영되었다.

1절의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와 2절의 《첫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방천 어드메냐/ 주름깊은 얼굴에도 그 버들이 싱싱하오》는 민족적인 정서가 진하게 채색되어있는 시어, 시구들로서 인민적성격을 갖추고 통속화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가사에서 《그 시절이 푸르르오》, 《그 버들이 싱싱하오》, 《버들방천 어드메냐》,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와 같은 시적 표현들 역시 인민들의 언어생활관습을 그대로 따른 회화체, 입말체의 언어표현들이며 고유어이다.

가사를 읽고나면 이처럼 알기 쉬운 시어를 선택 하였을뿐아니라 거기에 깊은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생활의 진리를 안겨주고 정서적여운을 주고있다.

이 땅의 어느곳에나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려이어 일떠서 인민이 누리는 행복은 하늘에 닿았다.

로동당시대, 선군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다.

가사에서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통속적으로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선군세상복을 누리 구십환갑 노래하니》라고 표현하였다.

3절에서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이라는 시구절도 지나온 세월속에 자욱자욱 새겨진 청춘시절의 위훈들과 우리 당의 은덕아래 더 밝고 행복넘칠 미래를 낙관하는 사상감정을 인민적인 시어들로 표현하고있으며 그 여운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색을 하게 하고 그 내용에 공감하게 된다.

가사의 기본사상감정의 양상을 좌우하는 시어라고 할수 있는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라는 표현을 보면 얼마나 통속적이면서도 통쾌하고 많은 의미를 안고있는 시적언어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활이 즐겁고 행복넘치기를 바라고바란다.

이 가사에서는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라고 표현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더 밝고 흥겨운 양상을 띠게 하였다.

또한 음악적인 시어들을 잘 골라씀으로써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민요와 같은 소박하고 진실한 인민적인 노래를 좋아한다. 이러한 인민적인 가요들은 모두 부르기 쉽다. 그러한 노래들은 한번 부르면 따라부르고싶고 부를수록 인상이 깊어 곡이 저절로 떠오르는 가사들이다.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에서 가사의 모든 시어들은 노래를 부르기에 까다롭지 않고 유순하고 룰동적인것으로 하여 가사만 보아도 곡이 떠오르고 흥취가 나서 흥얼거리게 된다.

이 노래의 곡은 양산도장단을 타고흐르는 선율과 알기 쉬운 인민적언어, 음악적인 시어들과 결합되어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깨춤이 절로 나게 한다.

가사를 보면 시인이 음악적인 어휘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가사는 매 단어의 끝을 노래하는데 울림이 있는 음절로 이루어놓음으로써 노래가 류창하게 흘러갈수 있도록 하였다.

때문에 그 어떤 단어 하나도 발음하기 어렵거나 거슬리는것이 없을뿐아니라 단어들사이가 서로 룰동적으로 쉽게 결합되고있다.

또한 2절의 시어들의 첫 소리가 모두 순한 소리로 되어있어 소리내기가 쉽게 되어있다.

가사는 4.4조에 기초한 전통적인 룰조미를 훌륭히 살려내면서도 운률적인 공간을 주고있다.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창작경험은 가사를 알기 쉽고 부르기 쉽게 쓸 때라야 인민대중이 좋아하고 오래오래 불리워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4호 (루계 제810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4(2015)년 4월 1일

발 행 주체104(2015)년 4월 5일

7-56064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